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린타 (02)3142-0108

#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0월 14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193호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시흥 한 은행지점에서 하루2시간씩 청소부로 일하는 이자심행 보살(본명 이점임, 44세). 이씨는 급여로 받는 30만원을 매달 불우 청소년의 장학금과 사회봉사단체 후원금으로 내놓는다. 그것도 모자라 매주 월~수요일 하오 4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독거어르신들을 찾아 목욕을 시켜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일에 할애한다.

그 뿐이 아니다. 무료급식에서 침술봉사까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그러나 이씨는 기자의 인터뷰 제의에 "남에게 자랑할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며 한사코 자신을 드러내길 꺼렸다. 그야말로 병든 노인, 장애 어린이, 생활능력을 상실한 어르신 등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웃을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만족했다.

1남2녀의 어머니이자 한 남편의 아내인 광

"남 위해 살겠다"



범한 가장주부 이씨. 그는 요즘 병들고 외로운 한 할머니의 간병을 맡고 있다. 할머니는 15년째 근육이 경직돼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희귀한 병으로 투병 중이다.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투병기간이 길어지면 가족조차 외면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사실 가족도 아닌 남이 대소변을 받아내며 돌봐드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예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봉사활동 기록란에 기재된 것만도 1백여회가 넘을 정도로 봉사경력이 화려한 이씨는 병든 어르신들을 돌볼 때면 더욱 정성이 깃든다. 가난으로 찌든 어린시절 병든 친할머니를 병간호 한번 제대로 못해드리고 떠나 보냈던 일이 맺에 사무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씨가 봉사활동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씨는 "40살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병든 노인과 장애 어린이들을 씻기고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하루해가 짧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 해방직후 한글보급운동

# 백양사 앞장섰다

### 김민수교수, 당시 일기장-마침증서등 본지에 첫 공개

장성 백양사가 1945년 해방직후 국어 회복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어학회 한글강사로 백양사에 파견돼 한글강습교육을 맡았던 김민수 교수(73·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가 1945년 11월12일부터 한 달간 백양사에 머물며 기록한 일기장과 관련 사진·자료를 본지에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관련 인터뷰 7면〉

일제 36년 동안 잃어버린 우리말과 민족정신을 되찾기 위한 한글보급운동에 사찰인 백양사가 적극 동참한 사실은 10월9일 제552회 한글날을 맞아 한층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교수가 53년만에 처음 공개한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분회' 관련자료에는 강의진행 현황과 백양사 산내 암자순례 등을 생생히 기록한 원고지 1백여매 분량의 일기장 외에도 한글강습 수료생들에게 수여한 '마침증서', 강습생들의 이름과 나이·주소를 기록한 명단부, 강습을 위해 작성한 교본(敎本) 등이 포함돼 있다. '명단부'에는 송만암·이서옹스님 외 최덕림·신지정·이만홍('혜전' 출신)스님 등의 이름이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백양사는 조선어학회가 한글보급을 위해 전국 지방분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던 '한글강습회'의 개설을 자원하고, 영광 순창 부안 고창 담양 정읍 등 인근 지역과 사찰에서 온 강습생 37명(승가 25명·재가 12명)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했다. '한글강습회'는 36년 일제치하에서 위기를 맞은 '우리말'의 교육과 보급을 위해 조선어학회가 1945년 9월부터 미(美)군정청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교육행정으로, 각 도별로 '한글문화보급회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를 중심으로 분회 개설을 통해 한글보급운동을 전개했었다.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분회'는 한글문화보급회 전남지부의 산하 기구다.

김교수는 "백양사분회의 설치는 당시 백양사 주지였던 송만암스님이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었다"며 "만암스님의 재자 서옹스님(現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이 한글강습회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서울 청진동에 있던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옹스님은 "20세 안팎의 젊은 스님들이 향적전(香積殿)에 모여앉아 한글강습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김정은 기자
(jokim@buddhapia.com)

※김민수교수 일기초(抄) 다음주부터 연재.



◇1945년 12월10일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끝난후 강사 김민수 교수(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백양사스님들 및 강습생들과 기념 촬영했다. 김민수교수 오른쪽이 만암스님. 사진 위는 한글강습 수료후 강습생들에게 수여한 '마침증서'.

# 익산 미륵사 복원추진

### 2007년까지 1150억 예산…삼원병립식 가람 재현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 미륵사가 복원된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천1백50억원을 들여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를 복원하기로 하고 건교부와 문화부에 미륵사 복원건을 포함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상정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불교계 등으로부터 만지유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31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미륵사 복원을 위한 건물양식의 고증작업과 함께 기본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동원, 중원, 서원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삼원병립(三院竝立)식 가람형태를 바탕으로 9층석탑과 목탑, 금당, 강당, 승방, 회랑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시는 미륵사지 유적보호를 위해 복원지역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학계의 의견을 따라 현 미륵사지와 미륵산 사이에 새로운 사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륵사지는 80년부터 95년까지 부여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로 전체적인 규모가 밝혀진바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 발족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꿔나갈 범국민운동기구가 9월 30일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고건 서울시장등 1백 15명을 발기인으로 한 '한국 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약칭 장개협, 공동대표 김상하)'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장개협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화장 권유와 시민서명운동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술 세미나, 납골당 모델 개발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대구 경북지역 교구본사협 구성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 등 이 지역 5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7일 대구불교방송국에서 모임을 갖고 협의회 구성을 결의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이날 모임에 불참했으나 협의회 구성에는 동의했다. 협의회는 종단직영인 팔공산 선본사를 5개 본사 주지 책임하에 운영 토록해 줄것을 총무원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킬 것도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제6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 통일발원 옴마니반메훔 정근

### 진언비도 제막…15·16일 진각종 총인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진각종이 주관하는 전국순회 제6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가 민족통일을 발원하는 옴마니반메훔 정근으로 2일간 열립니다.

국가가 처해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이번 대법회는 진각종 전국 심인당에서 일제히 정근으로 입재식을 갖는 한편, 8m 높이의 '국난극복 민족화합 서원 진언비'를 조성하고 제막식도 봉행합니다.

특히 시대현안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농·축·수·임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참여로 우리 농축수임산물 공동직거래 장터를 3일동안 마련해 주민들에게도 저렴하고 신선한 우리 산물을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실직자를 돕게 됩니다. 뜻깊은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에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옴마니반메훔 3정근: 10월15일(목)오후7시~10시
  6字진언비 제막식 및 대법회: 16일(금) 오후2시
  우리 농축수산물 직거래장: 16일(금)~18일(일)
- 장소: 진각종 총인원 (02)913-0751~3

※ 현장 생중계: 불교방송(101.9㎒) 16일 오후2시30분
※ 녹화 중계: 불교TV(ch32) 20일 오전11~12시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대한불교 진각종
후원: 국민회의연동회·자민련불자회·한나라당불자회·군승단 경승단·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신문사

창간 4주년 특집 28면 발행
가족불자화로 화목한 가정을 21·22면
'종교회합모색' 지상 좌담 23면
인터넷 불교사이트 목록 24·25면
불교동화-부처골에 온 부처님 27면
나와 '현대불교'와의 인연 18면

자동차 전문기업 KIA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좋은 이유 다섯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서울 - 부산 왕복 기름값 불과 3만 4천원
저렴한 디젤에 초절약형 엔비로 유지비 부담을 가볍게 줄였습니다.
2 두 가족이 타도 넉넉하고 편안한 공간
탁월한 승차감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장시간 타거나 운전해도 편안합니다.
3 국내 디젤차 최고의 속도와 파워
최고속도 175㎞/h의 뛰어난 파워로 어디에서나 힘이 넘칩니다.
4 고속도로 전용차선 주행
유일 교통체증은 남의 얘기.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달립니다.
5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스타일
외제차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는 곳마다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더욱 커진 경제특혜

60개월 장기 할부 실시
인도금 15% 이상시 월 할부금 20만원 정도로 충분한 60개월 장기 할부혜택을 드립니다.
(기준 Trip급 에어컨, 파워스티어링 포함 금액)

카니발 인도금 유예제 실시
선수금 10%로 카니발을 인도받고 잔금(최대 55%)은 할부가 끝난 뒤에 내는 카니발 인도금 유예제를 고객의 성원 속에 연장 시행합니다.

승용차 보험 할인율 승계
98년 8월1일 부터 시행된 승용차 보험 할인율 승계로 승용차 소유자가 카니발 구입시 30% 정도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니밴 - Carnival

# 사 설

## 선거도 포교다

한국불교 최대의 종단인 조계종이 선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제2기 개혁종단을 이끌어 갈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도 있다. 자천 타천으로 후보가 되어 선거캠프를 차리고 치열한 물밑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정인의 출마여부를 놓고 지지와 반대의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여론의 주도권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미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선거과열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다시 지난 조계종 일부 본사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세속적 타락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권고했었다. 과거의 추태가 되풀이된다면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불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선거자체가 바로 포교다. 입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일거일동은 불자나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쳐진다. 여법하게 치러지지 않을 때 불자들의 가슴이 아프고, 예비 불자나 대중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새긴다면 이번 선거 불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불자들의 귀의처 삼보의 하나인 승가의 선거가 아닌가! 아무리 평소에 승단의 권위를 부르짖어도 승가본연의 자세를 잃고 후보자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면 모든 대중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생사를 걸겠다는 부처님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한번 공명정대한 선거를 촉구한다. 종단선거는 종헌 종법에 따라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세속처럼 지나치게 과열되어서는 안된다. 참선하는 자세처럼 조용함속에서 종단의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신하고 덕망있는 후보자가 추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후보자들도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진실한 부처님 제자로 돌아가 선거에 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자와 포살의 정신으로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보다 나은 후보를 찾아 나서자. 후보 난립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개혁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파수꾼이 될 후보로 단일화 시키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다소 잃어버렸던 개혁종단 초기의 개혁정신과 열기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모범적인 승가상을 정립하는 절호의 찬스다. 선거불사를 승풍진작의 기회로 삼아 선거후에도 화합승가의 참보습을 보여주자.

이번 기회에 종단의 선거제도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론화시키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되면 좋겠다. 물론 현행 선거제도가 종단개혁과정에서 여법하게 만들어졌으나 속세의 제도를 모방한 것은 틀림이 없고 종교단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대의제에 입각한 선거제라도 선거후에 반목과 대립, 갈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종단의 권위가 바로 서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의 문을 열고 불국정토사회를 이룩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나친 과열이나 세속적인 선거행태로 우리불교의 전통과 역사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후보자와 선거권자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 한-중-일 불교수행단 '교류'

## 15~11월9일 한국수행단 중국불교 체험
## '우호교류회' 북경서 실무추진위 구성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교류가 수행체험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15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복건성 광화사(廣化寺)에서 중국불교를 체험할 수행단 15명을 파견한다. 중앙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을 단장으로, 교육원 교육국장 정혜스님을 부단장으로 하는 수행단은 중앙승가대 학승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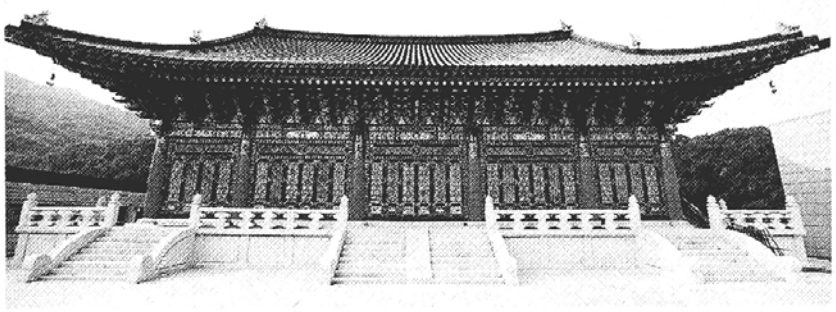
수행단은 10일간 광화사 스님들과 모든 일과를 함께하며 중국불교의 수행을 체험하게 된다. 광화사측은 한국 수행단을 맞아 중국불교의 역사와 수행법 등을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행단은 10일간의 수행체험을 마치고 26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중국 불교성지도 순례한다.

이번 수행체험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가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실시해 온 교류대회에서 결의된 3국불교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한국 스님들의 중국불교 수행체험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중국과 일본의 수행단이 한국 불교 수행체험을 갖게 된다. 또 한국 수행단도 내년 일본을 방문 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은 수행체험단을 비교적 젊은 스님들로 구성키로 했다. 21세기 동북아 불교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각국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는 수행체험 교류와 별도로 각국 불교 성지순례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의 성지순례단 22명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23명의 중국측 순례단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11월에는 일본 순례단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 한편,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는 28일 북경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어 3국불교 교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11일 낙성기념법요식을 계기로 서울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연건평 6천3백여평의 관문사 7층에 지어진 대불보전.

# 천태종 '관문사시대' 열렸다

## 11일 낙성 … 21세기 포교종책 변화 예고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의 '관문사 시대'가 열렸다.

천태종은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관문사 옥불전에서 낙성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 또 낙성축하 불공법회와 한·중·일·미얀마 4개국 대표 회향만찬을 가졌다. 이에 앞서 9일에는 점등식 및 특별기도, 10일에는 한·중·일·미얀마 4개국 대표 상견례와 전야 예술제를 여는 등 '관문사시대'를 자축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지난 93년 10월 착공, 5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관문사는 대지 4천2백평, 지하 4층 지상 7층 연건평 6천5백39평의 전통미를 살린 현대식 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지하 1층에는 귀빈식당과 대중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1·2층에는 종무소와 천태종보사, 금강불교대 등 종무기관과 신행단체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3층에는 기도실, 어린이놀이방,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이, 4층부터 6층까지는 최대 1만명까지 수용 가능한 스탠드형 법당 옥불전, 7층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보기드문 7량 기와당우로 조성된 대불보전이 자리를 하고 있다. 지하 4층부터 2층에는 3백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완비돼 있다.

관문사가 서울 강남지역의 포교판도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천태종은 매머드 종합불교회관인 총본산 구인사, 부산 삼광사, 울산 정광사 등과 함께 비약적 교세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종무전산화 장려
#### 선학원 분원장 회의

재단법인 선학원 정기 분원장 회의가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분원장 회의는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장 무애스님의 '장례 화장문화 선도에 관한 불교인의 역할과 실제' 한양대 민희식 교수의 '다종교 시대의 한국불교 위상' 등 특강과 재단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에서 사찰 종무 전산화 프로그램 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산화 시연과 사용법을 설명한다.

임연태 기자




### 금오문도회 7차 수련회

금오손상좌문도회(회장 지명스님) 제7차 금오문도회 수련법회가 '화합과 단결속에 발전하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2백여명의 문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6일부터 7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련법회에서는 승산스님(화계사 조실)이 '국제화시대의 선사상'을 함주스님이 '큰스님의 일생과 구도정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 군법사후보 10명 확정
### 국방부, 내년 7월 임관

국방부는 9월 28일 98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최종합격자 45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조계종포교원과 개신교 군존파송 교단에 통보했다.

내년 7월 임관예정인 이번 군종사관후보생은 불교 10명, 개신교 35명이다. 불교 군종사관후보생들은 졸업 후 행자교육과 3사관학교에서의 훈련을 거쳐 내년 7월 군법사로 임관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21~22일 고창선운사서
### 방송작가 세미나

방송작가 세미나가 10월 21일~22일 전북고창 선운사에서 열린다.

15회째 맞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차문화'를 주제로 차의 이해, 행다법, 차음식문화 등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방송작가협회 회원 및 불교방송, 불교TV 작가 60여명 참가할 예정이며 강의는 초의문화재단 혜성스님과 차음식전문가 이양수씨가 맡는다.

정성운 기자

##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강화 보문사, 선원사지, 무애원 등을 찾아갑니다.

마애관음보살상(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9호)과 천연동굴 법당(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7호)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음기도도량 보문사, 괄만대장경 관각 성지인 선원사지 등을 답사합니다. 특히 무애원에서 설봉스님과 함께 흙을 빚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은 올가을 소중한 추억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설봉스님과 함께 빚는 도자기"

'강화 보문사 · 선원사지 · 무애원'

◇출 발: 10월18일(일) 아침6시30분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 제공, 도선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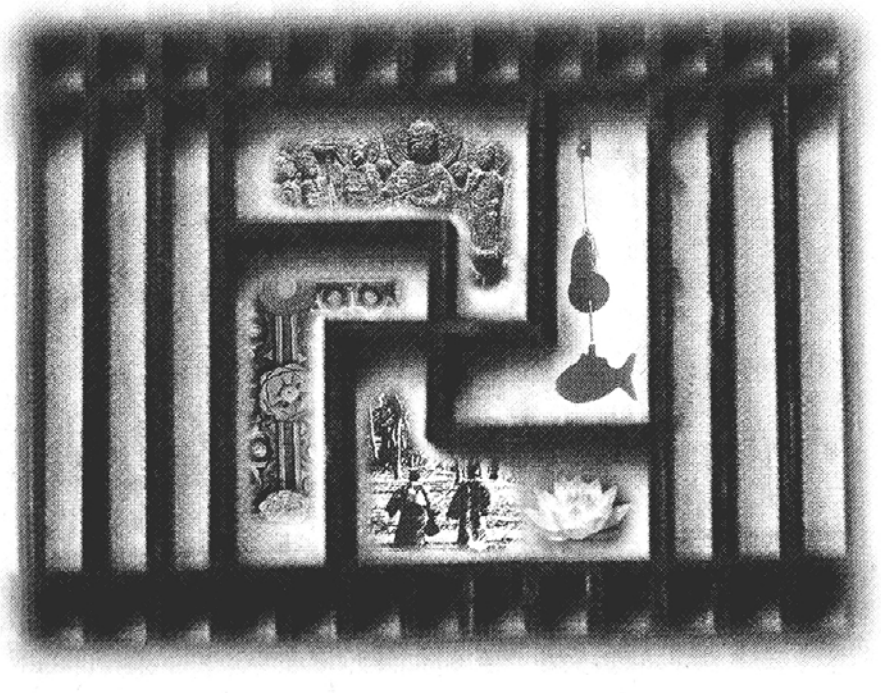
## 현대만평
박구원




이웃처럼 교류해서…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신문에서 만나세요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 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

4 현대불교 장간 4돌

시론



고은
〈시인 · 본지 논설고문〉

**청정을 향한 실천**
**생명의 바탕**
**가을은 그것을**
**일깨워 준다**

# 청정심을 그리워한다

가을이다.

옛 책 〈상서(尙書)〉는 동부아시아 온대지방의 상고시대 절기를 그 첫머리로 말하고 있다.

천지 네 절기를 다스려온 가문의 사람을 각각 동서남북의 땅에 살게 하는 광경은 자못 경건하다.

해가 뜨는 것을 공손히 손님인듯 맞아 동녘의 시작을 고루 차례로 할지니 낮이 그 길이가 밤과 같으므로… 그 백성은 흩어져 들로 나가고 새와 짐승은 흘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름에 짐승이 털갈이를 하고 가을에 와서 털같이를 하고 겨울에는 그 새와 짐승들에게 가는 털이 난다고 말한다.

이어서 요임금은 3백이요 또 예순이요 또 여섯날이니 윤달을 두며 사시(四時)를 정하고 한해를 이루어 백성의 작업이 힘을 모아나가면 모든 공적이 다 넓고 기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천지 운행이 이 지역의 네절기로 된 자연현상을 굳이 요제(堯帝)가 점지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왕도(王道)의 반영임에 틀림없다.

아득한 옛적부터 중국 황하유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한반도에서도 중국의 사계절 운행에 의존한 것이 우리의 절서(節序)인 것이다.

하지만 고대에는 중국이나 한반도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 일종의 보편성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황하 유역의 그것과 한강 유역의 그것은 어느것 하나의 자연현상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런 절기로 우리는 해마다 네 개의 다른 절기를 맞아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여름이 갔다.

지난 여름의 일은 예로부터 홍수를 다스리는 일을 정치로 여겨온 사실을 새삼 떠올려 주었다. 다스림(治)은 곧 물(水)에 물길을 잘 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쪽의 여러 곳에서 사람의 목숨, 짐승의 목숨과 많은 재산을 희생시킨 그 무서운 집중호우는 북한지역도 다시 재난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제통화기금 통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제 현실의 거리에 떠도는 사람들에게 비를 피할 처마 밑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 되어 준 것이다.

아직도 여기저기 폐허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은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은 우리에게 어김없는 절기를 베풀어 그 여름 뒤의 가을을 청했다.

가을 곡식이 다 익었다.

또한 잎마다 가을의 붉고 노란 단풍이 들어간다.

하늘은 더 커졌고 사위(四圍)는 웬지 텅 빈 것 같다.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렵게 일구어 온 성과에 부푼 기대를 낳는 계절인데도 한편으로는 조락(凋落)과 쇠망에 대한 무상감(無常感) 없이는 이 가을이 아닌 듯하다.

가을을 그냥 가을(秋)이라 하지 않고 '슬픈 가을(悲秋)'이라고 옛 사람들이 말한 것이 헛되지 않다. 1년 네 절기 가운데 오직 가을에만 사람의 심사(心思)를 더해서 형용사를 내세운 그 애수야말로 가을의 인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슬픈 가을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몇 십년 동안의 성장 이면에서 그 성장 못지않게 쌓여온 부패와 탐욕의 부분들이 정치·경제의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워낙 오래된 부패의 사슬이므로 이를 척결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단 나라의 일부만이 아니다.

중산층이라는 가건물이나 서민층이라는 인습의 대중사회역시 저마다 부패와 타락 그리고 탐욕의 누적으로부터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 땅의 참상은 누구 하나나 어느 집단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져야 할 책임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크나큰 과제의 이름으로 확인된다.

지도층은 지도층대로, 저 산골 농민은 농민대로 저마다 바른 삶이 모자란 것이 오늘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런 국면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해답은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나하나가 제 정신을 가다듬는 청정심의 발로 밖에는 없다. 그것은 거의 고행에 해당한다.

청정이란 땟국이나 더러움의 상대이다. 그런데 청정은 그런 더러움의 상대를 넘어서 인간과 세계의 본연(本然)을 뜻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법신은 청정함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모든 응신(應身) 화신(化身) 이전의 본질이다. 이 본질적인 청정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일이 수행이다.

지금 세상이나 사회는, 아니 산중도 수행이 크게 결핍되어 있다. 바로 이 청정을 향한 수행으로서의 자기실천이야말로 오늘의 미혹을 떨치고 나갈 생명의 바탕이다. 가을은 그것을 깨쳐 줌으로써 '슬픈 가을'이 아니라 '깨달음의 가을(覺秋)'이다.

# 표다지기 분주 … 과열 우려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한달 앞으로'

## '월주스님 3선론' 중대변수 될듯
## 후보마다 선거사무실 속속 마련

조계종의 제29대 총무원장과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선거 바람이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9월 25일과 10월 8일자로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가 공고 된 가운데 이미 공식 비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월즈, 월탄, 설조, 지선, 지은 스님등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스님들은 조계사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속속 마련하고 종책개발과 교계여론을 점검하며 득표 전략 세우기에 바쁜 모습이다. 또 핵심 참모진들은 각 교구본사별 종회의원 후보자와 선거인단 예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종책을 공식 발표한 후보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종단개혁과 21세기 종단의 비전 제시등에 종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게 주변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월주스님 3선론'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방은 9월 29일 '총무원장 3선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가 발족되면서 본격화 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회의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월주스님의 출마는 명백한 3선이라고 규정했다. 월주스님이 80년도에 6개월여간 총무원장으로 집무한 사실이 있는만큼 이번 출마는 3선에 해당되며 이는 종헌 제53조 2항의 "총무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대목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월주스님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위원장 성타)는 즉각 교계 신문을 통해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부당한 음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반론을 제기했다. 반론의 핵심은 80년도 월주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이므로 장기집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과 현 종헌은 94년에 제정공포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 법조계의 종헌 53조2항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으며 종단내 법규위원회는 심관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 측이 10월2일자로 성타스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이후 8일 성타스님이 답변을 냈으나 질의서와 답변의 내용 역시 3선 출마의 부당성과 정당성으로 요약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이 7일 총무원장 사서실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면담을 하고 싶다"는 면담신청서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여서 월주스님의 수용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

7일 열린 금오문도회 운영회의(의장 탄성)에서 월주 월탄 설조스님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거론 됐으나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한 점도 선거 구도가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에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하게 될 중앙 종회의원과 선거인단 선거운동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교구본사는 교구종회를 통해 중앙종회의원을 경선 없이 선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4명의 중앙종회의원이 배정된 직할교구의 경우 10여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표 다지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중앙종회의장에 도전장을 낸 법등스님(직지사부주지)과 일면스님(불암사주지)도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면서 종회의원 출마자들을 부지런히 접촉하고 있다.

개혁종단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와 관련, 교계는 과열혼탁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일 결성된 대구경북지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중립을 선언했다.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지선)도 9일 중앙종무기관과 종단 주요 소임자의 중립과 후보자들의 건전한 종책대결,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앙종무기관의 강압과 회유 거부 등을 내용으로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해 과열과 혼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담화문을 거듭 발표 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수요 인터뷰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여는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 '할 수 있다' 믿음 중요

-15~16일 범불교적으로 열고있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6차대회가 진각종 주관으로 마련되는데요. 이제 국난극복의 의지도 불자들로부터 국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국난을 참회대법회로 극복하고자 하는 뜻은 나부터 참회하는 생활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진호국가 불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수행하는 우리 종단은 이번 법회에 전종도가 동참해 입재식때 전국 1백22개 심인당에서 스승들의 집공으로 일제히 옴마니반메훔 3시간 정근을 합니다. 부처님과 나와 함께 되는 정진으로 '불작불행(佛作佛行)'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6차 법회를 특색있고 다채롭게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크게 3가지 불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우리 종단의 가장 큰 행사인 종조열반절 불사와 국난극복과 민족화합을 서원하는 '옴마니반메훔' 6자진언비를 세우고 그 제막식도 참회대법회와 함께 갖습니다. 진호(鎭護)국가 불사는 비단 불자들만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호국정신과 실천 의지를 담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별도로 깃발을 제작해 총인원 인근을 비롯 조계사 성북구청 주위 간선도로에 달아 장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회장도 2억여원을 예산으로 전면수리를 해 정성과 공을 들였습니다.

### 122개 심인당서 일제히 정근
### 우리 농축수산물 장터도 열어

-3가지 원력을 한꺼번에 담아내시는데는 뜻이 있으실텐데요.

▲생활불교 중생제도를 통한 호국불교의 의지를 강조하신 종조님의 사상을 되새기는 추념불사와 국난극복의 의지는 그 바탕이 닿아있을 것입니다. 이날 회당종조님의 새로운 존영을 봉안하는 의식도 함께 봉행됩니다. 우리 종단이 이제는 포교와 교육불사는 물론, 복지 통일불사에도 불자들의 원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량을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언비는 종단차원으로는 처음 세우시는 것이지요.

▲사실 오래전부터 총인원에 진언비를 건립하려는 원을 가졌는데 마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일정을 잡고나니 마침내 연이 닿더군요. 예석으로 좋은 자연석이 구해져 총인원 마당 한가운데 진언비를 조성했습니다. 국내 자연석비로서는 최대규모라고 생각되며, 이제 비를 세운 인연공덕으로 국난이 꼭 극복될것이라고 믿지요. 그리고 누구나 도량에 들어서면 비돌이를 하면서 참배하게 됩니다.

-부대행사로 우리 농축수산물 공동직거래장이 열리지요.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의 참여로 16일 대법회날부터 토·일요일까 3일간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총인원이 주택가라 주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자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며 편의와 혜택을 나눌 수 있게 하려는 뜻입니다. 싱싱한 우리 산물을 직거래해 농민도 좋고, 값싸게 사는 주민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이 실직가정을 돕는 기금으로 전달돼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 경건을 보관하는 윤장대를 돌리며 무명을 밝히자
(보물 제684호)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달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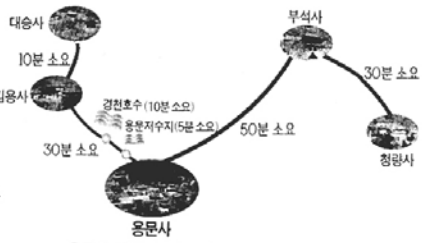



**용문사 오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삼사순례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 입 재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 교차로 승가



### 월간 '해인' 지 2백호 발행

보광 해인사주지는 10월호로 월간 〈해인〉지 2백호를 발행, 특집호를 냈다.



### 화엄법계사 삼존불 개금

도업 부산 화엄법계사 주지(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는 17일 삼존불개금 및 일주문 단청불사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또 스님은 이날 〈화엄경 사상연구〉(민족사 刊) 출판기념법회도 갖는다.



### 광동중 교사 증축

일면 광동학원 이사장(불암사 주지)은 2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광동중학교 교사를 증축한다. 또 도농교환학습으로 서울 중계중학교와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교환수업을 실시한다.



### 노인의 날 기념 민속행사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2일 제2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추석맞이 민속놀이행사를 개최, 생활보호대상 노인 40명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 불국사 강원 동문회장에

종후 노적사 주지는 9월25일 불국사강원동문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추대됐다. 불국사강원동문회는 각 기수별로 1인씩의 상임위원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동문회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웃돕기 쌀·성금 전달

원욱 호압사 주지는 1일 서울 금천구청에 9월22일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서 모은 쌀 20가마와 실직가정 급식지원비 1백70만원(20가구에 8만5천원씩)을 전달했다.



### 국어운동 공로 표창

동봉 우리절 주지는 552돌 한글날 기념 국어운동 공로표창자로 선정, 9일 한글회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우리말로 절이름을 지어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지켜 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 수해복구 부대등에 감사패

선암 강화 적석사 주지는 9월26일 대웅전에서 수해응급복구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강화군청 건설과 황완익 보상계장과 육군 제 3835부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교도소·군에 떡·음료 제공

묵조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장은 2일 추석을 맞아 개방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경비교도대 제3탄약창 군법당 등을 방문, 떡과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10년 두문불출 기도 회향한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

# "절안에서 더 많은 사람 만나"

## 종합불사 낙성 부처님 가피
## 어린이 청소년 포교 헌신



"두문불출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은 실시한 10년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신흥사 종합불사도 원만회향되게 했습니다."

11일 '10년 기도회향 및 종합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한 경기도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 스님은 22년 전 맨손으로 경기도 화성 초라한 초가 한채와 허물어져가는 법당 뿐이었던 산골에 들어와 기도로 대규모 사찰을 일구었다. 언제부턴가 스님은 '억척스님' '포교의 대모'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 하루를 기도로 보내다시피 하면서도 신흥사 종합불사, 불서발간, 각종 수련법회 등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스님의 두문불출 10년기도는 88년 4월 24일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는 1천일기도로 시작됐다. 이후 2천일기도, 3천일기도로 이어져 10년기도를 회향하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번째 1천일기도 때는 수련원과 법당불사가 이루어졌고, 2천일기도때는 6백40평의 대규모 교육관이 빚한푼 없이 회향됐습니다. 3천일기도에는 어린이 법당(관음전), 사리탑, 수선당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불사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10여년 동안 절밖을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 불자들이 찾아와 시주를 해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됐기 때문이다.

"주지가 10년 동안 일주문밖을 나서지 않고 이같은 불사를 했다면 믿겠어요. 그러나 저는 두문불출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이 청소년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기도도 함께 하니 나가서 법문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큽니다."

성일스님이 교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이 청소년포교에 뛰어든 것은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보낸 "좀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텐데…"라는 내용의 참회편지를 받고부터이다. 이후 스님은 곧바로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고 청소년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스님은 "기도나 건축불사보다는 수만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수련하고 불법을 배워갔다는 점이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련원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도 각별하다. 이들을 위해 〈어린이불교학교 지침서〉〈법을 설하여 주옵소서〉1, 2권을 발간했다. 또 〈신도포교 지침서〉상하권에 이어 금년내로 〈청소년 포교 지침서〉와 연극및 촌극 대본도 출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싫증내지 않고 부처님의 교리를 재미있게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극이나 촌극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라며 대본 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내생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스님은 "이제는 건축불사보다는 신흥사를 불교의 미래를 일구는 교육도량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수영장 및 청소년 학습장 조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교차로 재가

### 화갑기념 문집 봉정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은 25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후학들이 화갑을 기념해 편찬한 〈기산대종사문집〉과 〈금강경대사전〉을 봉정받는다.

### 부산불교교육대 체육대회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은 18일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7백여 동문들이 참석하는 친선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을 개최한다.

### 불우이웃에 생필품 전달



이혜숙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은 2일 추석맞이 주민어울잔치를 개최, 불우이웃 40명에게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 제2회 용인미술전 개최



진철문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장(조각가)은 18일까지 경기도 박물관 전시실에서 제2회 용인미술전을 개최한다.

### 국민회의 여성 특위장에



이미경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2일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지구당 산하 여성 및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대광맹인불자회 7돌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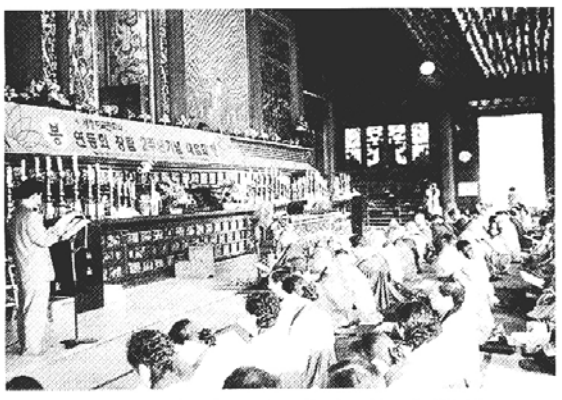


박석규 대광맹인불자회장은 11일 오후2시 대구시 중구 남산1동 소재 동회 법당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053)256-0114

### 하불동 서울경기지역장에



장인식 현대불교신문 1기 명예기자(성북구청 근무)는 9월26일 하이텔불교동호회 서울경기지역 지역장으로 선출됐다.



## 국민회의 연등회 창립 2주년 법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창립 2주년을 맞아 9월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발전과 국태민안을 서원했다.

박상규회장은 "연등회가 창립 2주년을 맞기까지 관심과 격려를 해준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불교권익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청화 조계종 종회 부의장, 혜광 법주사 주지, 지선 백양사 주지, 지하 중앙승가대학 총장, 진관 조계종 종회의원스님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대행, 김용채 자민련 부총재, 이길룡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정덕중 태고종 신도회 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했다.

## 동국대 법대 21일 후원의 밤 행사



◇ 이연택씨



◇ 연기영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연기영·본지 논설위원)은 9월24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동문들과 재학생을 후원하기 위한 '동국대 법대 후원회'를 발족, 21일 오후 7시에는 동국대 90주년기념관 그릴에서 '동국대 법과대학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동국대 법대 후원회'는 명문 법대로서의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사법시험을 비롯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졸업·재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법대 동창회(회장 오진모·청주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초대회장으로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61·前 총무처장관)이 선출됐다.

이연택 회장은 "법대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과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고시장학' 등 장학금 수여와 연구활동 지원, 법대 시설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법과대 연기영 학장은 "법대 발전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사학의 법과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후원의 밤에 동문들과 교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2)260-3224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감로심장회 심장병 조선족어린이 2명 수술



감로심장회(회장 보운, 천진선원 주지)는 최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국교포 어린이 2명을 초청, 무료수술을 실시했다.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윤동법(11세)군과 허금실(14세)양은 9월 24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진주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뒤 9월 29, 30일 마산의료원과 경상대병원에서 각각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 월주스님께 드리는 글

# 아름다운 수행자의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월주스님!
울여름 많은 이들을 울렸던 그 지긋지긋한 장마비가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한창입니다. 농부는 느런 들녘 이삭을 거두고, 스님네들은 여름 한철 정진했던 공부를 갈무리하는 이 가을은 모두에게 수확과 풍요의 계절입니다. 94년 이곳 조계사를 쩌렁쩌렁 울렸던 파사현정의 사자후가 지나온 4년사이로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스님 4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스님 역시 종단을 위해 발로 뛰어온 지난 4년의 소회로 이가을 가슴이 벅차시겠지요.

그러나 월주스님! 한가롭게 가을 풍광을 즐길만큼 상황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종단은 종단대로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원인은 한가지입니다. 계승발전 시켜야할 긍지와 전통은 부족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미래' 양자에 대한 무지가 섞여있는 셈이기요. 스님 분명히 전통과 미래는 둘이 아닙니다. 전통에 밝지못한 이가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어렵고, 내일에 대한 혜안이 없는 이가 전통을 올곧게 세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 스님 4년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작금의 조계종단의 미래를 위해 세워야할 전통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분권화도 필요하고 제도개혁도 해야합니다. 대사회역할을 높이고 종무행정을 현대화 하는것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버리고 비움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선거과정에서 전통으로 세우고 나아가 이를 종단전통으로, 사회의 도덕률로 뿌리 내리는 일일 것입니다. 21세기 수행자의 상의정립도, 도박사건으로 실추된 출가수행자의 위의도 이것으로 다시 세울수 있습니다. 종단의 진정한 개혁이 오고, 오탁악세를 밝히는 불교로 비로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 스님네들은 '중벼슬 닭벼슬보다 못하다'고 하여 출가수행자가 소임이나 직위에 연연해 탐착에 젖지 말아야 함을 경책해 왔습니다. 한철 소임을 살고나서 걸망매고 훌쩍 떠나는 수행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월주스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를 발족시켰더니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보내고, 혹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려하는 이들의 시각은 "범불교도 연대회의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모임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3선 반대 움직임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묻어둬서는 안될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줄 것을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 버림과 비움으로 얻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권력에 탐착하지 않는 새 승가상, 종단의 어른상'을 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3선이 법리적으로 합당한가, 아닌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님 주변의 극소수 권승들은 이같은 종도들의 열망을 외면한채 '정권 재창출'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4년 봄 들불처럼 일었던 사부대중의 힘은 그 서슬퍼런 서원장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졌던 당시의 투쟁에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동참하고 결국 개혁회의를 출범시킬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선이 종단에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논리적 판단하에서 였을까요, 아니면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탐욕에 대한 사부대중의 준엄한 심판 이었을까요. 일부에서 지금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중임의 법리적 해석 운운하는 작태가 얼마나 지엽말단적인 것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월주 스님! 3선연임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한번 종단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월주스님의 3선을 반대하는 이유는 스님의 지난4년 공과를 무조건 덮자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 지지 여부에 앞서 지금 이순간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종단이 또다시 혼란속에 젖어들고, 자칫 4년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조차 많은 고민이 있었고 쉽게 결론을 내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아직까지 3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표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스님 주변의 일부 권승들의 충동질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저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며, 또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도 쉽게 아니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종단의 천년지대계를 위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월주스님을 앞장세워 사욕을 챙기려는 권승들은 전 종도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종단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 천년을 비틸 아름드리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면 서까래에 화려한 물감을 칠하는 일입니까."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02-725-3766)** 불교 14개 단체
**공동의장 :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혜총(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회장)**
**지원(전국불교운동연합 의장), 종광(조계종을 염려하는 종회의원 모임), 효산(선원 수좌), 진관(불교인권위원회 대표), 효종(중앙승가대학교 동문회장)**

# 열린마당

**종교교도소**

종교교도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는 9월 29일 공청회를 열고 기독교교도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가, 높은 재범률(97년 57%)로 교정효과가 미약하므로, 기독교교도소 등 사립교도소를 설립해 과밀을 해소하고 재범률 하락을 위한 교정프로그램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종교차별 및 편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 등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종교계와 국민회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기독교교도소案 종교 형평성 우려

**법성** 〈스님 · 조계종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사립교도소, 특히 종교교도소의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전문교화 능력을 갖춘 인력도 부족할 뿐아니라 막대한 액수의 재원도 종교단체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종교의 가르침으로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종교교도소 설립 이전에 종교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종교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는데도 사회는 왜 갈수록 악해지는가를 물어야 한다.

개신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에 대해서도 한가지 짚을 부분이 있다. 기독교교도소 운영방안에 따르면, 입소자를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입소하고 싶어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입소할 수 없다는 얘긴데, 이는 종교를 이유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법안 심의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마땅히 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신교계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고 있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한다. 불교계도 우리 사회의 아프고 어두운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사립교도소는 언젠가는 설립될 것이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 재원마련 어려움 위탁운영 바람직

**김정수** 〈신부 · 천주교 교정사목위원장〉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교정시설이 아니라 범죄학교라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땅히 종교계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순간의 잘못을 깨닫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일에 마땅히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신교계에서 먼저 사설교도소 설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땅을 확보하는 어려움은 둘째 치더라도 3백~5백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를 짓는 건축비만 최소한 2백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큰 돈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종교계는 교정교화를 통해 재소자의 사회복지를 돕는 목적이 일치하니 종교교도소 설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방법이 문제다.

각종 복지시설의 예에서 보듯 정부가 시설을 지어 종교 및 사회단체에 위탁운영케 하는 방법은 어떨까. 또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교정교화 부분만 종교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둘지 말고 정부와 종교 및 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리라 본다.

## 적절한 정부감독 교정기능 강화

**이종윤** 〈목사 ·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이사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류 속에서 현행교도소에서의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관과 함께 사립교도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등 서구의 사립교도소 실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유익이 사립교도소 설립의 근거가 되면 실패한다. 이윤 극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수 직원에 부과된 과중한 업무량 △재소자의 최저 권리가 유린되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교도소의 효용성을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자유시장형 자본주의와 행정편의적 관료주의의 약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부감독 하에 교정교화를 이루기 위한 사립교도소는 미래가 밝다.

한기총에서는 95년 10월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정교화사업에서의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종교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교정 현실에 맞추어 교정당국의 감독과 긴밀한 협조하에 기초한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 형벌권등 검토 설립기준 엄격히

**남궁진** 〈국회의원 ·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



외국의 사립교도소 운영 결과 재범률 감소 효과가 크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립교도소를 설립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교도행정의 질 향상과 재범률의 하락, 정부 예산절감, 교도소 내부비리 척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가두는 교도소에서 가르치는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립교도소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사립교도소에는 몇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종교단체가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형벌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헌법 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침해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립교도소 설립은 엄격한 허가제가 바람직하다. 사립교도소의 지휘 · 감독권과 임원 임면권은 법무부가 행사해야 한다.

사립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엄두도 못내고 있다. 공동기금 조성도 고려해볼만 하다.

입소대상자는 종교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자원으로 해야 한다. 품성개발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되, 종교행사 참여는 재소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사립교도소 설립법안 빠르면 올내 마련

### "신중하게 진행해야" 여론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남궁진의원이 9월 29일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립교도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을 빠르면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독교교도소 설립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개신교가 종교교도소 설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수용의 해소, 교도행정의 질향상, 예산절감, 교도소 비리척결, 선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경우는 김대중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 법안이라도 만들어놔야 할 처지다.

사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9월말 현재 수용인원은 7만1백여명으로 적정인원 5만6천여명보다 1만1천여명 이상 많다. '교화가 불가능하다' '구금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재범률도 57%에 이른다. 이같은 이유에서 사립교도소 설립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몇 가지 성공 사례도 사립교도소 설립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5년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이 교도소를 거쳐간 520명의 재소자 가운데 20명만이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으며, 결국 재범률은 4%에 그쳤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립교도소가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83년 미국 최초의 사설교정업체인 CCA의 테네시주 교도소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교정업체들만 큰 돈을 벌게 해줬을 뿐 정치적인 부패와 재소자 처우의 질적 저하 등의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사립교도소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 사회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실화하기까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일수교수(고려대)는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가 구상하고 있는 기독교교도소 시설운영안을 소개했다. △3백~5백명 수용 규모 △시설은 기독교계가 지어 국가에 헌납 △교도소 시설비는 기독교계가 부담, 시설관리비와 국가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 부담, 교화프로그램 운영비는 기독교계 부담 △수용대상자는 기독교신자를 우선으로 지원으로 함 △소장은 기독교계가 선출, 법무장관 승인 등이다.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이사장 이종윤목사는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독교계가 모두 할 수 없다. 부지는 정부가 마련해줘야 하며, 시설비의 절반도 정부가 내야 한다"고 답변, 기독교교도소 설립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내비쳤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부당한 음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소위 "출마 위헌"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합니다.

94년 개정공포된 우리 종헌은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2조에서는 "이 종헌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임'의 뜻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재취임한다는 뜻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종헌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 군소후보를 지지하는 일부스님들은 송월주 총무원장이 만약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3선에 해당하여 종헌에 위배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연속으로 임기를 2회 수행한 바 없으며, 1980년의 직무 수행은 현행 종헌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헌 위배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또한** 80년도 6개월여 동안의 총무원장 직무수행도 강압에 의해 사퇴하게 됨으로써 송월주 총무원장스님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지 않고 종단 전체의 비극으로 비화됐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비극을 무비판적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려는 이들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시 송월주 총무원장은 신군부가 광주항쟁을 진압한 5월 18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신군부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회 각계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신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광고를 앞다투어 게재하던 그 서슬퍼런 시기에서

송월주 총무원장은 종교적 양심을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종단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의 지지의사도 일체 밝히기를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23일간 구속감금중에 11월 7일 강압에 의해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던 것입니다.

**현행** 종헌에서 1회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인의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헌의 개정 취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20년 전 6개월여 동안의 짧은 임기를 수행하다가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사실이 장기집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단 운영의 최고 원칙을 애써 무시하면서 정당성 없는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전 종도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혁 종헌의 권위와 효력을 부정하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려는 반개혁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월 29일 기자회견의 의도가 진정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소위 "총무원장 3선 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라는 단체 명의로 이루어진 9월 29일의 기자회견문에는 보기에도 섬뜩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3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종단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 혼란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 단체의 전면적인 3선 반대운동이라는 것이 기자회견문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종단의 안정보다는 불안을, 화합보다는 분열을 추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열**과 대립, 반목의 역사 속에서 우리 종단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총무원장의 평균 임기가 고작 1년에 불과했고, 숱한 대립과 분쟁으로 같은 스님들끼리 반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불사 이후 종단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 승가교육과 전법도생을 종단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였고,

비로소 일정한 수준을 갖춘 종무행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찰의 재정은 투명화되어 많은 재원을 교육과 포교 등 종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화합의 풍토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종단의 사회적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종단이 이토록 안정속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전 종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취하였던 종단 개혁 불사와 종단 개혁 불사를 여법하게 계승한 현재의 개혁종단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종단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몇몇 군소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스님들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분열과 대립의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종단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여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 군소후보 지지자들도 건전한 선거 풍토 조성에 협력해야 합니다.

**승가**의 혜안은 흑백과 옥석을 능히 가리는 법입니다. 상대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승가 대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화합과 발전의 장이 되어야 할 총무원장 선거를 타락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해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화합과 발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종단** 발전의 비전과 종책을 제시하고 대중의 검증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거 문화이며, 이런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종헌에서 부촉받은 바, 이 땅의 불일이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동참하신 각 단체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 부단한 개혁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각 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청류**와 탁류가 만나면 청탁이 혼재되어 오직 탁류만이 보이듯이, 종단 발전의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이 한순간 판단의 착오로 잘못된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탁류에 휩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0월 1일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성타(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외 준비위원 일동

# 26년 포교경험 '책으로'

## 성일스님 '신도포교지침서' ㊦

**사찰 특별행사 중심 구성**

**분야별 포교서 계속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포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일선 사찰의 모든 스님들에게는 하나의 화두나 마찬가지다. 포교는 그만큼 어렵고 또 딱히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일스님(경기 화성 신흥사 주지)이 10년 기도 회향 기념으로 펴낸 〈신도포교 지침서 ㊦〉(불광출판부 刊)는 이미 나온 상권과 함께 26년간 포교일선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포교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로 주목받을만 하다. 하나의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한 흔적과,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안하기 위해 애쓴 진지한 노력이 엿보인다.

상권이 일반사찰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엮어져 있는데 반해, 하권은 건축불사, 범종불사 등 특별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각종 특별행사에 관한 내용은 성일스님이 특별행사를 봉행하며 체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사찰에서도 제반 행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성은 성일스님의 10년 기도 회향에 대한 소감과 포교경험담이 제1장에 수록돼 있으며, 2장은 천일, 이천일, 삼천일 기도 입재 및 회향법회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3장에는 법당 기공식과 상량식·봉불점안식 등 건축불사에 관한 내용이, 제4장에서는 불탑을 세우는데 있어서의 모든 절차와 형식 등 특별불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5장 특별행사편에서는 불교대학과 관련한 각종 행사 및 전법도량 순회 법회, 결혼식 및 각종 시상식에 대해, 6장에서는 성인 수련대회와 관련한 안내와 자료집을 제시하고 있다.

성일스님은 이미 펴낸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에 이어 〈청소년 포교지침서〉와 〈기도는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제목의 신행지침서도 연내 펴내, 포교 전분야에 관한 시리즈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불·보살 모든것 알기쉽게

## '100문 100답-불보살·신중편'

**고명석·고광영씨 공저**

**탄생배경·특징등 정리**




보통 불상이라 하면 부처님 상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불 때 붐상은 보살상이나 신중상, 심지어는 명왕(明王)상까지 포함된다.

고명석씨(대원정사 편집장)와 고광영씨(불교시대사 편집부장)가 공동으로 펴낸 〈100문 100답-불·보살·신중편〉은 상·하 두 권으로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불·보살·신중들의 이름과 모습을 정리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은 팔부중(八部衆·신라말에서 고려초 우리나라 탑신의 기단부나 부도에 조성된 신)에 대해 진전사지 3층석탑과 선림원지 3층석탑의 기단에 등장하는 팔부중 하나 하나를 탁본과 사진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또 '부처가 되는 것인가' '부처님을 믿는 것인가' '오늘날 보살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와 불교는 만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을 통해 불교 신앙과 불교문화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상권 '불·보살의 세계'에서는 석가모니불 등 18불과 각종 보살, 십대 제자에 대해, 하권 '신중의 세계'에서는 각 신중 및 신중단에 참여한 중국과 한국의 주요 토속신들과 전륜성왕, 유마거사 등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한명우 기자

# '신라 불국토' 만든 원광·안홍·자장스님

## 신종원교수 '신라 최초의 고승들'




신종원 교수(강원대 역사교육)가 쓴 〈신라 최초의 고승들〉(민족사 刊)은 아도화상의 불교 전도와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된 불교가 신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원광·안홍·자장 등 세 스님을 조명한 책이다. 그러면서 불교가 기층종교인 샤머니즘과 충돌하면서 왕실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과 세 스님의 삶과 당시 불교를 복원하고 있다.

원광·안홍·자장스님은 신라 진흥왕 후반기부터 선덕여왕 시절에 활동했다. 당시 신라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들 스님들은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대중을 교화하며 외교적인 역할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을 없애 주는 역할까지 하였다. 또한 교리연구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신라사회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피상적인 이해수준에 머물러 있던 불교를 끌어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원광·자장스님은 중국의 고승전에 신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전기가 쓰여진 인물. 그러나 이들 전기는 정확한 생존 연대나 가계(家系) 등 갈피를 잡기 어렵고, 안홍스님에 대한 사료 역시 부족한 탓에 이 책은 세 스님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렇지만 교리·교화적인 측면보다는 시대상황과 사회활동을 정확히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값 6천5백원.

한명우 기자

## 독일 국제도서전서 대장경 영인본 전시

팔만대장경이 지난 7일부터 6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전시됐다.

세계 최대 규모,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는 1백여개국 9천여출판사가 참가해 30여만권의 각종 도서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현암사 문학동네 해냄 등 17개 출판사가 참가해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 영인본, 박경리의 토지 등 1천5백여권의 도서를 전시했다.

## 마치 수필 읽듯 부처님 가르침 읽는다

### 반영규씨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솔바람 刊)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이다. 반영규(자비의 소리대표) 저.

〈아함경〉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전으로 꼽힌다.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기억에 의해 정리·집성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삶과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전과 교리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상사는 이야기를 섞어가며 설명함으로써, 마치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다른 입문서와는 다른 특징이다.

〈아함경〉으로 불교를 배우는 까닭에서부터 불교의 역사와 기본사상, 붓다가 본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수행 등을 주제로 엮어져 있다. 값 7천원.

한명우 기자

## 새로나온 책




▲기도와 영험 이야기=현 지장불교문화대학 학장인 심종선씨가 팔만대장경에 있는 신승전, 비구니전, 전등록, 선문염송과 일본의 본조고승전 및 각 사찰의 사지(寺誌) 등에서 신승들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엮은 책. 방광하는 이야기, 영가 천도 이야기, 병자 치료 및 소원성취 이야기 등 불자들이 직접 겪은 수기를 한데 묶었다. 〈법연, 8천원〉



▲노자 도덕경 제멋대로 읽기=해탈스님(울산 월은사)은 노자의 도사상을 극찬한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상(無常)한 도'로 여긴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그저 인(因)으로 연(緣)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자사상을 불교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묻어난다. 〈출판시대, 7천원〉



▲금강산=분단 반세기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길에 동반해도 좋은 금강산 탐승과 답사의 길잡이가 될 안내서.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물론 자연과 지질, 역사와 문화를 요점 정리했다. 만물상, 구룡연 등 금강산 4대 탐승 명소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도 이 책의 특징. 유홍준씨가 엮었다.〈학고재, 1만3천원〉

## 화제의 책

**맑은 영혼을 위하여** 정호스님 지음

### 삶과 죽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책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선행과 물러남 없는 정진, 그것은 곧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임을 말한다. 죽음도 삶도 지금 여기에 있으며,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면 생멸법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다.

윤회와 영가천도, 경전에 나타난 효사상과 인과법까지 살피고 불자들의 신행체험기도 함께 실어 삶과 죽음을 체감적으로 느끼도록 배려했다. 생활 속의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쉽고 재미있게 엮어 읽기에도 편하다. 정호스님은 현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토방, 7천원〉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 원연스님 지음

### 지금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는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저자 원연스님은 일본 오사까에서 관음사를 창건해 재일동포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있다. 〈운주사, 6천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편자 | 출 판 사 |
|---|---|---|---|
| 1 | 산에는 꽃이피네 | 법 정 | 동쪽나라 |
| 2 | 생활속의 기도법 | 일 타 | 효 림 |
| 3 | 법수로 배우는 불교 | 이 제 열 | 여시아문 |
| 4 |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 김 용 옥 | 통 나 무 |
| 5 | 산승의 함기 | 이 학 종 | 운 주 사 |
| 6 | 불교입문 | 조계종전집부 | 조계종출판사 |
| 7 | 불교신행의 주춧돌 | 우 룡 | 효 림 |
| 8 | 번뇌 속으로 세상 속으로 | 법 륜 | 토 방 |
| 9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백가지 | 성우·지현 | 민 족 사 |
| 10 |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 이효걸외 | 예문서원 |

구입문의:(02)737-0695


奉 友耕 한정섭 大法師 華甲기념 論·文·奉·呈·法·會 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로 불교 포교와 교육사업에 평생을 바치고 계시는 「友耕 한정섭대법사」 님께서 금년에 화갑을 맞이하게 되어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이 조그만 정성을 모아 스승의 화갑을 기념하는 뜻에서 綺山 林錫珍 대종사 문집을 발간 봉정하여 그간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져 다음과 같이 봉정법회를 봉행코져 하오니 뜻깊은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앙망하나이다.

⊙ 일시 : 불기 2542년 10월 25일(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증명 :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태고종 前종정 안덕암 대종사
⊙ 고문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큰스님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법 홍 큰스님
대한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이사장 정 각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조실 숭 산 큰스님
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각 박사 [무순]
⊙ 행사문의 : 02)962-1666, 969-2410

■모시는 이 : 綺山 논문 봉정위원회 위원장 석성륜
綺山 문도회원 한정섭 김영태 김두성 합장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

한국불교통신대학 대학원 학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일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 집 학 과
(1) 대학 : 불교포교학과, 불교교육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 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 학 자 격
(1) 포교학과, 불교교육과는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2) 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 자.
(3) 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 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 형 방 법
1차 서류심사

5.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반 명함판사진 3매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FAX) 02)969-4981
(2)연수원(상락항 수도원) 0356)584-0657
(3)부산교육원 [051)704-0798] (4)남부산교육원[051)208-5327
(5)대구교육원[053)743-1178] (6)구미교육원[0546)455-1068]
(7)충북교육원[0431)223-9026] (8)제천교육원[0443)46-3023]
(9)안산교육원[0345)83-2667] (10)포천교육원[0357)32-4565]
(11)진해교육원[0553)546-4186] (12)상주교육원[0582)536-2195]
(13)하와이교육원[808)943-8015]

7. 합 격 자 발 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1) 재학중 수업료 전액 면제.
(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 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3) 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품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02)962-1666, 969-2410

# 세종대왕 불교음악 직접 작곡

## 김수온 '사리영응기'에 범패 7 곡명 · 가사 수록 박범훈교수 발견

한글을 창제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지은 세종대왕이 불교음악인 범패도 직접 작곡했다는 기록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 한국음악과 박범훈교수는 예술철학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리영응기 · 舍利靈應記〉에 세종이 직접 작곡한 범패(梵唄) 7곡의 이름과 가사가 실려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책에는 '친히 새 음악 앙홍자지곡(仰鴻慈之曲) 발대원지곡(發大願之曲) 융선도지곡(隆善道之曲) 묘인연지곡(妙因緣之曲) 포법운지곡(布法雲之曲) 연감로지곡(演甘露之曲) 의정혜지곡(依定慧之曲) 등 7곡을 지으셨으니 그 악장(가사)은 귀삼보(歸三寶) 찬법신(贊法身) 찬보신(贊報身) 찬화신(贊化身) 등 아홉이 있다(…親制新聲仰鴻慈之曲發大願之曲隆善道之曲妙因緣之曲布法雲之曲演甘露之曲依定慧之曲 其樂章則九曰歸三寶贊法身贊報身贊化身…)' 고 기록돼 있다. 이들 7곡의 범패는 세종30년 내불당을 인왕산 자락으로 옮긴 후 거행한 봉안법회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작곡된 것이다. 특히 세종의 작곡 동기, 악기편성, 작품명, 가사 등과 함께 한글로 표기된 50여개의 이름이 남아 있어 서지학연구에도 귀중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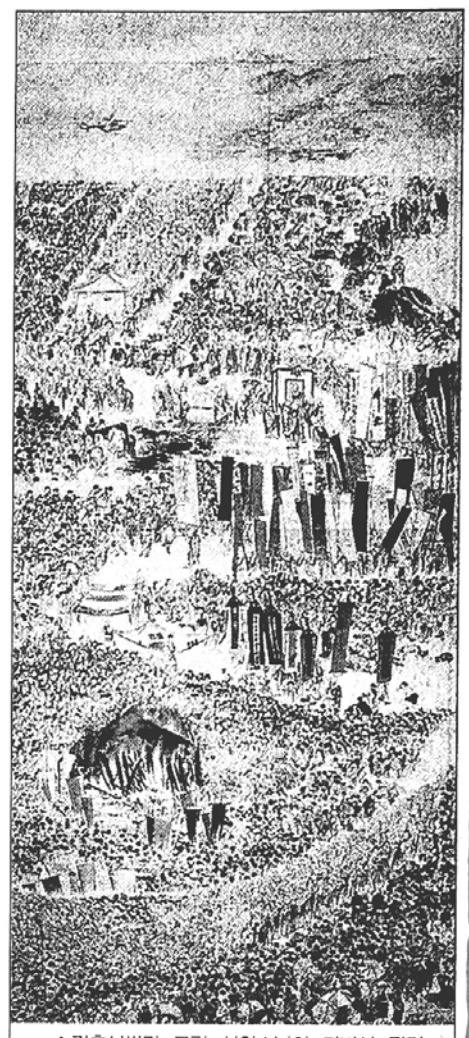
◇박범훈교수

병조정랑 김수온(1410~1481)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세종32년(1450년) 편찬한 〈사리영응기〉는 부처님 사리에 대한 영험기로 궁궐내의 내불당을 인왕산 자락으로 옮겨 짓는 과정과 불상점안법회 · 낙성식을 할 때 불전에서 방광하고 사리탑에서 광채가 찬란한 사리 두 개가 나타나 왕과 함께 경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경당 권상로스님에게 자료를 입수한 국학자 안다산이 1930년 〈불교〉지 27호에 일부 소개한 〈사리영응기〉의 내용을 추적하다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힌 박범훈교수는 "사리영응기는 세종대왕을 고려의 향악과 불교음악을 재정비해 한국적 불교음악을 창제한 왕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리영응기' 원문. 오른쪽에서 넷째줄 중간부터 "또 앙홍자지곡등 새 곡을 직접 만드시니…"라고 쓰여있다.



◇김호석씨가 그린 성철스님의 다비식 장면. 총 1만여명이 화폭에 들어있다.

## 그림으로 보는 '성철스님 다비식'

### 김호석作…동산방화랑서 23일까지

### 시간대별 구성 1만여 인물 화폭에

국내 인물화의 1인자로 꼽히는 김호석씨(41)가 14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동산방 화랑에서 성철스님 다비식 장면을 그린 대형그림(높이 3.65m, 폭 1.6m)을 전시한다.

성철스님의 열반 5주기를 앞두고 전시되는 '성철스님 다비식' 그림은 시간대별로 다비식을 재구성한 대형 동양화. 맨 윗 부분에는 생전의 성철스님이 해인사에서 백련암을 향해 오르는 모습을, 바로 아래 부분부터 영결식 이후의 장면을 담고 있다. 갖가지 화려한 만장들을 앞세우고 스님의 영정과 법체가 다비식장으로 옮겨지는 긴 행렬이 화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고 바로 밑으로 연화대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5년전 성철스님의 다비식에 참석했을때 큰 스님의 원적을 슬퍼하던 수십만 인파에 감짝 놀랐다는 작가는 4년간 매일 네사람씩 모두 1만여명의 인물 군상을 한 화폭에 담아놓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과 이를 밑받침한 스케치들이 함께 전시된다. (02)733-6945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 "강습생들 향학열 대단했죠"

## 1945년 백양사 한글강습회 자료공개 김민수교수



약 력

1926년 강원도 홍천生
1951년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 졸
1961~65년 국어학회 이사장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중언어학회 고문, 대장경 파니니연구회 회장

조선어학회 한글강습회 파견 강사로 1945년 11월12일부터 한달간 백양사에서 머물며 한글을 강의했던 김민수 교수(73). 김교수는 53년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일기장과 강습회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며 당시 백양사에서의 추억도 꺼내 놓았다.

-'한글문화보급회'란 어떤 단체였습니까.

▲해방이후 우리말 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1945년 9월부터 조선어학회가 '국어회복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설치한 한글강습소를 말합니다.

한글강습소는 대체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 학교에 개설, 우리글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기쁨에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백양사처럼 직접 한글강습소 개설을 요청한 것은 일반 단체나 타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백양사에서의 한글강습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요.

▲11월 27일부터 2주간 오전 9시30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향적전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기초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훈민정음과 표준어 표기법, 한글 교수법(敎授法) 등을 가르쳤습니다. 강습생은 고등부와 보통부로 나누어 모두 37명이었는데 강습받는 스님들 중에는 혜화불교전문학교 출신도 있어 교육수준이 높았습니다.

### 사찰의 교육 · 문화운동 모범보여
### "만암스님의 교육열의 기억남아"

-사찰로서 유일하게 한글문화보급에 참여한 백양사 한글강습소 개설이 갖는 의의라면.

▲불자들만을 위한 교육운동이 아닌 전라남도 일대의 한글보급을 위한 사회 · 문화운동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료후 한글강사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강습생들이 해당 지역과 사찰로 돌아가 한글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백양사에서의 생활을 소개해 주십시오.

▲밤마다 대중스님들과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강습생들과 운문암 · 영천암 등을 등산하고 '한글 노래'를 배우며 함께 연극도 구경했었습니다. 특히 주지 만암스님은 70고령에도 늘 꼿꼿한 자세였고 손자뻘되는 제게도 깍듯이 존대를 하셨지요. 말씀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독립과 항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이후 백양사에 가보셨습니까.

▲일상사에 쫓겨 그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해 아쉬워요. 조만간 다시 방문해 간직하고 있는 만암스님으로부터 받은 염주와 백양사분회 관련 자료 · 사진 등을 백양사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불교신자'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53년전 백양사에서 맺은 불가(佛家)와의 인연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경파니니연구회 일을 맡아 대장경 한글역경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때의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니니문법 연구를 통해 한글역경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미력하나마 불교와의 인연을 잘 회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종교화합 예술제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각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9일 미술제 개막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미술제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등 1백6점이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음악제는 27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테너 박광원 강무림, 소프라노 박미혜 김보경 씨 등이 출연해 '석굴암' 등을, 2부는 3백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그리운 금강산' '우정의 노래' 등을 합창한다. 영화제 기간에는 러시아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노스탤지아'(19~23일), 불교영화인 신성일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20~24일) 등이 한국영상자료원 시사실에서 상영된다. 학술세미나는 22일 오후 2시 '종교영상예술의 의미와 가치' '현장에서 본 영상과 종교성의 만남' 등을 주제로 열린다.

이경숙 기자



◇9일 종교미술제를 시작으로 음악제, 영화제, 학술세미나 등이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종교미술제.

## 불교사원지 하권 발간

조계종 문화부는 전국에 산재한 사지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자료집인 〈불교사원지〉 하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출간한 〈불교사원지〉 상권에 이어 나온 하권에는 충북지역 234개, 충남(대전)지역 467개, 전북지역 143개, 전남(광주)지역 274개, 제주지역 5개 등 총 1123개의 사지에 대한 연혁 및 현황, 보유 성보문화재, 해당관련문헌, 참고자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써 조계종은 상권에서 조사된 934개 사지를 합쳐 2057개의 사지를 정리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진흥기계공업사
농 · 업 · 기 · 계 · 제 · 작 · 전 · 문
대표이사 이 영 무
■ 경남 양산시 어곡동 158번지 유산공단내
TEL : 0523)386-1778~9
FAX : 0523)383-3177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
우진건설 주식회사
사업종목 : 토목, 건축공사업(사찰시공전문)
대표이사 정 대 부
■ 창원사무실 : 경남 창원시 봉곡동 86-3
TEL : 0551)265-0685~6, 283-8349
FAX : 0551)265-0827
■ 진주사무실 : 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32-5
TEL : 0591)758-4552~3 FAX : 0591)758-4553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불사에 동참하여 대법당 준공법회를 갖게 되었음을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 | |
|---|---|---|
| 회 장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송월주 |
| 수석부회장 |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 홍인곡 |
| 상임부회장 | 대한불교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 김월서 |
| 부 회 장 |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 전운덕 |
| 부 회 장 |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 김성초 |
| 부 회 장 | 중앙승가대학교 총 장 | 방지하 |
| 부 회 장 |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 이홍파 |

이 사 일 동

▶ 사무국 :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4885 / FAX 737-7872

## 大韓佛教眞覺宗

總印 覺 海

總印司書室長 惠 淨

統理院長 省超
總務部長 悔 淨
財務部長 守 性
建設部長 惠 明
總務局長 觀 天
管財局長 證 光
文化社會局長 圓 明

宗議會議長 烋 明
副 議 長 修 淨
副 議 長 一成和

查監院長 眞 堂
查監部長 義 玄

教育院長 一靜
宗學硏究室長 惠淨
教育部長 觀證
局長 悔省

眞覺大學長 碩峯
教務局長 浩 堂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 FAX : 02)913-0755

##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金大天

司書 金性眞

元老院長 李慧雄
總務院長 李泓坡

| | | | |
|---|---|---|---|
| 總務部長 | 金智攝 | 教務部長 | 黃法明 |
| 財務部長 | 金鏡徹 | 社會部長 | 尹法虛 |
| 監察部長 | 金和嚴 | 組織部長 | 李法炫 |
| 布教部長 | 柳牛耕 | 教育部長 | 金性哲 |

宗會議長 鄭法輪
副 議 長 金法華 事務局長 池法項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圓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3109 / FAX : 02)763-5851

## 佛教總指宗

宗領 祿靜

統理院長 總持華
總務部長 知 性
財務部長 善導願
敎政部長 圓滿願
法藏院長 曉 岡
查監院長 圓 峰
查監委員 法 靜
查監委員 法 成
宗會議長 松 霞
副 議 長 法 靜

서울·경기 敎區長 圍 松
충청·전라 敎區長 法水願
대구·경북 敎區長 修 成
부산·경남 敎區長 義 剛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 FAX : 02)552-1082

##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암석 학 암

| | | | |
|---|---|---|---|
| 승정원장 | 석 정 원 | 종회의장 | 석 죽 산 |
| 총무원장 | 석 마 정 | 부의장 | 육 대 월 |
| 부 원 장 | 석 덕 치 | 부의장 | 석 유 공 |
| 포교원장 | 지 혜 봉 | | |
| 사무총장 | 석 청 강 | | |
| 사정원장서리 | 이 진 공 | | |
| 총무부장 | 양 벽 암 | 의전부장 | 김 종 국 |
| 교무부장 | 서 영 암 | 섭외부장 | 안 응 암 |
| 사회부장 | 석 법 진 | 홍보부장 | 조법운성 |
| 재무부장 | 석 나 월 | 동원부장 | 석 마 인 |
| 규정부장 | 석 법 인 | | |

▶ 총무원: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80
전화 : 0336)643-8254, 643-8515 / FAX : 0336)643-7254
▶ 서울사무소: 광진구 중곡동 124-7
전화 : 02)456-1963 / FAX : 02)456-1963

##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 종 | 정 | 석 | 봉 |
|---|---|---|---|
| 원로원원장 | | 인 | 현 |
| 총무원장 | | 송 | 산 |
| 부 원 장 | | 법 | 성 |
| 중앙종회의장 | | 성 | 타 |
| 사정원장 | | 대 | 원 |
| 복지봉사원장 | | 성 | 룡 |
| 불교예술원장 | | 원 | 표 |
| 연수원장 | | 백 | 담 |
| 총무부장 | | 경 | 신 |
| 교무부장 | | 진 | 웅 |
| 사회부장 | | 혜 | 월 |
| 재무부장 | | 보 | 성 |
| 사정부장 | | 상 | 호 |
| 포교부장 | | 법 | 운 |
| 서울종무원장 | | 선 | 왕 |
| 경기인천종무원장 | | 담 | 원 |
| 충북종무원장 | | 법 | 운 |
| 경남종무원장 | | 백 | 담 |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전화 : 0331)262-1577, 263-1353 FAX : 0331)262-1577

## ⊙특별안내및모집⊙

▶ 21세기를 열어갑시다 ★ 21C 초고과학수행원(超高科學修行院) ★

⊙물질적 가치가 존중되고 지식,두뇌경쟁의 20세기 물질문명시대에서 이제는 정신적 가치가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혜,각성(覺性),정신잠재능력경쟁의 정신문명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과학,철학,종교,사회등 모든 분야가 필연적으로 걱변하여 융합과 초월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의 열린시대가 도래합니다. 세계의 정신문명을 주도한 메카인 우리 한국에서는 개인의 해탈에 머물러 사라지는 소승에 머무르지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과 깨달음을 위하여 세계적인 활약을 해야합니다.

★ 21C 초고과학수행院의 모집사항 (자격제한이나 기입비 없음) ★ (1차 전화접수, 2차 개별방문 상담)

| 구 분 | 내 | 용 |
|---|---|---|
| 1. 자원봉사자 | 현재 및 확장시 | 본원의 업무에 봉사활동하여 수행성불할 자(PC, 인터넷,기타업무,소장의 추고비 지급) |
| 2. 수행회원 | 준 회 원 | 재가수행자 및 수행에 관한 정보교류차원(지표의 컴퓨터DB구축작업 완료후 폐기함) |
| | 정 회 원 | 일반,고급,특별,초고단계의 혁신적인 수행코스 이수 |
| 3. 임 원 | 본원의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끌어 갈 도반 | |

★ 21C 超高科學 수행院의 추진내용 일부공개 ★

○우리 한국인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독창적인 발명이나 과학기술의 민족입니다 생활문화(衣)가 가장 잘 적응하는 흰옷,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는 항토집,옹기그릇,김치(따위)에서부터 한글(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세계최초의 금속활자,첨성대(피다고라스의 정리로 알려진 직각삼각형의 법칙 응용),조선의 자격루등.
그리고 역사에 남는 해인사(대장경),석굴암 미륵사지석탑 불국사등의 사찰건립등은 당시에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사용한 좋은 실례들입니다.(*우주,인간,자연은 그지체가 이미 과학이며 철저한 과학법칙과 함께 하고있습니다.)

| 구분 | 내 용 설 명 |
|---|---|
| 1.수행관련 내 용 | •參禪(묵조선,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체계화한 실제 수행을 하되<br>•본원의 경우에 수행하는 길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자기 희사에 따라 선택하여 정진하면 됩니다<br>1.보조장비 없이 기존의 각종 방법으로 정진-상세상근기자의 경우는 이 방법이 좋음.<br>2.수행에 보조장비나 정책을 사용하는 新방법으로 정진-상중계 모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br>•대희활약자는 별도수련주가 마인드스페이스의 참조적 활용법 (잠재능력,초능력개발,인간정신(인격,성격,단련법,극기력..등)의 개조..등)특별코스과정을 봐른이수 |
| 2.초시스템 연구 개발 과 활용 | •불가능하거나 먼 미래의 공이 절대 아닙니다 초지혜와 초과학기술로 개척-실현합니다.<br>《대형파동률 및 화동광선장치,초에너지 응집장치 PFS, 특수광선에너지방사장치》<br>•최희 27차 장치에 최첨단 지능형컴퓨터기술을 융합하여 초 초종적인 《초상공간시스템》제작에 장 《초상공간시스템》의 활용은 무궁무진(수행,지능,잠재능력 초능력개발,건강,목표성취,인간개조,인체의 대량양성등)하여 효과는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를 응용한(자동振行,無脈(AT.N)시스템)과 (초능력,잠재능력개발장치)도 가능합니다. AT.N 시스템 수행자도 직지만 수행히더라도 깨치는 자가 적고 깨치더라도 상근기자 외에는 평생이 걸리거나 기나 긴 여정후에 힘들게 깨치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므로 수행을 손쉬게만들어 대주화시키고 많은 시람이 빠른 시간에 깨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상 그 누구도 그 이면 나라도 구상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 경이적인(자동振行,無脈(AT.N)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수행법체칩으로 터득한 정신세계의 노하우를 현대첨단과학,초과학기술에 접목하여 개발되는 작품입니다. AT.N 시스템의 지체장도직업은 이미 끝마철으로 국비리에 개발완성한 후 대형시스템은 2001년경 지계를 향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초현대적인 新수행도량(HST)건설시 설치작동,중.소형은 상품화 및 대중보급 예정입니다.
| 3.대 외 적 추진 사항 | 세계활약을 위한 전초기지구축,정신수행세계의 정보화 작업(서적,영상분야등), 능력 및 초능력활용-사회봉사구제활동,세계 주역인재의 동시수행참여 PLANE..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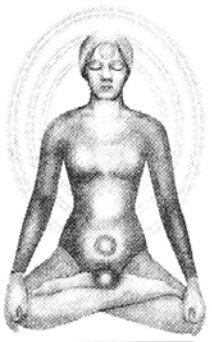
(초기심사나 기입만을 제재하는 대용의 문의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원제의 규모로 인한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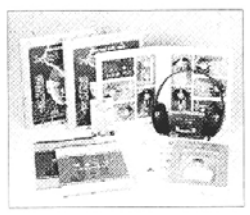
■원시적인 사고방식에서 깨어나 시야를 우주적으로 확대하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미래에 도전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프로젝트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수행자모임인 21C초고과학수행원의 출발은 작으나 독보적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투철한 시명감을 지닌 인재들의 결집된 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으로 21세기를 열어 갑시다. 한발 빠르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 ⊙ 超. 파동공진音 ⊙

〔수행,공부,학습,기도,능력개발,체질개선에 효과〕





초.파동공진음테잎이란?

우주는 파동(진동)의 세계입니다 수행중 듣게 되는 내면의 소리와 옴소리를 가청화시킨 소리는 수행이나 집중,학습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완벽하고 뛰어난 효과를 위한 초파동공진시스템(특수공진스피커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출시한 이 테잎으로도 많은 시람들이 수행은 물론 집중력,학습,기도등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6.7반음으로 수행한 결과 집념이 쉽게 제거되어 수행이 잘되며 인당 또는 백회가 뜨거워지거나 진동이나 옴떨거리는 희상등 기이 작용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특정파동음에 의한 심신의 공명진동원리가 나타난 효과입니다
•그러한 초.파동공진음테잎의 효과에 신기해하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만 대형 파동공진음장치와 파동광선장치에 비교하면 작은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장차 개발되어 나올 최첨단 AT.N 시스템의 큰 효과나 위력에 비교한다면 천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겠습니다. (완성되면 역사의 대혁명이자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옹장하고도 기적같은 위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행자의 수행활동지원과 연구활동 더 큰 수행공간확보와 다규모新 수행도량 건설등 본원의 원대한 비밀프로젝트 GV-3을 특별후원(지원,보시,또는 투자)할 국가기관,단체,개인을 찾습니다.
•(정부는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브레인텍21)이라는 뇌연구계획에 과기처와 복지부에 총9200억원을 투입,지원하고 있는데 그 10분의 1만 본원에 지원하기를 정부에 제안합니다. 세계선두가 되려면 다른 나라도 이미하고 있는 뇌파학이나 로보트를 뒤늦게 연구할것이 아니라 또다른 초월적인 방법에 한발 앞서 먼저 투자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보다 빠른 기간안에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원에 일반보시를 하시는 분께는 본원의 1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초.파동공진음 테잎을 비롯한 5가지 품목을 드리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금 액 : 198,000원 (예금주 : 이심일세기)
평화은행 : 326-21-0015-641 기업은행 : 388-008070-01-014
국민은행 : 287-01-0012-671)

21세기 超高(科學) 修行員 ☎ 032)546-2110, 546-2111

大韓佛教曹溪宗

# 무 각 사

주 지 광 민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TEL : 062)383-0108, 375-6056

도심속의 솔밭 전통찻집

# 연 다 원

상무지구(무각사내)

■ TEL : 062)375-6056

무각사 불일서점 전화 : 062)372-0108

#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명조격 동네
● 청정에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부처님 품처럼 평안한 세상위해"

화엄경 80권 금자사경
화엄도량 조각장엄

## 원응스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지리산 자락. 가파른 산길을 허위허위 오르다 보면 키가 5m도 훨씬 넘는 우람한 사천왕상들이 일렬로 나타난다. 여느 사찰처럼 천왕문에 나란히 두분씩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큰 바위면에 일렬로 새겨져 있다. 사천왕들의 부릅뜬 눈과 험찬 기상에 속세에서 물려온 분별심과 잡된 생각들이 다 달아나는 것만 같다. 합장삼배하고 고개를 드니 '대방광문(大方廣門)'이라 쓰여진 돌로 된 큼직한 편액이 반갑게 맞는다. 다시 한번 합장하며 플무지개문을 넘어선다.

지리산 벽송사 서암(西庵). 온통 마애불들이 도량을 장엄하고 있다. 자연석으로 쌓은 돌탑, 유난히 큰 바위가 많은 이곳에는 바위마다 불 보살상과 신중, 나반존자, 선재동자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곳 지리산은 6·25때 무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죽은 곳입니다. 그 원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기원하며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고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더욱 심해져가는 동서 지역감정이 민심을 피폐케 하고 있어요. 모든 이기심과 분열을 없애고 부처님의 품안처럼 평안하고 자비심으로 살자는 마음에서 발원을 했지요."

1960년 초 이곳에 왔을 때부터 유난히 많았던 거대한 바위들을 예사로 보지 않았던 원응스님(서암 주지)은 어느날 골속에서 참선하는 중 비몽사몽간에 뒷쪽으로 바위면에 나타난 불 보살상들을 보게 된다.

옳다,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자. 조각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88년부터. 스님은 암벽마다 일일이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그 권속들을 먹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석수 홍덕희씨로 하여금 조각하게 했다. 홍씨도 발기도하며 조각에 임해 조각 하나를 마치기 전에는 결코 절 밖에 외출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서암의 중앙에 위치한 석굴은 들어서기만 해도 환희심이 가득할 정도로 석굴 전체가 조각으로 장엄된 아미타세계. 아미타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지장보살, 8대 보살, 10대 제자, 나한, 사천왕 등과 용, 연꽃 가릉빈가 등이 석굴벽과 천장 전체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다.

산기슭을 한참 올라가면 바위면에 각각 비로자나불을 비롯 문수·보현보살상과 선재동자상을 봉안한 노한마애불과 또 다른 쪽으로 나반존자를 새긴 바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화엄도량인 서암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보는 국내에서 유일한 80권의 화엄경 금자사경. 원응스님이 참선하는 사이사이 감지(紺紙)에 금분으로 화엄경 60만자를 옮겨 쓴 것. 85년에 시작해 12년만인 지난해 완성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금니, 은니 사경은 여러 점이지만 아쉬운 것은 일부분만이 남아 있다는 것. 따라서 원응스님의 금자사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엄경 전체를 사경한 금자사경이 됐다. 처음 5년동안은 먹으로 화엄경을 한자씩 한자에 사경했고 이것을 마친 후 금분을 아교에 섞어 한자 한자씩 특별주문 제작한 감지에 옮겼다. "오자(誤字)로 간주되는 자를 일일이 따로 모아 팔만대장경과 신수대장경, 각 강원에서 쓰이는 경 등 여러 본을 참고로 비교 분석 수정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2년동안 글이 닳아서 없어진 붓만 50개가 넘는다. 하루 3백자씩 계속 쓰다보니 실명까지 우려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고 팔이 마비되어 중도에서 포기할 위기도 여러차례 맞았으나 참선과 금자사경불사에 뜻을 모아준 여러 신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완성했다.

원응스님은 도량의 조각불사가 회향되는 내년에 화엄경 금자사경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를 가졌으면 한다. 금자사경을 친견하고 화엄도량에 온 불자들이 앞장서 "길수록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연꽃이 되고 선재동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글=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88년부터 조각불사 시작
## 동서화합·남북통일 발원
## 12년동안 화엄경 금자사경
## 끝 닳아 못쓰게된 붓 50개



◇〈대방광불화엄경〉 80권을 일일이 금분으로 사경하는데 꼬박 12년이 걸렸다. 원응스님은 이 금자사경을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전시를 갖고자 원한다.

### 사경의 공덕 — 한자 한자 정성…무념무상 경지

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글자로 옮기며 그 뜻을 눈과 입 그리고 가슴으로 새기는 수행방법이다. 마음이 평정하지 않으면 글자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경은 산란한 마음을 없애 마음을 단정히 하고 통일된 정신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곧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수행방편이다.

〈법화경〉 제4품 '법사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해설하고 베껴쓰거나 이 경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하며… 이 사람들은 이미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또 여러 부처님께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해 사경공덕이 심대하여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은 공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경은 자신의 수행과 실천행일 뿐 아니라 불법을 널리 알리고 경전을 후세에 전하는 전법의 공덕이 있으므로 자리이타의 공덕이 함께 하는 신앙행위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사경은 통일신라 경덕왕때의 '비지륵서대방광불화엄경' 권 43(국보 제196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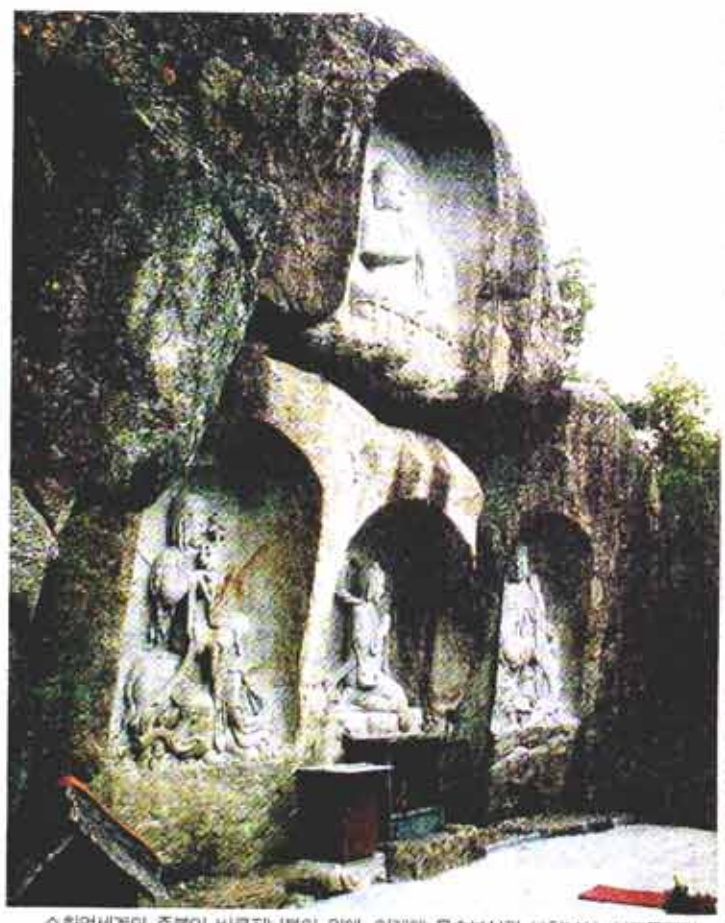
중국 명나라 무하스님(1497~1623)은 28년동안 혀와 손가락의 피를 내어 금가루를 섞어 화엄경 81권을 사경했다. 이 혈사경(血寫經)은 현재 구화산 지장사에 소장되어 있다.



◇서암에는 유난히 큰 바위가 많다. 원응스님은 이 바위들에 불 보살상과 그 권속들을 조각으로 새겼다. 서암 들어가는 입구, 사천왕들이 바위에 일렬로 새겨져 있다.



◇ '대방광문(大方廣門)' 편액. 원응스님이 직접 써 돌에 새긴 이 편액은 여기가 화엄도량임을 나타내준다.



◇화엄세계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위에, 아래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선재동자가 조각되어 있다.

## "세상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다"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⑰ 성인의 경배

부처님과 예수님이 탄생했을때 각각 성인이 찾아와 경배를 드렸다.

부처님이 태어났을때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하던 아시타선인이 천안으로 부처님 탄생을 보고 제자 나라카와 함께 왕궁으로 와 경배드리며 그 출중한 모습을 살펴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른 두가지 특징을 갖추었기에 왕위에 오르면 전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행한다면 부처님이 되어 이 세상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의 한 시골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 몰약을 선물하며 경배했다.

왼쪽 그림은 풍도시 영산전의 괄상도 '비람강생상' 중 일부로 아시타선인이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고 예언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멤링크작 '동방박사의 경배'이다. 별을 보고 찾아온 세 동방박사가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풍도사 영산전 팔상탱 중 '비람강생상(부분)', 1775년 작.



◇멤링크作 '동방박사의 경배(부분)', 1470년경, 스페인 프라도미술관.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끝〉

**길상품(吉祥品) ②**

不慢不自大 불만불자대
知足念反復 지족념반복
以時誦習經 이시송습경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잘난체 않으며
족함을 알아 되풀이 생각하고
때때로 경전을 외어 익히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所聞常以忍 소문상이인
樂欲見沙門 락욕견사문
每講輒聽受 매강첩청수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듣는 일은 항상 인욕으로써 하고
사물 보기를 즐겁게 바라며
설법 있을 때마다 잘들어 받드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持齋修梵行 지재수범행
常欲見賢聖 상욕견현성
依附明智者 의부명지자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재계를 지켜 청정행을 닦고
항상 성현 보기를 원하며
듣는 일은 항상 인욕으로써 하고
도의 쓰임을 부지런히 닦아라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以信有道德 이신유도덕
正意向無疑 정의향무의
欲脫三惡道 욕탈삼악도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믿음으로써 도덕을 지니고
바른 뜻으로 의심없이 나아가
삼악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等心行布施 등심행보시
奉諸得道者 봉제득도자
亦敬諸天人 역경제천인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고
도를 얻은 이들을 받들며
하늘과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常欲離貪欲 상욕이탐욕
愚癡瞋恚意 우치진에의
能習諛道見 능습성도견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항상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내는 마음을 여의려하고
능히 진실한 견해 익히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若以棄非務 약이기비무
能勤修道用 능근수도용
常事於可事 상사어가사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만약 힘쓰지 않을 일 버림으로써
능히 도의 쓰임을 부지런히 닦고
항상 섬겨야 할일 늘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一切爲天下 일체위천하
建立大慈意 건립대자의
修仁安衆生 수인안중생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모든 것에서 천하를 위하되
큰 자비의 뜻을 굳게 세워
인덕을 닦아 중생을 편케 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信敬於佛 당신경어불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聞法句義 당문법구의
欲求吉祥福 욕구길상복
當供養衆僧 당공양중승
戒具淸淨者 계구청정자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길상의 복덕을 구하고자 하거든
부디 부처를 믿고 공경하라
길상의 복 구하고자 하거든
부디 법구의 이치를 들어라
길상의 복덕 구하고자 하거든
부디 대중스님들을 공양하라
그리하여 계율 갖춰 청정한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智者居世間 지자거세간
當習吉祥行 당습길상행
自致成慧見 자치성혜견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지혜로운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길상의 행을 익히어
스스로 지혜로운 소견 이루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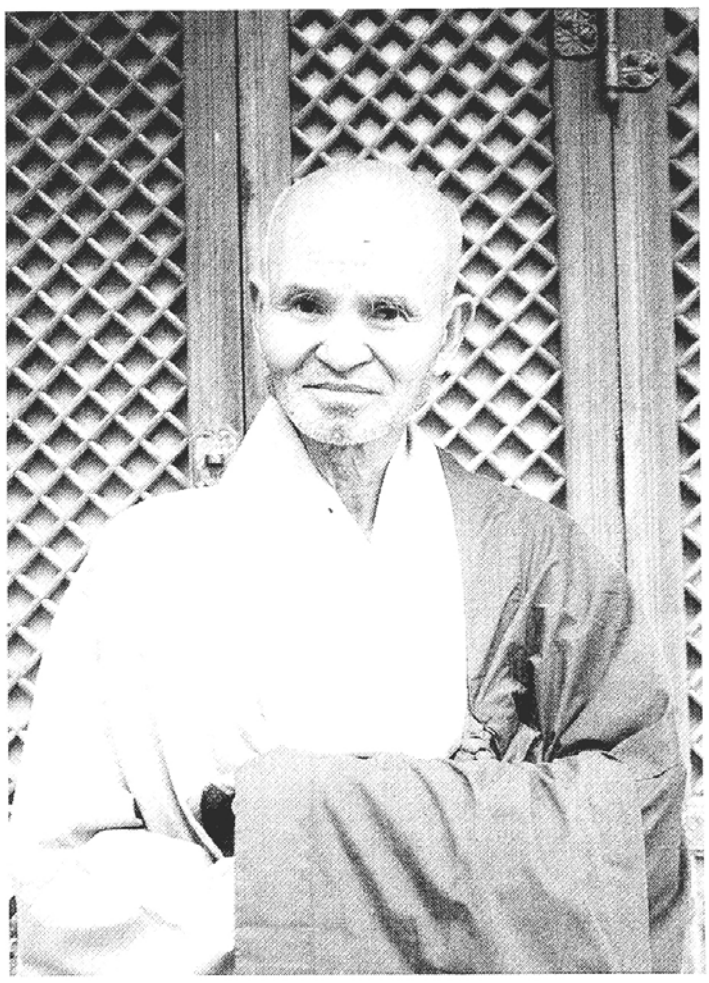
梵志聞佛教 범지문불교
心中大歡喜 심중대환희
卽前禮佛足 즉전례불족
歸命佛法衆 귀명불법중
이에 범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곧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불법승에 귀의하였다.

龍眼

## 큰스님 수행한담

# "相을 버리는 것이

## 도천스님 〈화엄사 조실〉



약력
- 1911년 평북 철산 生
- 23년 묵언스님을 은사로 금강산 마하연에서 득도
- 신계사 유점사 법왕사 등서 수행
- 해인사 범어사 등서 수행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現 충남 금산 태고사에 주석

난 평생 내 몸 안 돌보고 살았어. 여기 대둔산 태고사에 와서 50년 가까이 불사만 하고 살았거든. 밥이 오면 밥인가 보다, 또 낮이 되면 낮인가 보다 하며 그저 일만 하고 산거지. 올해로 88세 미수라. 낮살 먹어 노스님이라고 찾아 오는 불자들이 궁금한가 봐. 왜 내가 일만 하는지. 뭐라더라, 나보고 '일하는 태고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구.

사실 50년 불사라고 생각해 봐. 그리고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사라. 원래 이렇게 크게 계속된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하나 하나 하다보니 또 하나를 하게 되고 다시 또 할 것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온게 반세기를 끌고 온거지. 그리고 불사를 하면서 설계도니 그런 것 없이 해 왔어.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설계도고 공사 진행표니까. 내 머리 속에서 불사가 훤해. 가만히 있어도 쉴 새 없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나무를 또 기와를 얼만큼 사 두어야겠구나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쏟아내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절을 짓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게야. 그리고 시줏돈이 모아지면 그 길로 자재를 구입해 두고 결국 그것이 이 어려운 경제난리 속에서도 그나마 어렵지 않게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었던 게지.

내가 이렇게 불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화두삼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인이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라구. 즉, 도인의 인연불사를 하는 것이야. 이 가파른 산자락에 방사를 짓고 불사를 일으키는 것은 후대 사람이 편히 공부하고 수행하도록 터를 닦아두는 것이거든. 도인이 나오려면 여건이 성숙되는 인연이 기본인게지.

생각해 보라구. 땅을 물려주면 땅은 뺏기기도 하고 팔아 없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공부하는 도량을 세워놓으면 절대 없어지진 않거든. 설사 스님이건, 재가자건, 수행하는 이가 적고 또 없어진다 하더라도 도량만큼은 길이 보전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절 주위로 뺑 둘러 잣나무를 심었어. 6.25전쟁직후 마땅히 부처님께 마지올릴 것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구. 그래 생각한 것이 잣나무를 심어 쌀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1년에 평균 1백주씩 30년 넘게 심었으니 전체로는 5천주 이상 될 것이야. 절 뒤로 저 산자락을 뺑 둘러쌌으니…시주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잣나무를 사서 재빠르게 심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산짐승들에게 먹이로 시주하고 있지. 열매가 익기도 전에 어느새 찾아와 다 따먹어 버리거든. 단 한 번도 수확을 해보지 못했어. 어쨌든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었던 것도 좋은 도량에 먹을 것이 끊임없이 대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지.

나는 반드시 우리 세기에 도인이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어. 내가 출가해 참선수행자가 되고자 했지만 인연이 닿지않아 평생 일하는 수행을 해 왔어. 지금 생각해 보면, 도인을 배출하는 도량을 일으키는 것으로 내 금생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야. 내 수행길에 대해 단 한번도, 단 한 순간도 후회하거나 회한이 들거나 한 적이 없지. 나는 이 도량을 통해 도인이 나올 것이라고 믿거든.

13살에 지중한 전생의 인연으로 출가를 했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살면서도 그저 수도하려는 생각 뿐이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 깊이에 도인(道人) 만나기를 발원했던 것 같아. 어쨌든 통진출가한 것인데 그때는 집을 나서 백두산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지. 그런데 금강산 마하연에 발길이 닿는 순간

### "요즘 사람들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호강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차 있으니 탐진치에 얽매일 수 밖에 없어요"

그 풍광에 반해 눌러 앉았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고 전에 내가 살았던 곳같아, 한마디로 바로 이곳이 내 수행터구나 싶더라구. 게다가 거기에 도력높은 수월스님이 계시다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지만 수월스님은 영영 뵙지 못하고 스님의 상좌이신 묵언스님을 은사로 그곳에서 출가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아버지 스님인 수월스님도 묵묵히 백장스님의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청규에 엄격하셨고 아버지이신 은사 묵언스님도 무섭게 일하셨어.

수월스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남의 집 머슴을 사시는데, 몇날 며칠을 물레방아를 꽝었나 봐, 밤에 잠도 못주무시고, 아니 안 주무셨겠지, 물레방아를 찧으셨던거야. 그러니 얼마나 쫄리셨겠어? 어느날 집 주인이 보았다는데 큰스님께서 한발은 들어서 방아에 올려놓고 조시는데, 방아공이가 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허공에 멈춰 있었다는 게야.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냐구. 그후로는 도인을 잘 몰라봤다고 늘상 얘기했다더군.

마찬가지로 나도 출가한 이후 그저 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 정도로 열심히 일만 했어. 그러니까 어찌보면 수월스님의 한 가풍이다 싶지. 금오 큰스님께 들은 얘긴데 북간도로 수월스님을 친견하러 가셨는데 신도가 많이 와서 방이 꽉 찼는데 수월스님은 그냥 나가 일만하시더래.

내 은사스님은 또 어느 정도이신가 하면, 평생 말이 없으신 분이셨지. 묵묵히 백장청규 정신으로 살아오신 셈이지. 오죽하면 법명이 묵언스님이셨겠냐구. 은사스님은 내게 그저 말없이 일하면서 수행하라고 몸소 실천해 보이시며 가르치셨지. 그 가르침대로 산 것이 지금까지야.

금강산에서 살때는 두루 사찰을 돌아다닌 적도 있었어. 신계사 유점사에서 몇철씩 나기도 했고, 묘향산 법왕사에서도 지냈지.

마하연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내려왔어. 당시 하동산스님을 모시고 살았지. 그러다가 몇 달후 동산스님은 범어사로 내려가시고 나는 다시 마하연으로 갔어. 이미 공산화된 절은 사중 땅이고 뭐고 모두 당에서 압수해 빼앗아갔


봉성기획 Bong Sung Planning

siddhàrtha

싯달타

붓다의 時空을 찾아나선 봉성기획의 새로운 불교문화 탐구

석가모니의 탄생 연도마저도 100년 이상의 오차가 엄연한 현실에, 설화 중심의 붓다의 일생이 아닌 인간 붓다의 時空을 현대에서 재조명하는 현대인을 위한 만화 '싯달타'가 만들어 지고 있다.
삼천쪽에 달하는 대하물로 좇아가는 인간 석가의 큰 족적들.
이제 극만화 세계에서 검증된 박봉성의 대가다운 도도함과 한컷의 그림과 한줄의 글에도 삼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만들어진 '싯달타'가 곧 여러분들 곁에 다가선다.

봉성기획
Bong Sung Planning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73-4
TEL : 051)204-3095, FAX : 051)208-9484



한자찾기의 신혁명!!

8282 쉽게 빨리 찾는 漢字辭典

8282 한자사전의 특색
- 표제자 7,000字
- 교육용 기초한자의 상세한 풀이, 필순 수록
- 2,000여字의 풍부한 자원(字源) 해설
- 표제자의 중국, 일본, 영어 음과 뜻 풀이
- 중국간자체 일람표
- 고사성어(故事成語)·숙어(熟語) 700선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전이 필요합니다

- 부수·음을 몰라도 찾을 수 있다.
- 총획대신 가로, 세로, 교차점으로 찾는다.
- 韓·中·日 발명특허출원, 편교검자법

가로편획(一) : 3개
세로편획(丨) : 3개
교차점(·) : 1개

'明'자의 편교번호는 '331'이 됩니다.
편교검자법은 간단합니다
편교검자법은 쉽고 빠릅니다




정가 25,000원

<인터넷 http //www.chollian.net/~hanja 82>

語文閣

구입문의 : 하이마켓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51번지 일광빌딩 503호 전화 : (051)468-8581 팩스 : (051)464-0712

큰스님 수행한담

# 불교의 시작이며 끝”



◇도천스님은 미수의 나이가 되기까지 40여년을 해뜨기 전에 밖에 나가 해지기 전까지 일을 해왔다. 일하는 수행은 수월→묵언→도천스님으로 이어진 청규이며 가풍이다.

## 이 가파른 산자락에 방사를 짓고 50년 불사를 하고 있는 것은 후대사람이 편히 공부하고 수행하도록 터를 닦아두기 위해

## 상을 갖고 있으면 나를 바로 볼 수 없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하심

더라구. 그렇게 몇 달을 버티며 수행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군.

지금만 해도 그래. 뭐 우리가 금강산 유람을 갈수 있다며 떠들고 법석을 부리는 모양인데 이미 내용적으로 폐사가 된 곳에, 그것도 산다면 몰라도 눈으로 잠깐 봐서 뭘하겠냐 싶단 말이지. 살 수 없는 곳이기에 큰 의미가 없는 거야.

해방후 도저히 마하연서 살 수 없어 그 길로 남쪽으로 내려와 몇해동안 해인사 범어사 칠불암 강원도 등지로 선방에 다니기도 했지. 그러나 인연이 따로 있어. 바로 여기 태고사에 와 보고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 여기가 행여 금강산 자락은 아닌가 하고 말이야. 그 우람하고 오밀조밀 이룬 산세는 마하연과 너무 흡사했어. 그래서 정착하게 됐지. 사실 오갈 데도 없었고. 그때는 아직 정화전이라 대처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는데 머슴처럼 일만 하고 살기 시작했어. 일제때 우리 불교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왜색불교를 강요할 때 스님들을 무리하게 취처하게 했을 때니까. 당시 비구들은 대처승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찰에 방부허락을 받을 수 없어 탁발하며 토굴로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나마 나는 여기서 방부들이고 살던 중인데 6·25전쟁이 터진거야. 그때 그 난리통에 사실 죽을 목숨인데…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산 것이지.

1·4후퇴때 인민군이 들어와서 당시 그렇게 우람했던 태고사를 죄 태웠어. 본당과 산신각만 덩그라니 남았지. 그후 태고사는 정화됐고 첫 주지로 내가 들어와 지금까지 산거야. 난리통에 죽을 뻔했던 내가 다시 살게된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대로 도량을 정비하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부처님 같이는 못하더라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해. 삿된 것이 많은 세상일수록 정법을 지키고 검약하려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거든. 어디 그 뿐인가. 마음자리를 살펴야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눈이나 귀가 보고 듣는 것은 아니란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주인공이 있지만 그걸 몰라. 캄캄해. 귀로 들어도 모르니 귀도둑, 음식을 먹으면서도 모르니 혀도둑, 냄새를 맡고도 모르니 코도둑 아니냐구. 그래서 도인이 안나오고 도둑만 많아.

우리가 한마음으로 철저하게 신심있고 원력을 세우면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지. 무슨 고통이 따르더라고 바른 생각, 바른 일로 밀고 가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말이지. 고집으로 가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히 나빠지거든. 그리고 기도는 일념으로 해야 해. 한마음으로 해야 성취될 수 있다구.

특히, 지혜있는 사람은 쌀 물 나무로 밥을 짓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로 평생을 밥을 지으려 하지만 절대로 밥이 되지 않잖아. 지혜로 바른 일 하게되면 나라도 살고 중생도 다 좋게 된다 이 말이지.

중생사, 나라일 모든 것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게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아우성들이고 실제 고통속에서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지. 검소하게 살지 못하고 남을 돕지 않아서 오는 과보인 셈이지. 나라든 개인이든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법이야.

요즘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서든 편하려고 기를 쓰거든. 호강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차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결국에는 수행과는 점점 먼 생활을 하게 하는 게야. 열심히 일해 봐. 탐진치 3독심이 눈녹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구. 많은 잡생각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저 일에 집중해서 온 정성을 모두어 일해보라는 말이지.

그러다보면 상(相)너는 마음이 사라져, 부지불식간에. 상을 허리는 것이 불교의 처음이요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내가 있다'는 헛된 집착 그것이 상인데 그 상으로 3독심이 생기고 그 3독심으로 무수한 번뇌가 싹트는 거야. 그러니까 하심(下心)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돼, 돌자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

상을 가지면 나를 바로 보지 못해. 아심을 버리지 못하면 집착이 있게 되고 다른 큰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지. 아상을 뗀 사람은 더 큰 세계를 볼수 있지만, 아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며 참다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거든.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고 남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해.

상을 가진 사람은 자비스러울 수가 없고 남을 위해 행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중생활에 원만할 수가 없거든. 나를 주장하는 까닭에 모가 나게 마련이지.

그런데 상을 떼는 일이란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세.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두고 화두로 삼으며 정진하고 수행해야 하거든.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을 봐야 해.

그리고 평생을 공부하고 일체중생을 위해 사는 보살행을 펴라구. 사람몸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젠 다들 알잖아. 세상이 물질이 좋아진만큼 공부여건도 나아진 편이니, 부지런히 공부들 하란 말이지. 말(言)을 앞세우지 말고 행(行)을 우선으로 여겨야 해. 말은 아무리 지껄여도 쓸데 없는 거야. 할 말만 해야지,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나의 스승이신 묵언스님은 일생토록 말씀이 없으셨지, 금강산 마하연의 암자인 만해암에서 벽장만 쳐다보고 앉아서 묵언하셨거든. 그렇게 금강산 도인으로 알려진 우리 스님을 15년간 시봉했지.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땀흘려 몇푼 모이면 잣나무하나 심고 또 하나 정성들여 심으면서 불사를 하고 있지. 도량짓는 불사도 마찬가지야. 축대 하나 쌓고 나서 다시 축대를 또 올리고 해서 지금까지 온게야. 불사는 지극정성으로 해야 해. 그런데 요즘 보면 절짓는 불사나 부처님 조성하는 불사나 너무나 급하고 성의없이 하는 거나 아닌지 우려가 많이 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데 그게 몇년도 채 안 걸려. 외양만 크고 화려하다고 다가 아닌데,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 부처님 일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원을 세워 지극정성으로 해야 하는 거야.

도량밖으로 나가면 비싼 택시 안타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 한푼이라도 절약하면 불사에 보탤수 있잖아. 평생 내 몸 안돌보고 살았어도 아프지 않았어. 병원이란 멜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것 힘들다거나 회피하려 한 적이 없지. 오히려 잠시라도 안일과 편안함이 오려 하면 용납치 않았거든, 그게 바로 게으름의 시작이니까. 힘이 드니까 수행이 되는 거고, 수행이 되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 나의 수행일기



조 돈 규 〈서울 경찰청 정보2실장〉

## 열심히 불서 읽었지만 허전한 마음 불교대학원 입학 체계적 불교공부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때 태어난 나는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어머님이 내가 여섯살때 돌아가시자 할머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죄인양 열심히 어린 손자를 데리고 절에 가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때 두손에 합장주를 꼭 쥐고, 일심으로 부처님전에 절을 올리던 할머님의 모습은 아직도 내게 큰 힘으로 남아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 내가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마치 촉촉이 내리는 봄비가 대지를 적시어 만물을 약동하게 하듯이 할머님의 지극한 불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할 때면 불교포교는 반드시 유아포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아버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내가 집안의 기둥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왔다. 등생들도 모두 다 나의 말을 잘 따라 주었고, 특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한결같이 불교를 믿는 짝을 찾았다.



불심은 깊었지만 나의 불교공부는 처음부터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바쁜 업무와 생활속에서 불교에 대해 알고 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평소 사무실에서 부지런히 불교방송을 듣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불교가 워낙 방대한 것이어서 그런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이 불교서적을 통한 불교공부였다. 법륜스님의 〈젊은 불자를 위한 수행론〉,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현재훈씨의 소설 〈대석가〉 등 많은 책을 닥치는대로 읽었다. 〈젊은 불자를 위한 수행론〉에서 무주상 보시에 관해 읽고서는 가슴에 와 닿는 환희심을 느꼈는데, 그날 밤 꿈에 황톳길이 환히 뚫리는 것을 보았다. 그로 인해 믿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따라 다녔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여러곳에 알아보다가 우연히 신문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신입생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그래! 불교대학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자'는 다짐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한지 수십년 만에 강의실에 앉아서 평소 갈망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 환희로움이란 말로 다 할수 없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명강의는 나의 불교에 대한 갈증을 많이 풀어 주었다. 성별도 직업도 나이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특히 대다수의 학생이 보살님들이었는데, 강의를 듣는 것도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조선시대에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한 불교 탄압에도 꿋꿋이 전통을 이어온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인 이 보살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나의 불교공부에 더욱 자극을 주었다.

그렇게 공부가 익어갈 무렵 학생 보살님들의 신심은 굳고 누구보다도 모든 일에 열심이었지만 경전공부시간에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불교대학원 입학 면접시에 당시 원장이신 목정배 교수님의 물음에 "어려운 경전을 쉽고 체계있게 하여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기에 나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금강경〉을 한 자 한 자 해설하고 풀이해 한문을 전혀 모르는 불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학습서를 만들겠다고 말이다. 〈계속〉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國際佛敎徒聯合會
International Buddhist Association
명예총재 김 정 각
총 재 박 도 철
상임공동 대표 이 혜 총
수 석 부 회장 천 혜 지
사 무 총 장 김 찬 묵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168-291번지 한호빌딩 203호
TEL : 051-805-9203~4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행하자
■ TEL : 051-866-7277

대한불교 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정 련
내원정사 유치원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내원
재단법인 내원 청소년단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2번지
TEL : 051-242-0691
FAX : 051-248-0691

묘 봉 산
대한불교 조계종 혜원정사
조 실 고 산
주 지 효 명
고산 장학회 선지식회
자 비 회 지 장 회
관음회 합창단 연꽃부부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 1113-1
TEL : 051-866-7771~3
FAX : 051-866-7777

장 복 철 강
대 표 신 장 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5동 603-9
TEL : 02-634-3439
FAX : 02-631-3439

황토방 수정탕
대 표 박 기 자
■ 경남 양산시 북정동 426-3
TEL : 0523-388-3855



◇석탑의 대표격인 불국사 석가탑.



◇안동 신세동 7층전탑.



◇국내 유일의 목탑 법주사 팔상전.



◇고려 금동대탑.

# 불사리 모셔 부처님 대하듯 예배

월2회 연재

##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6

### 요즘 경전 · 다라니 등도 봉안 한국은 '석탑의 나라'로 알려져 탑돌이 남녀노소 민속 정착



◇탑돌이는 탑을 돌며 부처님 공덕을 되새기는 의식이다. 사진은 해인사 탑돌이 장면.

탑

간절한 원(願)을 담은 채 합장을 하고 석가모니불을 외며 탑 주위를 돈다. 탑돌이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불자들 사이에 보편화된 신앙일뿐 아니라 비불자들도 소원을 비는 민속으로 정착됐다. 불사리와 경전, 불상 등을 봉안하고 우뚝 서 있는 탑은 불신(佛身)과 같이 여겨져 구원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탑이란 '탑파(塔婆)', 즉 범어의 '스투파(stupa)' 또는 팔리어 '투우파(thupa)'의 음역에서 유래된 약칭으로, 사리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불교의 독특한 조형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인도의 장례법에 따라 화장의 예를 갖춤으로써 사리를 얻게 되었고 이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구조물을 쌓은 것이 바로 탑파, 즉 불탑이다. 이때 세운 8기의 탑을 '근본팔탑'이라 한다. 이후 사리를 봉안해 탑을 세우는 일이 일반에 유행함에 따라 수량이 한정된 진신사리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진신사리가 아닌 법신사리(경전)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탑의 원형을 보여주는 스투파로는 기원전 3세기에 이룩된 원분(圓墳)형태를 이루고 있는 인도 산치의 대탑이 유명하다.

한국의 탑은 세계 불교예술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그 기원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삼국 말기의 시기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탑은 그 소재에 따라 목탑, 석탑, 전탑 등으로 나뉘며, 대체로 중국은 벽돌로써, 일본은 목재로써, 우리나라는 석재로 탑을 조성한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라 부르는 것도 현존하는 탑 거의 모두가 화강석을 재료로 한 석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탑의 발생과 그 계보의 변천과정은 목탑, 목탑의 양식을 본받은 전탑, 목탑과 전탑의 두 양식을 갖춘 석탑의 순서로 양식이 정립돼 왔다.

**■목탑(木塔)**

우리나라 초기 탑은 목조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말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목탑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물론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조까지 계속되었다. 목탑은 다른 건축과는 달리 수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도의 건축 기술이 없이는 건립이 불가능하다.

특히 다른 불탑들과는 달리 실내에 공간이 마련돼 예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목탑자리로는 평양 청암리 등 4곳이, 백제 때는 부여 금강사 절터 등 5곳이, 신라 때에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는 황룡사 목탑 등 4곳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목탑으로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전탑(塼塔)**

〈삼국유사〉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전탑을 봉안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탑의 특징은 목탑이나 석탑과 형식은 동일하나 중국 전탑의 영향으로 옥개의 상하에 층단을 마련하고 감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 화강암을 재료로 혼용한 것은 중국의 전탑이 벽돌만으로 축조된 것과는 다른 점이다.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성행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전탑은 매우 희귀해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안동 신세동 7층전탑(국보 16호)과 신륵사 다층전탑(보물 226호), 송림사 5층전탑(보물 189호), 안동 조탑동 5층전탑(보물 57호), 안동 동부동 5층전탑(보물 56호) 등 모두 5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전석탑(模塼石塔)**

전탑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 우리나라에서는 전탑보다 석탑이 더 많이 유행했다. 그러나 탑재(塔材)를 구하거나 조탑과정이 '용이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였다. 형태는 석재를 벽돌처럼 작게 가공해 전탑 모양으로 쌓아올린 유형과 일반적인 석탑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표면을 전탑처럼 가공해 축조한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경주 분황사 석탑(국보 30호)를 비롯해 제천 장락리 7층석탑(보물 459호) 등 9기 정도가 있으며, 두번째 유형으로는 의성 탑리 5층석탑 등 7기가 남아있다.

**■석탑(石塔)**

목탑이나 전탑은 석탑의 완성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석탑은 우리나라 탑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우리나라 석탑의 서장을 장식하는 것은 백제시대에 건립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과 부여 정림사지 석탑(국보 9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형양식의 완성은 신라시대에 이룩됐다. 한국의 석탑이 곧 신라 석탑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신라석탑으로 가장 앞선 작품은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30호)이다. 석재를 벽돌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아 모전석탑으로 불리는 이 석탑은 신라석탑의 조형(祖型)으로 꼽힌다. 불국사 다보탑(국보 21호) 석가탑(국보 22호) 등 우리 민족의 예술적 천재성이 발휘된 빼어난 석탑이 건립된 것도 바로 이 때다.

특히 불국사 석가탑은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으로 상하 비례나 형태의 아름다움에서 우리나라 석탑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불천(佛天)의 신비가 탑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신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국보 112호) 고선사지 3층석탑(국보 38호) 갈항사 3층석탑(국보 99호) 등 수많은 명탑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국보는 27점, 보물은 126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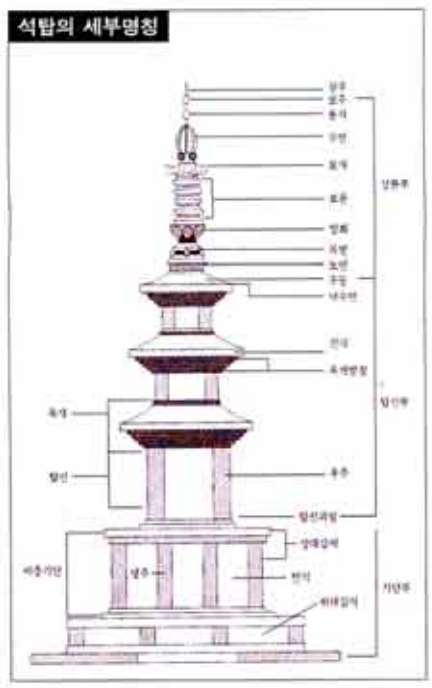
**■금동탑 · 청동탑 · 철탑**

금동이나 청동, 철 등 금속제탑은 옥외에 설치해 예배하기보다 봉안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일반적인 탑이라기보다는 장엄물에 가깝다. 또한 사리를 담은 사리장엄구도 작은 탑의 모양을 한 경우가 많다.

높이 1.55m로 작은 석탑과 같은 크기의 고려시대 작품인 금동대탑(국보 213호)은 이같은 유형의 대표작으로 탑과는 물론 목조건축이나 조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석탑의 세부명칭**



## 부도 스님사리나 유골 안치한 묘탑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을 일컫는다. 부도는 다른 석조물과는 달리 부도에 따르는 탑비가 건립되어 있어 부도의 주인공과 그의 생애 및 행적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라는 용어가 승려의 사리탑을 가리키는 실례는 신라 하대부터 보이고 있다. 627~649년경에 원광법사의 부도를 세웠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도를 건립한 것은 7세기 중반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부도 건립은 법제문도들이 스승을 섬기는 극진한 마음에서 스승이 입적한 뒤 정성을 다해 세우는 것으로, 당나라에서 선종이 들어온 이후 9세기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부도는 각부의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문양으로 불교조각의 극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석조미술의 백미로 꼽힌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부도로는 신라 문성왕 6년(844년)에 건립된 흥법사염거화상탑(국보 104호)이 꼽힌다. 이밖에 주요부도로는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국보 59호)쌍봉사철감선사탑(국보 57호)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국보 102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국보 197호) 흥법사진공대사탑(보물 365호)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 연곡사서부도(보물 154호) 등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부도로 평가받는 쌍봉사 철감선사탑.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教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청화큰스님 서울 초청 법회

아미타불 염불만일 정진으로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 48대원으로 정토실현을 위하여,
금번 염불선으로 빛을 발하시는 청화큰스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불자님들의 수회동참바랍니다.



◑ 일 시: 1998년 11월 7일(토) 오후3시
◑ 장 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 교통편: 전철3호선 안국역하차
◑ 문 의: (02)732-1215~7

정토법회안내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터리)

| | |
|---|---|
| 10월11 · 18일 | 주명철교수(동국대) |
| 10월25일 | 전남 대원사 아외염불 수련법회 |
| 11월1일 | 강동균 교수(부산 동아대) |
| 11월7일 | 청화스님 초청법회 |
| 11월8일 | 효란스님 초청법회 |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의
의미와 공덕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손쉽고
공덕이 큰 수행법!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염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편집부 엮음 /128쪽/값 3,500원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다양한 염불이 일어난 근원과 그 변화·발전의 과정, 그 각각의 공덕 등 염불의 사상·역사·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
이태원 지/신국판 양장/값 25,000원

중국정토 교리사
중국에서의 정토 신앙자들과 논사들의 삶과 사상을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그 핵심 사상을 간추려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태원 역/신국판 양장/값 20,000원

정토삼부경 개설
정토삼부경의 각 경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총론, 경전의 핵심을 간추린 요지해석, 원문 및 번역·강설 등으로 구성된 정토신앙의 지침서.
이태원 역/신국판 양장/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남이 떠준 샘물 목한번 축이면 그뿐

## 놓고 맡기는 공부 내가 죽어 '나' 만나는 길
## '나' 라는 애착 없으면 번뇌망상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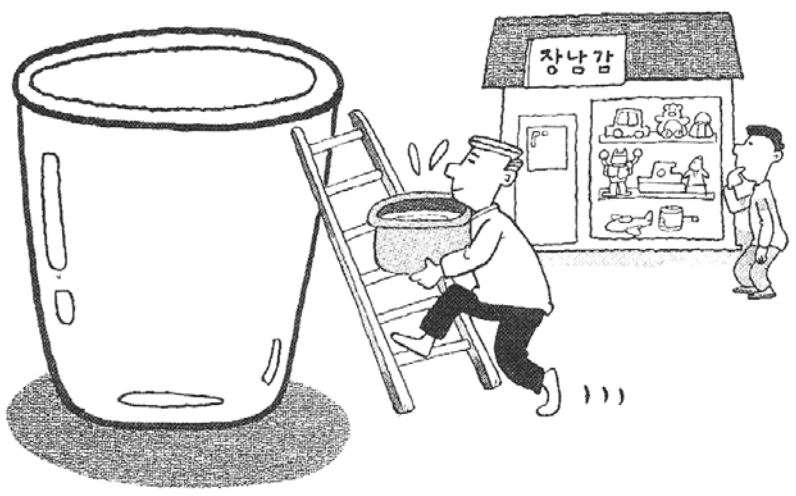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빚과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문 93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시어머님과 두 남매의 엄마로서 너무 힘이 듭니다. 여지껏 부모 형제 뒷바라지하다 막상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어느 누구 말 한 마디 감싸 주는 이 없고 형제들은 그저 못마땅해 하고….

별 재산 없이 어쩔 수가 없어 남의 논 이천 평을 얻어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곡식으로 세를 주고 약값 인건비 빼며는 별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애들이 자라니까.

시동생이 사고 저질러 그 당시 이천만 원 갚아줬는데 올해는 700만 원 해달라, 시어머님은 천만 원짜리 방 한 칸 얻어 주라는 등 요구를 하고 친정 형제는 축협, 농협에 몇 천만원씩 대출을 해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해 주었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 그만 원금도 이자도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모두가 다 나의 탓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만 이제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항상 관합니다. 나의 뿌리 주인공에 항상 관합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관합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도 답답하고 해서 '주인공 내가 돈을 벌어야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하지 않겠나. 어서 취직이 되어 돈을 벌게 어떻게 한 번 해 봐.' 이렇게 관하고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쯤 되었을까 집 가까운 곳에 취직이 되었는데 시간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어요. 목요일날은 5시에 퇴근하면 6시에 선원에 공부하러 갑니다. 대구 지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인공 감사합니다. 몇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오 년 전에 여기 가까운 곳에 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정말로 진실하게 믿어 왔습니다. 항상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여기 도사님은 물 떠놓고 부적을 붙여 놓고 부적에는 별이 그려져 있고 천상도 술이라는 글자를 손수 써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두 손 모아 빌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선원에 공부가 너무 많아 가끔가다 한번씩 하지요.

스님, 여기 도사님 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 빌려 준 돈은 논을 팔아 갚으려 합니다. 재산이라야 논 145평 밭 300평 집 143평입니다. 돈에 신경쓰지 않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한번씩 이자랑 나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답 딱하고 어려운 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누가 대신 해 줄수 없다는 걸 아실테지요. 남이 떠다주는 샘물은 목 한번 축이면 그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샘물이 솟게 하세요. 열심히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신다니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돌에서 피가 배어나온다는 말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과 말과 뜻이**
**진실하지 못하고**
**밖으로 끄달려서**
**깨우치지 못하죠**

하세요. 거듭 말하지만 제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는 도사라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타력이라니요. 한눈 팔지 마시고 배운대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잠잘 때 이를 가는 습관 있어요

문 평소 현대불교지면을 통하여 스님의 자비로우신 지혜 법문을 접할 때마다 깊은 감명과 감사를 느낍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고뇌스러워 털어 놓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26세 되는 한 자식이 잠자는 도중에 수년간 계속 이를 갈아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제 나름대로 뺨을 치기도, 마음 충고도 합니다만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지를 가르침 청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답 당사자에게 놓고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이가 스물여섯이나 되었다니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렵니까?

### 요즘 관 공부가 잘되지 않아요

문 스님, 저는 1년 전부터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관하고 잘 해결이 된다 생각이 들고 같이 하는 도반들도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수련회를 갔다온 뒤로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마음의 어려움이 새로이 생겨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더 사람만나기조차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하는 걸 잘못해온 건 아닌지 마음으로 관하지 않고 머리로 자꾸 생각한 건 아닌지 큰스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한 경계에 부딪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공부 길이 더욱 멀어지는 것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다 내 공부의 재료이지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 중간에 매듭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해도 되겠지요. 아무튼 그럴수록 공부에 더 정진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놓고 관하다가도 좀 색다른 경계에 부딪치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내 공부를 성숙시키는 기회이니 그런 줄 아시고 열심히 놓고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초발심 변정각' 의 뜻

문 초발심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삼보에 귀의하기로 마음 먹은 지 오래입니다만 아직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초발심의 경지를 어찌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지요?

답 3천년 전이나 3천년 후나, 오늘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히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를 만나는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과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 밖으로 끄달리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죠.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하루가 지났든, 1초가 지났든 간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한 찰나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과 행과 뜻과 더불어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고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0년이 갔다 해도 깨달음에 의해서는 1초와 맞먹습니다. 그러니 초발심에 달렸습니다. 행과 말과 뜻이 함께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컵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재료가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되죠. 여러 가지의 재료가 결부되기 때문에 컵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이 한 데 합해져서 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을 알지 못한다면, 흙과 물을 개어서 바람에 말리고 불에 굽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 결부되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컵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컵 하나도 그냥 무심하게 볼 게 아니라, 우주의 개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컵으로 나와서 만이 아니라, 그 컵에 물을 담아서 먹어야 비로소 컵이라는 빛이 나는 것이죠. 담아 먹을 수 없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우주개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 두려워

문 스님의 책을 처음 접하게 된지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는 무척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 제가 마치 사라질 것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전 마치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같습니다. 전 제 주인공을 믿지 못했습니다. 스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이 공부를 하실려면 한번 목숨 떼어놓고 해보시지요.

우리가 한철 인생을 사는 것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배우가 배역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무대에 올라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맡겨진 배역이 끝나면 또 새롭게 배역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번뇌망상이라는 것도 '나' 라는 그 애착 때문이지 그게 없다면 어찌 번뇌가 망상이다 하겠습니까?

☞ 14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7)

# 보증보험까지 붙어있는 수만배의 흑자계산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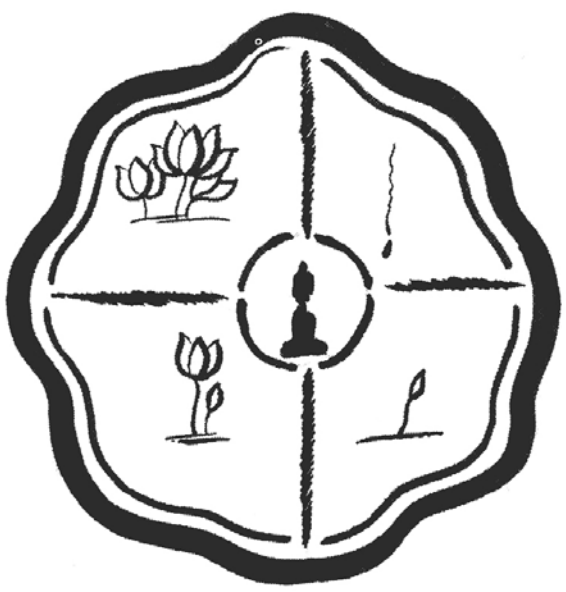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는 일이 없다. 우려내고 우려내도 끝없이 진한 국물이 나온다. 일체 중생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부족함이 없다."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세간의 여늬 길과는 달라서 불법공부는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부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이 법은 누구나 와서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법이요,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좋은 법이다.'라고 하셨다.

시작부터 좋다면 어떤 일이든 지루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질 리가 없다.

농부는 가을걷이만을 즐겁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봄에 씨뿌리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여름에 물 주고 비료 주는 일에서 키우는 재미를 맛본다. 그가 오직 가을걷이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의 봄·여름은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많은 농부라면 철따라서 흘리는 땀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일 때 가을걷이가 더욱 풍성하고 보람도 크다는 것을 안다. 그에겐 농사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즐거움 그것이 된다. 그리고 그는 자연의 이치가 곳곳에서 그런 즐거움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한 알의 이삭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면 수백의 열매가 맺힌다. 자연의 계산법은 한결같이 수백 곱절의 셈법이다. 하나를 심어 다만 하나를 얻는 법은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계산법은 그보다 더욱 엄청나다. 가령 '이 경의 사구게 하나라도 수지독송한다면 그 공덕이란 칠보를 수미산만큼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 배수로 따진다면 얼마쯤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아마 이 세상 어디를 가 보아도 이 같은 흑자계산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구게 한구절을 소중히 간직한다거나 남에게 일러주는 노력만으로도 몇 생에 걸쳐 쓰고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보화보다 큰 공덕이 있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의 계산법엔 아주 드물게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 한 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수도 있다.

자연의 계산법에선 어김없이 '한 알을 주고 수백 수천 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선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흑자계산'이 가능하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 그리고 그런 흑자계산에 부처님이 보증을 서고 있다. 재세시에만 보증을 서신게 아니라 세세생생에 보증을 선 것이다.

우리들은 짧은 계산에 사로잡혀 그 어마어마한 흑자계산법, 그것도 단단한 보증보험이 첨부된 계산법을 보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누가 불법공부를 권할라치면 '너무 어려워서'라거나 '먹고 살기가 당장 급한데'라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따져보자. 세상 일치고 쉽게, 절로 되는 일이 있던가. 불법공부가 어렵다면 세상 일은 쉽단 말인가. 쉽다면 왜 삶이 이다지도 힘들어야 하는가.

당장 살기가 바빠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면 어디 되돌아 보자. 그렇게 바삐사는데 삶은 왜 이렇듯 쪼들려야만 하는가. 또 그렇듯 바쁜 상황이라면 왜 가장 소득 높은 투자를 외면하고 소득 낮은 투자를 고집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좋은 투자, 과실을 이루다헤아릴 수 없는 투자, 세세생생에 과실을 누릴 수 있는 투자, 그런 투자가 '여기 있다!'라고 누가 광고를 한다면 서로 앞을 다투느라 아마도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작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셨고 거기에 보증보험까지 붙여놓으셨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누구라도 좋다.'고 하셨다. 어쩌면 그게 실수 아닌 실수(?)였을까. 선착순이라고 하셨더라면 아마도….

"불법공부를 하게되면 위로는 육신을 주신 은혜를 갚게 되고 아래로는 인과법으로 만난 악업·선업들을 다 제도하여 보살로 화하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뿌리를 북돋우니 줄기와 잎이 싱싱하게 대대손손 번창케 할 수 있다."

협찬 : 이 창 호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경계 물들지 않고 살아야 참다운 삶

☞ 13면에서 계속

또 주인공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체를 놓고 관하는 가운데 생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지 주인공을 대상으로 놓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이대라, 네 근본자리로 파고 들어라, 그러기 위해 주인공을 세워 놓고 그리고 몰아부치라는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 '나'와 '주인공'은 어떤 관계

**문** 이번에 드릴 질문은,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보다가 생각난 것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인공이 그렇게 시켜서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자체가 그대로 주인공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자체 바로 그것이 그대로 주인공인 것입니까? 전부터 생각하여 왔던 것이지만 아리송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야 질문드립니다.

**답** 나 이외에 주인공이 내 속에 따로 있다거나 혹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시켜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인공' 할 때에 '빌 공(空)' 자를 썼고 주인공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인공!' 할 때는 수억겁을 거쳐 나를 형성시켰고 끌고 온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주인공, 네 주인공 하는 식으로 갈라서 말하는 것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일체만물을 한마음 주인공!하고 싸잡아 불러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름없는 이름이여!' 하는 겁니다. 부처도 '부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지요.

내가 공부하는 분들에게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공테이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입력되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경계에서 찰나찰나에 수도 없이 솔솔 풀려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면 그걸 이루다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그자리에 되놓고 '주인공 알아서 해'하는 마음으로 '나'라는 생각부터 쑥 빠져버려야 수없이 입력된 것들이 지워져 공테이프가 돼도 될 게 아닙니까?

자꾸만 머리로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몽땅 놓고 가세요. 그렇게 머리로 헤아려서 알 거라면 구태여 내가 이런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 산을 오르는데 중간에 경치 좋은 곳 힘든 곳 다 만나는데 거기 붙잡히면 언제 다 오를까

### 사랑하는 친구가 출가했어요

**문** 스님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일이 제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스님께 여쭙는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제가 처음 사랑이란 것을 느낀 한 법우님께서 얼마 전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우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놓고 관해 보셨는지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경계에선 놓는 공부가 잘된다고 하다가도 싫은 경계가 닥치면 놓아지질 않는다며 안절부절합니다.

그게 다 자기사랑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싫은 경계가 닥치면 애착이나 번뇌로 자기를 괴롭히곤 합니다.

마음공부하는데 무엇이 병이라 했습니까? '나다' '내 것이다'하는 그 아상 아만이 큰 병이라 했지요.

그래서 싫은 경계, 역경계에서 공부가 더 잘되고 좋은 경계, 순경계에선 공부하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길은 놓고 맡기고 관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 부모님께 혼나지 않는 방법

**문** 저희는 안양본원 어린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도영, 박창영, 박우영입니다.

어느날 아빠를 따라 심성과학원에 갔다가 청아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아스님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무섭니?'하고 물길래, 저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끔씩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무섭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너희들이 혼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 질문의 답을 찾을려고 주인공한테 물어 보았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빠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나도 잘 모르겠으니 큰스님께 여쭈어 보자'고 해서 아빠의 컴퓨터를 통해서 큰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 찰나찰나 나오는대로 되놓고 '나'라는 생각·사량분별 쑥 빼세요"

**답** 저 푸르른 나무의 잎새들은 무얼 믿고 사나요? 뿌리의 힘을 믿기에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싱그럽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빠에게 혼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주인공 아빠에게 혼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잖아!'하고 저 잎새가 뿌리를 믿듯이 그렇게 하세요. 아빠에게 혼이 나는 것도 주인공이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혼이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다고 꾀를 내거나 조르지 말고 '주인공이 꼭 가르쳐 줄꺼야!'하고 믿어보세요. 가르쳐줄 겁니다. 나중에 더 크면 또 알아지는 게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보세요. 어린이회에 열심히 나가서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잘 따라하시구요.

### 성욕에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문** 파란 하늘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시대발전에 따라 이렇게 컴퓨터통신으로 친견을 하게 된 이 시대에 감사하며 더욱 좋은 환경을 벗삼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저로서는 성(성욕)에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성욕은 인간 생활의 걸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일 것인데 제가 주인공에게 아직 전적으로 일임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더욱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마음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性)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어떻게 잘 성(성욕)을 이용해야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를 놓고 살란다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게 목석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듯이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여여한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그게 참다운 삶이요 대장부다운 삶이지요.

내가 마음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것은 경계에 끄달리는 노예같은 삶이 아니라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문제 또한 주인공에 맡겨 놓고 관하면서 편안하게 대하세요. 공연히 뭐는 나쁜 일이다 하고 규정짓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 도가 있지 따로 길을 내야 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관하는 도리를 배워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처갓집 제사도 모시고 싶은데…

**문** 저는 4형제 중 셋째이며 제 처는 2녀 중 장녀입니다.

장인어른은 2남5녀 중 장남으로 아들을 두지 못해 부모님의 제사를 직접 모시지 못함을 서운해 합니다.

지금은 제사를 둘째인 작은 아버지(아들2명을 둠)께서 모시고 있는데 제가 결혼 당시에도 그런 상황을 알고 아들 노릇도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지만 장인어른은 마냥 허전하신 것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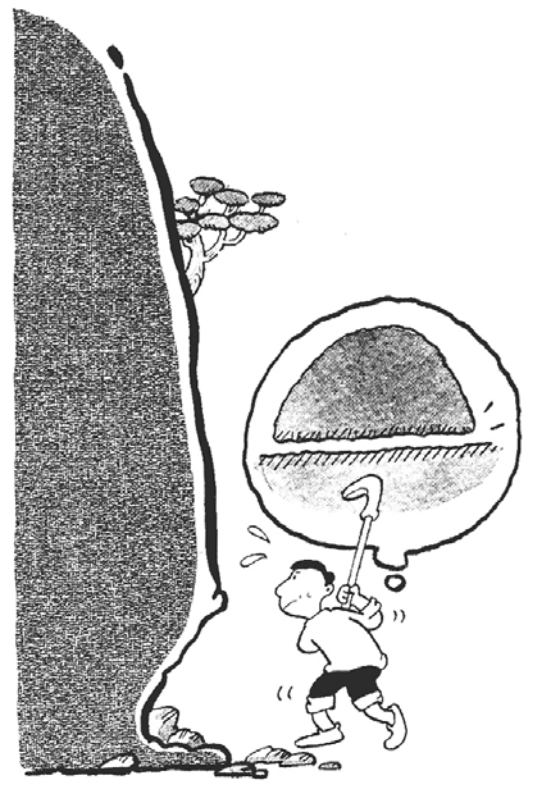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제가 처가의 조부모님을 영탑공원에 모실 수 있는지요. 훗날 장인, 장모님도 모실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러는 경우 영가(전주 김씨, 전주 이씨(처가))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해골무덤에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의아해 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느 때 내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수억겁 세월을 두고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부모 자식이 되었다가 때로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그렇게 되풀이했을 겁니다.

그러니 네부모 내부모, 네자식 내자식이라고 한정할 게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그럴 테니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돌고 도는 이치 속에서 돌 아닌 도리를 가르치시려고 해골무덤에 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장인 장모라 해서 나부모와 다르다 하겠습니까?

협찬 한마음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도의 영험이
적멸보궁의 방광(放光)으로 현현하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1983년 9월 21일. 동생과 철야기도를 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갔다. 암선고를 받고 부산에서 왔다는 보살님 내외와 철야기도를 하다가 새벽 2시 45분쯤, 세수도 하고 다기물도 갈기 위해 보살님 내외와 보궁 뜰로 나왔을 때였다. 보름이 지난 지 한참이라 캄캄하던 사방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휘싸였다. 번개가 칠 때처럼 밝은 빛이 한동안 사자산 연화봉 쪽에서 비추는 것이었다. 암선고를 받고 기도중이라는 보살님은 적멸보궁의 부처님 방광을 목격하고 기도의 가피로 건강해졌다고 했다. 나는 그 이후 불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보살행을 닦으며 살고 있다. — 제천에서 권 대도행 —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간 것이 197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 9명 중에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던 7명이 적멸보궁 위 연화봉에 비추는 방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색 영롱한 빛이 오렌지색 또는 황금색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는데 밝은 광채 때문인지 나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20분경이었는데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 중이던 우리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이때의 방광은 우리 일행 외에도 인근 마을에 불일이 있어 나갔던 이진수 씨가 보았는데, 절에 불이 난 줄 알고 급히 달려와 보니 요사채는 환한 광채에 뒤덮혀 있고, 요사채 보살은 깊히 잠들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놀라움과 장엄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부산에서 박상준 —

대한불교 조계종 법흥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73) 374-9177 팩스 (0373) 374-9178
• 천일 기도 기간 내내 기도 동참 및 10만등 불사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 또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 불사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 도량이었던 법흥사가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모아
중흥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의 중흥 불사로 거듭나게 될 법흥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희망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1998년 11월 8일(음 9월 20일) 입재 2001년 9월 20일(음) 회향

법흥사의 중흥불사는 온 국민의 동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나라의 흥륭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창건정신에 투철할 것이며
참배와 기도를 위한 불자들에게는 내집처럼 편안한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이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는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 02)742-1231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 선본사 갓바위
주 지 혜 창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TEL : 053)851-1869

## 광 덕 사
주 지 운 성
대 중 일 동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190-1
TEL : 053)763-0068

관 음 도 량
대한불교 조계종
## 만 의 사
주 지 김성직
신 도 일 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 0339)376-6005

대한불교조계종
## 선산 원 각 사
주 지 대 혜
부설:원각불교교육원
■ 경남 구미시 선산읍 노산리 159
TEL : 0546)481-2363

참선 삼보공찰 설법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 임조선사
주 지 석 임 조
회 장 김 연 옥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09
TEL : 0344)903-9121

## 수 도 암
주 지 도 종
총 무 공 관
신 도 일 동
■ 충남 아산시 용화동 화계산 수도암
TEL : 0418)545-7048

## 치악산 대성암
주 지 법 용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3리 262
TEL : 0371)763-8837

## 법 성 사
회 주 이석천
주 지 이혜묵
신 도 일 동
■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산 23-4
TEL : 02)651-4382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 대성사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 중구 신당4동 340-8
TEL : 02)237-9796(원융원)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 0356)84-1541(대성사)

## 봉화산 법만사
주 지 전 법 만
법연회 · 신도회 일동
■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 02)433-6591~2

기도하는 마음 포교하는 기쁨
대한불교조계종
## 무진법장사
주 지 석 법 장
영산불교대학
일요가족합동법회
■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 옆 359-9 마들 프라자 7층(주택은행옆)
TEL : 02)932-2333

## 청 계 사
주 지 지 명
신 도 일 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 0343)426-2348/426-2670

대한불교조계종
## 흑성산 천불사
회 주 이 기 연
주 지 석 인 경
신도회장 민 병 달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TEL : 0417)557-3223

대한불교 총화종
## 천 국 사
주 지 해 정
백만지장전 불사 추진 위원회 일동
故 박정희,육영수 여사 영정 봉안사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TEL : 0414)42-5966

팔공산 관봉
## 약 사 암
주 지 일 여
신도회장 이광영
사부대중 일동 합장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 053)852-0803

## 삼보기업
사 장 정 광 산
직원일동 합장
실크전문인쇄,현수막 전문
■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빌딩 4층
TEL : 02)279-2715/011)397-2715

대한불교 총화종
## 정 은 사
주 지 이 기 태
신 도 일 동
■ 인천시 남구 숭의4동 18번지 21-2
TEL : 032)875-5280,3459

대한불교조계종
## 황금절수국사
주 지 한 자 용
신도회장 김자비심
합창단장 문안락행
대 중 일 동
■ 서울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TEL : 02)356-2001

대한불교조계종
## 아차산영화사
부설 (관인) 영화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주 지 일 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 02)444-4321, 7215

대한불교 조계종
## 낙 산 사
주 지 지 홍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 0396)672-2448

## 대한불교 사설사암연합회
회 장 석 종 후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602호
TEL : 02)736-4344

사찰전문 소개업체
## 광 진 불 사
사 장 김 희 만
(공인중개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TEL : 02)723-4082

대한불교 영축산
## 불광사 · 불광대학
주 지 운 남

| | | | |
|---|---|---|---|
| 총무일 | 조 | 학 | 장종안 조길조 |
| 총신도회회장 | 우백운화 | 총학생회장 | 도광 허길남 |
| 기획처장 | 중현 이종일 | 학생처장 | 자광 빈일열 |
| 홍보처장 | 종인 장용환 | 사무국장 | 권여의주 |
| 교무국장 | 이혜명심 | | |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28-1번지
TEL : 053)626-1703, 656-6766

## 불광사 · 불광법회
대 중 일 동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TEL : 02)413-6062

## 불 암 사
주 지 양 종 명
신도회장 이 금 자
신 도 일 동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5번지
TEL : 0351)842-7684/845-7684

지장기도 참회도량
## 삼학산 약 천 사
주지 허 정
신 도 일 동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284
TEL : 0348)942-3880

원효성사 탄생지
대한불교 조계종
## 제 석 사
주 지 태 경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26-1
TEL : 053)857-2271

대한불교조계종
## 삼각산진관사
주 지 진 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02)359-8410

##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 우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TEL : 02)733-5467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제3의학·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스님의 비법 :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드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당뇨병, 간질병,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대도시권 배달가능)
⊙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3개월이면 치료됨.
⊙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 0547)437-4136, 437-4135

## •강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김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 *수맥 강좌*

신비의 추 사용법
매주 목요일
수맥관련 상담
우물파기, 터보기

도면 보내주시면
수맥 찾아드립니다.
02)774-2118
011)239-6817

###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동양역학, 침술, 불교학, 일본어
◆ 자 격 : 연령·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침술 :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개인 수강자는 방도지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1
(목화오피스텔 605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출구)
T. 3412-4582
대길승가대학 교무처

### *꼭 알아야 할 秘要 특강*

1. 모든 문제의 成敗·可否 판단법
1. 운명 문제의 간단명료한 판단법
1. 현실 문제 적중법 및 각종 방편법
1. 이사, 결혼, 풍수, 건축 등 각종 택일법
1. 정신통일 건강 및 초능력 개발법

02)597-6211
(45일완성·통신가능)
正山堂 金 庚 泉 직강

### 禪武道 수련학생 모집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수련장과 요사를 신축하고 선무도 법사(사범)과정 학생과 건강을 위한 요양객을 모집합니다.

◆수학내용 : 선체조, 선기공, 선무술, 환법술, 불교학, 체육학, 한의학, 외국어, 한국전통예술
◆수학기간 : 3년 및 단기과정
◆입학자격 : 남녀 고졸이상(단 요양객은 기간, 자격 제한 없음)
◆문 의 처 : 골 굴 사 (0561)44-1689
⊙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본회의 국내외 지원, 지부에 지도자로 취업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협회 선무도 대학

■ 현대불교신문사의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

## •구인구직•

I.M.F 시대를 맞아 무리한 불사로, 불사는 무사히 마쳤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구스님입니다.
약 3천만원만 도와주시는 불자님 계시다면 평생 수행하며 함께 모시겠습니다.

※ 도움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0667)772-5401
011)845-4109

### 행자교육후 스님되실 분 구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을 가진 분으로 25세 미만인자

053)585-0450
011)503-0455
성규사 주지

### 인연되는 사찰을 찾습니다.

역술과 침술에 능통한 스님입니다.
절을 맡겨 운영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71)853-4060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 •사찰안내•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 사 찰 안 내

◇위치 : 공주 ◇부지 : 500평
◇법당 : 18평 ◇요사 : 33평
◇가액 : 1억 3천만 ◇고찰산사
◇석간수 풍부, 시설완비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 사찰 겸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대지 : 48평, 2층 법당 28평
◇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종무소, 반지하 식당-13평
◇매가 : 1억 1천 5백만원

053)656-6609
011)790-7162

### 새주인을 찾습니다.

경주 울산간 국도변, 절묘한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 보기드문 기도도량으로서 편리한 교통의 수려한 경관이 최상이며 법당 뒷쪽 맑은 샘물이 일급수이며 툭 트인 전망이 좋은 도량임.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경내지 사용면적 1,000평-매 2억 1천

0561)743-4008
0598)943-2890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절충가능)

02)936-4785

### 암자·포교당 최고요지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전철 3호선, 6호선)
◆대지 : 54평, ◆건물 : 25평,
◆가격 : 1억 9천만원 (융자 4,500포함)
◆법당 2, 방2, 현재운영중

포교당 창건 원하시는 스님, 법사님, 신도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세요.

011)721-5720
02)384-5720/386-8955

###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 신림본동 신림4거리 보도10분거리 대로도변 2층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칠성탱화,각종만다라화 여러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시설및 일체물품(1천 2백만원)

02)888-1642
011)686-9925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 사찰 안내

◆ 위 치 : 밀양시 산내면
◆ 대 지 : 300평
◆ 건 평 : 30평.
임법당,요사채,현대식건물, 부처님 모셔져 있음.
※밀양시내에서 15분 도로도변 인접 200m

0527)352-0239

### 토굴 겸 암자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대지 : 103평
◆건물 : 25평(슬라브, 시설완비)
◆매가 : 4천만(등기 필)
※밀양에서 표충사간 1/3지점

0542)371-1306
0527)353-4188

###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대지 : 260평
◆ 건물 : 약 80평
◆ 매가 : 1억 3천만원

0333)691-2351

### 사찰 안내

◆ 위 치 : 경기
◆ 법 당 : 10평, 요사채 : 26평
◆ 가 액 : 1억 3천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포교당 안내

◇위치 : 인천 숭의 5거리 도로인접
◇건평 : 3층 45평
◇법당 : 17평, 방3개, 주방
◇가격 : 전세 1천만원, 월세없음.
※ 시설비 따로 문의 바랍니다.

032)887-4884
일심사

###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 7백만원
◆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5)882-6407

### 사찰겸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 2층건물
◆2층법당 27평, 대지 48평, 1층-요사채 30평, 방3, 주방, 종무실, 욕실, 반지하 식당 13평
◆가격 : 1억 1천 5백만원

053)656-6609
011)790-7162

### 촌 집 암 자

◆위치 : 경북 의성
◆가격 : 전세금 없음 시설비 1,200만원

0502)557-1666
015)557-1666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면적 : 총 5,800평 - 준 농림지역 (이중 600평 대지, 5,200평 전)
◆법당 22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각 30평씩, 공양실 13평(층5동), 신축건물, 주차장 완벽, 등기완료
◆환경 : 전망최고 사찰정면에 큰 저수지유, 사찰 및 별장, 시설은 A급, 마을에서 3Km 산중턱에 위치, 뒷편은 울창한 숲 - 유실수, 고령 I.C에서 6분, 대구에서 30분, 88고속 및 국도

0543)954-6194~5/ 011)501-2219/ FAX 0543)954-6196

### 포교당(반지하) 전세

◆평수 : 42평
◆방 大1, 공양간, 화장실, 신주택 밀집지역(조건 좋음)
◆가격 : 개인사정, 절충가격 울산 바운동 총 2900만원
※ 매매 하시는 분 사절

052)247-9102
052)249-6332

###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노원구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주차가능)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 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011-561-9005

### 토 굴 전 세

◇위치 : 지리산 청학동 부근
◇평수 : 총 600평중 건평 18평
◇가격 : 1,500만원

011)616-3302

### 사찰(급)안내

◆위치 : 삼천포 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약 1,700평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20평
◆주지실 : 12평 ◆버스진입도 됨, 주차장 약 200 ◆가격 : 2억
◆특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울창한 송림속에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훼어난 경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편리한 교통과 사계절 일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하고 있는 청정한 기도도량.

■ 창건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저희 사찰에서는 현재 불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심이 돈독하신 분중 6천만원의 동참금을 내시고 평생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 6천만원의 동참금은 5년후 바로 돌려드리고, 6천만원에 대한 담보설정은 즉시 해드립니다. 또한 사후 49재및 공덕도 세워드립니다.

017)557-9448(주지직접) / 0593)835-9448

### 포교당 안내

◆ 위 치 : 미야 3거리
◆ 건 평 : 50평, 5층건물의 2층
◆ 전 세 : 7천만원, 시설비·권리금 없음.
※ 4호선 전철역에서 가까움. 교통편리

02)941-3195

### 사 찰 안 내

◇위치 : 진주시내 산옆
◇법당 약 45평. 방 4칸,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름보일러 금년도 신축
◇대지 : 300평(가격은 상담후절충)

0591)746-7350
017)552-7350
김 강 철

### 포교원 안내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500만원(조절가능)

02)461-6091
011)493-8936

###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 성북구 보문동
◆평수 : 64평, 한옥
◆방5개, 부엌, 마루
◆가격 : 평당 500만원(절충가능)
◆주택전철역, 교통편리, 주택밀집지역, 탑골숭방 인접, 포교에 최적지임.
※ 꼭 하실 분만 전화주세요.

02)921-6831
016)262-6831

###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북군산시 월명공원내
◆ 전 세 : 최저 가격절충
◆ 요사채 : 30평, 대웅전 18평
※급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 하고져 합니다.

0654)461-4152
011)579-9865

###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평택시 근교
◆부 지 : 575평 ◆법 당 : 40평
◆요 사 : 40평, 방 6칸, 욕탕 2칸
◆기타건물 : 입석 미륵부처님, 해수관음부처님, 법당내 미륵보살님 300불
◆가 액 : 답사후 절충요함.
◆특 징 : 완벽한 조경시설과 편리한 교통환경속에 소재한 기도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 가능함.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촵장
상담 : 02)512-4447/ 011)736-4447

## 법회안내



관응스님(직지사 조실)14일 오전 10시 김천 직지사 관음재일 법회. (0547)436-6174



정일스님(보광사 조실) 19일 오전 10시 30분 선원사 복원 천일지장기도 6백일 천도제 및 초청대법회. (032)933-8234



법정스님(길상사 회주) 18일 오전 11시 송광사 일산분원 정혜사 개원법회. (0344)907-8900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5일, 11월 5일, 12월 17일, 오전 10시 무진법장사 선사상 특강법회. (02)932-2333



법농스님(반야정사 한성포교원 주지)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어린이 법회. (02)207-8296

주명철교수(동국대 교수) 18일 오전 10시30분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 (02)732-12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 신행 캘린더

### 10월15일 (목)

■능인선원 갓바위 순례법회=능인선원은 오전 5시 40분 팔공산 갓바위로 10월 순례법회를 떠난다. (02)577-5800

■자원봉사자 교육=통도사부산포교원은 오후 2시 문화관에서 자원봉사의 의식교육을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051)816-2241

■제주 관음사 연등제=제주 관음사는 대승보살 문수, 보현 봉불식과 탐라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연등제를 오후 4시 봉행한다. (064)722-2829

### 10월16일 (금)

■정토회 창립 10주년 기념리셉션 및 기념식=밤 7시 동국대 그릴 및 예술극장에서 정토회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 및 기념식이 열린다. 17일에는 정토회 활동보고대회 및 자축한마당도 펼쳐진다. (02)581-4037

■반영규씨 고희기념 불교음악회='부처를 향한 어느 시인의 노래 이야기 그리고 서원'이라는 주제로 반영규씨 고희기념 불교음악회가 저녁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02)723-1399

### 10월17일 (토)

■전남 곡성 옥과 관음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7시 한가지 소원이 성취된다는 전남 곡성 옥과 관음사로 참배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 10월18일 (일)

■실직자 대상 무료진료=불국토한의원(원장 정중)은 실직자 심터 '소망관'의 실직자 65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51)758-8167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은 적극적인 보살행의 실천이다. 사진은 서소문공원 '아침을 여는 집'에서 무료진료중인 국립의료원 의료진.

■혜암 큰스님 친견 설법회 및 문화기행=부산불교교육원은 오전 8시 '마음을 닦는 길'을 주제로 해인사 혜암 큰스님 친견 설법회 및 문화기행을 떠난다. (051)466-4080

■충주 중원지역 사찰 명승지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오전 7시 30분 아름다운 월악산 골짜기 중원땅의 의미를 찾아 답사를 떠난다. 충렬사, 단오사, 덕주산성, 사자신빈사지 다층석탑, 미륵사지 등을 둘러본다. (02)725-1284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맑고향기롭게 제5회 알뜰시장이 오전 10시부터 길상사 뜰에서 열린다. 우리옷, 사찰전통 장류, 각종 환경세제 등이 판매된다. (02)741-4696

■능인선원 무료검진 및 건강상담=능인선원 능인사회복지관내 진료소에서 치과 무료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02)577-5800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꽃 큰잔치 운동회=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오전 10시 부산 양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법회 회원들과 연꽃 큰잔치 운동회를 연다. (051)808-4569

■위기극복의 삼매법회=제주 원명선원은 4주년을 맞아 위기극복의 삼매법회 및 혜불공개 복원발원법회를 오전 10시 30분 봉행한다. (064)755-3322

■제주 존자암착공 기도법회=한라산 영실 존자암에서는 착공식 대법회와 1천일기도법회를 오전 11시에 입재한다. (064)746-3342

■원심회 창립 10주년 기념 대법회=장애인포교에 매진해 온 원심회가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갖는다. (02)720-4528

■계룡산 갑사 동학사 답사=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계룡산 갑사와 동학사 등지의 문화유적과 단풍을 함께 감상하는 답사를 떠난다. 오전 7시에 출발한다. (02)275-4333

■참선법회=능인선원 능인회에서는 21일까지 낮 1시와 저녁 7시 능인예식장에서 참선법회를 갖는다. 송광사 일성스님이 지도한다. (02)577-5800

### 10월20일 (화)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및 지장암, 월정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5시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및 지장암, 월정사 등지로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 10월21일 (수)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7회 학술세미나=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제7회 학술세미나를 오후 2시30분~5시까지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연다.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발제와 종합토론 등이 이뤄진다. (02)738-5586

## 종단소식

### 조계종

#### 통도사 1353회 개산대재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는 28일 1353회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날 개산대재는 괘불이운식에 이어 영가천도, 경로잔치, 재롱잔치(통도사 유치원생), 합창단 경연대회, 점등식 등이 진행된다.

#### 효봉스님 추모법회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현지)는 21일 오전 10시 효봉대종사 추모법회를 효봉영각에서 봉행한다. 추모법회와 함께 효봉장학회를 발족,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 도광·종원스님 추모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종걸)는 13일 각황전에서 이산당 도광 대선사 14주기 추모법회 및 원응당 종원대종사 49재 추모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 태고종

#### 국난극복 기원 보살계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원장 일우)은 12일 대구 관암사에서 국난극복 기원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거불, 상단권공, 상축, 설계, 연비, 사홍서원 순으로 봉행됐다.

한편 대구·경북교구종무원은 이날 법회에서 모금한 실직자돕기 상금 6백만원을 문희갑 대구시장에게 전달했다.

#### 봉원사 암반수 개발보시

봉원사(주지 대운)는 지하 3백미터에 있는 암반수 개발에 착수, 지역주민과 신도들에게 생수를 보시한다.

지하 암반수 개발은 봉원사 관음회에서 3년동안 발원을 세워 추진한 것으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지점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이 다량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천태종

#### 서울·경기청년회 연합법회

서울·경기지구 청년회 연합법회가 5일 관문사 옥불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교무과장 경혜스님을 비롯해 권무원 관문사 신도회장, 이문수 중앙청년회장 등 6개지역 청년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경혜스님은 "21세기 불교의 미래는 생산적인 불교가 되어야 하며 이는 청년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비구(니) 117명에 가사수여

총무원(원장 운덕)은 9월 15일 구인사 설법보전과 삼보당에서 비구 비구니 1백17명에게 가사점안과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도용 종정은 "출가한 사문으로 승가의 일원된 징표로 가사를 받아 지니는 만큼 법답게 수행하고 정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교시했다.

### 진각종

#### 종조 열반절 추념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6일 오후 1시 총인원 종조전에서 종조열반절 추념불사를 갖는다. 또 21일 오후 3시에는 총인원 대강당에서 선대 열반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한다.

#### 밀각심인당 경로잔치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은 추석을 앞두고 9월25일 심인당 내 식당에서 성동구청내 어르신 5백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 보문종

#### 대입합격 백일기도

보문사(주지 법준)는 11월 18일까지 대학입시 합격 1백일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8월11일 기도를 입재한 이래 매일 오전 10시에 법회를 열고 있다. (02)928-3797

### 조동종

#### 나한사 삼존불 점안법회

경북 상주시 나한사(주지 혜경)는 9월 28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송봉(지장정사 주지) 영봉(부종정) 송정(총무원장) 연봉(감찰원장)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게 시 관

### ♣ 강좌

△기초교리·어린이한문학당=심원사 서울포교원 실상선원 불교 기초교리강좌가 매주 월, 화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에 열린다. 또 실상선원은 어린이 한문학당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와 일요일 오전 9시에 연다. (02)215-7978

△점자 수화 기초반=원심회는 점자 수화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화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점자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원심회에 법당에서 강의한다. (02)720-4528

△조계사 카운슬러대학=조계사 카운슬러대학은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제2기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와 인간의 마음, 상담과 대화, 불교와 상담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다. (02)720-1390

△발반사건강요법=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2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관오사에서 발반사건강요법 및 향기요법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53)784-3669

△신나는 다이어트프로그램=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다이어트 식단작성과 함께 운동요법을 지도한다. (02)852-0525

△남산문화유산강좌=한국불교사회연구원은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경주 남산문화유산강좌를 개설한다. (0561)741-0762

### ♣ 모집

△어린이 교구 및 장난감 기증자=능인선원복지관에서는 3세~8세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구 및 장난감을 모집한다. (02)577-5800

△연꽃마을 행복한 집 후원인=연꽃마을이 운영하는 어린이 그룹 홈 행복한 집에서는 학용품과 도서, 컴퓨터 기기 등의 후원을 기다린다. (0331)258-5727

△근본불교학교 수강생=자비마을 근본불교학교에서는 17일부터 개강하는 제11기 근본불교학교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505-8396

△청담광명의 집 후원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청담광명의 집 후원자를 모집한다. (02)806-1370

△결식청소년 도시락 배달서비스 후원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청소년 도시락 배달 서비스 후원자와 봉사자를 기다린다 (02)282-1100

△백련상조회 자원봉사자=우리는 선우 백련상조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무료로 염불 및 염습교육을 실시한다. (02)278-8672

△연꽃자원봉사단=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에서는 연꽃자원봉사단을 수시로 모집한다. (053)765-8879

△종이접기 강사자격증 야간반=신도림종합사회복지관은 유치원, 초중고 교사와 직장인을 위한 종이접기 강사자격증 야간반을 개설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강의한다. (02)631-9792

### ♣ 화촉

△불교TV 유권준PD는 17일 오후 1시 서초웨딩홀 1층 수정홀에서 안정윤양을 맞아 화촉을 밝힌다.

△이상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차장은 18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임영신씨와 화촉을 밝힌다.

### ♣ 이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최근 사무실을 종로구 경운동 88 천도교 수운회관 11층 1호로 옮겼다. (02)736-2250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 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험·사·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바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도 오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엷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 한 국 원 동
☎.3437-8282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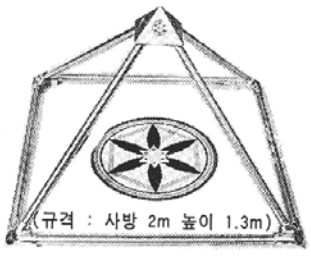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규격 : 사방 2m 높이 1.3m)

재질순동 천연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게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창원지원: 0551)268-5338, 부산동호회: 051)517-0236



건국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 430-043
본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 A X :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나와 현대불교

## 신행 밑거름…일주일 내내 탐독



김기옥 〈前 서울 대신초등교사〉

"현대불교신문은 내 공부자료입니다."

서울 대신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 8월31일자로 42년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김기옥교사(62세, 불명 春珏)는 현대불교신문을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는 독자다. 그러다보면 평균 2~3회는 읽게된다. 창간독자로 그렇게 4년을 생활해왔다.

"집에 신문이 도착하면 학교로 들고가서 교실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방과후나 쉬는시간에 꼼꼼히 읽습니다. 한번 읽어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처음 읽을 때와 다시 읽을 때 세번 읽을 때가 마음작용이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싶은것'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글들을 만날 때는 '아, 또 배웠구나' 싶어 환희심이 생기니까요.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마음공부를 하는거지요."

이렇게 손때가 묻은 현대불교신문은 1주일후 새 신문이 도착하면 김교사의 부군(여의도고교 교사)에게 넘겨진다. 부군은 구문을 읽는 셈.

김교사는 현대불교신문에서 기획하는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맹렬독자다. 심지어 부다피아어린이 캠프에는 손주들을 보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불교를 강요하거나 내가 신자임을 무리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선생님은 현대불교신문을 늘 읽으시는분'으로 떠올리더라구요."

이런일도 있었다. 옆반 교실에서 불자학생들과 기독교학생간에 종교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쟁점은 "우리 대한민국 4천만 인구가 모두 부처님이 된다"라는 불자학생의 주장에 아니라는 반박이 오고간 것. 늘 현대불교신문을 곁에두고 생활하는 김교사의 이미지 때문인지 그 어린이들은 김교사에게 확인받겠다며 몰려왔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기때문에 4천만 모두 부처님이라 해도 된다"는 김교사의 설명에 논쟁은 일단락지어졌다고 한다.

김교사가 스크랩하면서 가장 열심히 읽는 란은 연재물 '길을 묻는이에게'와 6개월여 연재됐던 김종서박사의 '불교와 교육', 아이들에게 좀더 젊은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명퇴를 결심했다는 김교사는 이제는 집에서 지난 신문까지 점검하며 읽게 됐다며 웃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 옥중서 만난 수행의 등불

박노해 〈시인〉



"옥중생활 8년동안 교계 신문을 모두 받아보았는데, 유일하게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전체를 샅샅이 읽었습니다. 특히 두 쪽에 이어실은 '큰스님 수행한담'을 가장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시인 박노해씨는 옥중에서 불교사상과 불서에 심취해 있었다며 현대불교신문 애독자임을 밝혔다. 생활불교를 지향한 지면구성과 다양한 기사포멧 등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문을 접하게 한다는 것.

교계 신문들이 옥중으로 전달돼 접할 수 있게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박시인은 짧지 않은 8년의 시간에 불교관련 서적을 다독했다고한다. 그래서 '선림고경총서' 시리즈와 성철스님 법어집 10권에 빠져 열심히 읽었다고 전했다.

70년대 함석헌·문익환옹을 따라다니던 시절 법정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교에 호감을 갖게 됐다는 박시인은 "진정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전통성이 확보된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된다"며 "그것은 정신적으로 불교가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피력한다.

위영란 기자

## "맘놓고 권할수 있는 신문"

이경희 〈대불청 여성국장〉



"지난 3년간 책상 한 켠을 차지해 온 현대불교신문 스크랩 철은 마음 공부와 자비행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여성국장 이경희씨(33)는 현대불교신문이 수행과 신행의 지침서라고 말했다.

이씨가 신문의 스크랩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상법석'을 읽고부터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선지식들을 지면으로 뵙고 그들의 맑고 향기로운 깨달음의 법문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상법석'"이라는 설명이다.

'길을 묻는 이에게'는 이씨의 포교 방편이기도 하다. 그녀에게는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날 그 친구가 책상 모퉁이에 밀어놓은 스크랩 뭉치를 우연히 읽게 됐다. 그때 친구는 "네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밝을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며 신심 두터운 불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후에 이경희씨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권할 수 있는 신문으로 현대불교신문을 꼽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송광사 민족문화교육관 짓는다

### '출재가 교육도량' 21일 기공…2천여명 수용규모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에 출·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수행을 위한 대규모 수련원이 건립된다.

21일 기공식을 갖는 송광사 수련원인 민족문화교육관은 효봉영각 앞에 총 4개동으로 건립된다. 송광사는 1차적으로 금년말까지 9백여평의 대지에 6억3백여만원을 예산을 들어 금년말까지 연건평 74평의 1동을 완공할 예정이다.

송광사는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족문화교육관이 완공되면 거종단적 집체교육(행자교육, 비구계교육 등), 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스님들의 집단교육, 춘계 보조국사 종재, 추계 효봉종사 추모법회 등 각종 대형법회, 재가불가 수련회 등 출·재가 불자들의 교육과 수련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사측은 "그동안 수련장이 없어 재가불자들의 단기수련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치 못해 안타까웠다"며 "수련원이 건립되면 연중무휴로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사 수련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시설미비로 매년 하계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교의 원융무애정신과 지역 개발전문가의 식견을 활용 제주발전을 이루기위한 협의기구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이 9월29일 발족됐다.

## 제주불교 사회문화원 개원

### 인재양성·도정 발전과제등 실천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앞장섰다.

제주지역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불교사회문화원(원장 시몽스님) 개원식이 9월29일 칼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중원스님(관음사주지)을 비롯한 지역스님과 김태환 제주시장 양중해 제주문화원장 등 지역인사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 회장 중원스님은 "불교의 원융무애정신이 이 사회에 필요한 때이다"며 "경륜과 식견을 가진 지역 중견인사들이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발전방안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교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개원식에서 시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을 발전시켜 제주도민에게 용기와 신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앞으로 △연2회 제주불교사회발전 토론회 △지역사회원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화모임 △제주발전을 위한 제안및 도민홍보 △제주발전 과제 실천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개원과 함께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충고의 제안을 듣고 있다. 문의 제주시 이도1동 관음사중앙포교당 4층. (064)758-2118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원명선원 훼불전시관 건립

### 18일 발원법회…불상등 국내 모든 자료 소장

각종 훼불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훼불전시관이 교계 최초로 건립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훼불사건이 발생한 제주 원명선원(회주 대효)은 최근 훼불전시관(가칭)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명선원이 추진중인 훼불전시관은 규모, 시기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경내에 건립, 훼불성지로 조성한다는 것. 이 훼불전시관에는 최근 발생한 각종 훼불사건에서부터 1천6백여년 동안의 모든 훼불사건에 대한 자료를 총망라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될 자료는 훼불사건 일지, 사진및 신문자료, 파괴된 불상 등이다.

이를위해 원명선원은 지난 6월 26일 발생한 훼불로 파괴된 불상 공개 및 복원발원 법회를 18일 봉행한다. 이날 공개될 불상은 훼불사건으로 파괴된 관세음보살상 1구, 석가모니부처님상 1구를 비롯 천불가운데 7백50여구의 불상이다. 이 불상들은 훼불전시관이 건립될 때까지 법당 한켠에 임시로 마련된 전시관에 보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원명선원은 이날 법회후에는 훼불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자료조사 등 구체적인 불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 성철스님 생가 2001년 복원

### 유품전시관도 건립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고 93년 열반한 성철스님 생가(조감도)가 2천1년까지 복원된다.

9월 1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생가터에서 백련문도회스님을 비롯하여 불필스님(금강재단이사장)과 기관장 등 내외인사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철스님 생가 복원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착공된 성철스님 생가는 정부보조금 7억원으로 총면적 2천5백여평에 생가(50평) 안채 사랑채 외삼문 등이 건립된다.

이와함께 성철스님 기념사업회인 금강재단과 해인사 백련불교문화재단은 30여억원을 투입해 생가옆에 유품전시관과 사찰을 건립키로해



불자들의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 남구복지관 위탁운영
###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자로 9월30일 확정됐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남구종합복지관은 연건평7백22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저소득층지원 △지역복지시설과의 연계 △지역공동체의식함양 등을 통해 열린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교사회복지회는 7일자로 남구자활지원센터로 지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장성 묘현사 묘련스님



한국의 대표적인 법화행자로서 평생을 〈법화경〉 수행에 매진해 온 묘련스님(묘현사 주지)이 5일 새벽 4시40분 입적. 세수 74, 법랍 52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9일 오전10시 전남 장성 묘현사에서 엄수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제주불교 총람 발간"

### 원장 시몽스님 인터뷰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현주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불교계가 인재양성등 제주발전방안 수립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을 만들겠다는 초대원장 시몽스님(서귀포 법화사주지).

이를 위해 시몽스님은 첫행사로 11월경 미래의 제주도를 지향하는 언론계와 연계하여 지상좌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의식 개혁을 위해 젊은스님과 경륜과 식견 그리고 각 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함께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격의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미비한 제주불교사를 정립키위해 제주불교총람을 발간하고 지역 장례문화 개선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 연담 · 백파 문도 총회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연백문도회는 역사적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는 선지식을 많이 모셔왔고 그후로도 화합 단결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문도의 규약이 없어 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9월 29일 선운사에서 여러 중진스님이 모여 문장스님과 원로스님, 지도위원 스님을 추대하고 회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후 10월 7일 봉선사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문도 규약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문장스님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앙원합니다.

■ 일 시 ; 1998년 10월 19일 오후 1시
■ 장 소 : 장성 백양사

⊙ 문 장 : 서옹 대종사
⊙ 원로위원 : 운경, 수산, 천운, 청화, 철웅, 월운, 정천, 동성, 우암, 재덕
⊙ 지도위원 : 지승, 혜성, 암도, 현성, 학능, 호월, 재곤, 재훈, 백운, 인담, 일장, 일면, 도형, 월성, 원응, 대우, 선파, 보안, 태연, 지향, 정허, 태정, 자옹, 다정, 성오, 선걸, 혜정
(현재파악이 안되신 스님과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 장 : 밀운(봉선사 주지)
⊙ 부 회 장 : 혜산(선운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현근(조계사 주지), 보선(대흥사 주지), 동광(도선사 주지)
⊙ 사무처장 : 화범 (봉선사 부주지)
⊙ 간 사 장 : 법현(선운사), 혜자(도선사), 화암(봉선사), 선광(조계사), 토진(백양사) 〈무순〉

연백문도회 회장 봉선사 주지 밀운 합장

문의 : 백양사 0685)392-7502 / 봉선사 0346)555-5974

# 사찰 복지통장 등장

## 동화사 첫 개설…불우이웃돕기등 복지활동

불교복지관 건립과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사찰복지통장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지난 8월 중순 복지기금마련을 위한 복지통장(농협 5앙회 712-17-000934, 예금주 동화사)을 개설하고 교구차원의 기금모금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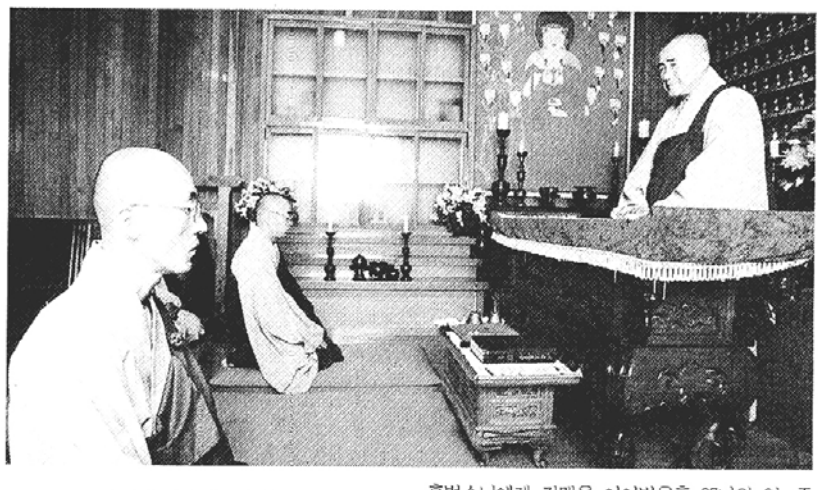
모금을 위해 동화사는 대웅전에 모금함을 설치한 것을 비롯 0여개에 달하는 각말사에도 시주함과는 별도의 복지기금전용 모금함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9월 24일 열린 교구종회에서 대구·경북지역 불교복지의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다룬 불교복지사업계획서를 배포하여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지금까지 단위사찰별로 북한동포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분담금을 할당한 경우는 있었으나 교구본사 차원에서 온라인 복지통장을 개설한 것은 동화사가 처음이다. 즉 개별사찰단위의 복지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규모나 지속성면에서 열악하다고 판단, 본사차원에서 복지활동을 펴나가기로 한 것. 또한 분담이나 할당이 아닌 자발적인 복지운동차원으로 전개하는 점이 특이하다.

동화사는 향후 불교사회복지관 및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등을 설립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동화사는 지난 9월 그동안 모금액 중의 일부를 수재민돕기 성금으로 상주시청과 불교대구방송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동화사가 개설한 복지통장은 IMF시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우이웃을 돕고 나아가 지역불교복지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동화사 복지통장 개설이 좋은 반응을 거둘 경우 타지역 사찰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훌륭한 강사되길…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은 8일 길음동 승현사에서 전강식을 열고 해월·우진스님에게 각각 강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사인 종범스님이 1971년 1월15일(음) 통도사에서 당시 강주였던 홍법스님에게 강맥을 이어받은후 27년의 일. 종범스님은 법어를 통해 "훌륭한 강사가 되기 위해선 조석으로 붇전에 발원해 거듭 정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월(해인사 사교과 강사)과 우진(통도사 사교과 강사)스님은 전강서원으로 답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조계사 원심회 창립 10년

## 불교수화-점자책 무료보급

### 8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 한몸 편하고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저마다 제삶 꾸리기에 정신이 없다. 주변 장애인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조계사 원심회(회장·덕신 조종 총무원 문화국장)가 가장 어울렸던 점은 비장애인들의 '그릇된 인식'이었다. 누구나 한 순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비장애인'임에도 불구, 그들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장애인들은 물질적인 것 보시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원한다. 이런 나눔의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갭을 대 형성을 위해 정진해 온 원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원심회는 18일 오후 3시 조계사 화쿄육관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각 장애인을 위한 불교수화책, 각장아인을 위한 불교점자책 및 교녹음도서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 특히 〈불교 수화 용어집〉 정 증보판과 불교점자도서(묘법화경〉 1백질을 청각장애인과 점도서관, 맹아학교 등 관련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원심회는 10주년 행사를 기해 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녹음도서 제작, 점자도서 출판을 위한 컴퓨터 입력작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전은 물론 일반도서까지 출판하여 점자도서관 등에 보급을 늘려나가고 청각·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심회는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법회를 정례화하여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일반수화를 통해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불교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불교수화 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수화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좁혀가는 교계 유일의 장소와 계기를 제공해 온 원심회는 장애우(友) 포교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청각장애인 정기법회를 개설하고 자체 법당도 마련했다. 〈불교수화 용어집〉을 발간하고 점자부를 개설하면서 〈아미타경〉과 〈법화경〉 등의 컴퓨터 점역 경전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지막 비디오 테이프 제작과 함께 바둑강좌도 개설하고 지난해에는 수계법회까지 열어 30여명의 회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 나도록 했다.

원심회 회장 덕신스님은 후원인과 함께하는 법회를 정례화하고 '불교수화 연구회'를 구성, 불교수화를 정립하는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도량건립의 원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한국송환 청원

### 日고려사 청와대에

30년째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골의 본국 송환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 교토(京都)의 조계종 고려사 주지 태연스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부가 유골 봉환사업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일제 치하에서 군인이나 군대 위안부 보국대원으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묻혀 있는 한국인 유골은 75만여구 일본 사찰이나 신사(神社) 폐광 등 3천4백60여곳에 방치돼 있다. 이 가운데 1천1백40구의 유골은 현재 도쿄(東京)시내의 일본 정토종(淨土宗)사찰인 우천사(祐天寺)로 옮겨져 납골당에 봉안돼 있다.

태연스님은 청원서에서 "고국에 묻히지 못한 한많은 유골들을 봉환한 뒤에야 한일 과거사 청산을 말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남북한 정부 등 재일동포가 힘을 합쳐 유골봉환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제천 장애인복지관 개관

### 충청권 불교사회복지 교두보될듯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충북 제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스님)이 10월 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개시했다.

제천시 청전동 689번지에 대지 3백30평, 건평 5백8평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자리잡은 동복지관은 1층에 상담실 어린이 교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목욕탕, 2층에 작업재활실 강당 식당, 3층에 사무실 자원봉사실 자료실 등 첨단시설을 고루 갖췄다.

앞으로 상담 의료 심리 언어 교육 직업 등에 대한 진단·판정사업, 의료 교육 직업재활 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계몽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등 연구개발사업, 가정방문상담 결연·의료재활서비스 병원통원 차량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사업, 무료급식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은 불모지와 다름없는 충청지역 불교사회복지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 불교언론인회 부산-대구지부 발기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9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지부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또 대구·경북지부도 25일 대구 서봉사에서 발기모임을 가졌다.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 부산지부 창립발기모임에서 이진두(부산일보 논설위원)준비위원장은 "부산지역의 불교언론인회 창립을 통해 불교외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하순에 창립 예정인 한국불교언론인회 부산지부에는 MBC, KBS, PSB, 부산일보, 부산매일 등 부산지역 언론인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대구·경북지부도 9월 25일 이성순 대구불교방송국 총괄국장, 최학봉 대구광역일보 편집국장 등 언론인 15명이 발기하고, 대구·경북 5개본사 주지스님, 사암연회장 원명스님, 최동원 대구신도협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대구·경북지부는 31일 창립법회를 갖는다. 김원우·천미희 기자 (wwkim@buddhapia.com)

## 뉴스 & 뉴스

### 노숙자 추석 합동차례

교계 실직자 노숙자 복지시설과 사찰들이 추석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합동차례상을 마련했다.

서울 영등포보현의집(소장 일화스님)은 추석연휴에 고향을 찾지 못한 노숙자들을 위해 5일 합동차례상을 차렸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스님)의 노숙자 쉼터 청담 광명의집도 5일 24명의 노숙자들에게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합동 차례를 올렸다.

이밖에 서울의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구룡사를 비롯해 경기도 석왕사와 광명선원, 강원도 성불원 등 주요 사찰에서도 불우이웃을 위해 추석날 합동차례상을 마련했다. 김재경 기자

### 복지장관 보현의집 방문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30일 노숙자 보호사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수송동 보현의집을 방문했다. 김재경 기자

### 불자련 행자부장관 표창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98 수해복구 자원봉사 유공단체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 8월 서울·경기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공이 인정되는 개인 4명을 포함, 수해 발생 직후 '재해극복 범시민연합'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쳤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9개 단체에 수여됐다. 김재경 기자

### 실천승가회 6돌 정진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1일 파주 보광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식과 추계 정진도량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화스님은 "94년 당시 개혁정신을 이어 제2의 개혁과 정화를 이룰 기치를 내보이자"고 말했다. 또 지선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임함에 있어 법맥, 학연, 지연을 떠나 반성과 초월의 자세로 우리 스스로가 종단의 내일의 희망을 담보한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모아 보자"고 강조했다.

이번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6주년 기념식은 지난해까지 청화스님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고 본회 창립멤버인 지선스님이 총무원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열린 행사여서 관심을 모았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불교TV 가을개편 연기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9월28일로 예정돼 있던 가을 개편 방송을 26일로 연기키로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제6차 불교TV 주식공모'에 전 사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준비기간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조치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 목탁소리

강 지 연 〈취재2부 기자〉

### '건칠지불' 논란

공동제작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29일 제2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인 상기호씨의 '건칠지불'에 대한 시상은 예정대로 실시됐지만 시상식장은 예상대로 썰렁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대통령상을 대신 수여했던 장관급 인사,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모두 불참했고, 옻칠전문가 한지공예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에서는 불상의 손부분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등 단독제작도 아닐 뿐더러 옻칠과 금도금을 한 이상 지공예가 아닌 칠공예분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상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통공예인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수상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수 전통공예인들의 등용문이며 불교공예인들의 빼어난 기량을 볼 수 있는 전승공예대전이 지난해에 이어 잇달아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보는 마음이 안타깝다. 더구나 고려시대 이후 맥이 끊겼다는 '건칠지불' 복원이라는 큰 경사에 대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시비에 휘말려 불교계로서는 착잡한 기분이다. 몇백년의 단절 끝에 재현된 건칠지불의 의미가 계속된 시비로 퇴색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앞으로 '건칠지불' 제작자가 옻칠과 도금을 시연하겠다니 시비가 가라앉을지 두고 볼 일이다.

'건칠지불' 제작 논란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한평생 외길을 걷는 장인이라면 자신의 작품이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게 온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의 도움을 받았다면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보는 무슨 짓을 해서든 상(賞)을 타겠다는 욕심이나 단순히 손기술만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인식시켜주고 있다. 또한 전승공예대전 주최측은 전문성을 보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뒷말이 없게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상의 손 부분을 다른 사람의 제품을 갖다쓰는 일이 관행이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규정상의 명확성도 이번에 보완해야 한다. (jygang@buddha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초일류 종합건설 - 효성건설

## 완벽한 佛事를 위한 사부대중의 염원

# 효성건설이 열어갑니다



사람,자연,기술이 하나되는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
효성건설이 열어가겠습니다.

고객 최우선 발라분화를 도입한 효성건설은 고객제일주의 및 [illegible]
발전한 A/S로 고객 속의 건설 전문회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건설은 대형토목공사,환경분야,SOC사업 및 해외건설부문 등의
다각화로서 세계의 효성건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자연,기술이 하나되는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
효성건설이 열어가겠습니다.

시공중인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의
상량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준공되는 그날까지 협력업체
모두 한마음이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조감도

효성중공업(주)건설부문
효성건설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illegible] TEL. 03)3470-46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공사 참여 업체

- 잡철공사 한림공영(주)
- 타일공사 화목건설(주)
- 설비공사 새운설비(주)
- 창호공사 (주)원도우하우스
- 목재창호공사 성심에공원
- 수장공사 (주)담파
- 동기와공사 풍진상사
- 구조물공사 (주)영림건설
- 석공사 태동산업(주)
- 마루판공사 (주)새일프렉스
- 전기공사 국제전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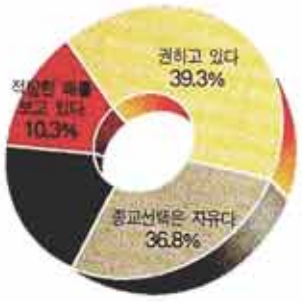
## 가정법회에 대한 설문

우리나라 경제가 IMF 체제에 편입된 이후 가장 기본적인 도량인 가정마저 흔들리고 있다. 가정이 온존하지 못하면 사회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다행히 불교는 위기의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가정법회는 가족 모두가 불보살의 가르침을 공통된 귀의처로 삼아 가족화합은 물론 위기극복의 에너지원이 된다. 본지가 창간 4주년기념 특집으로 기획한 '가정법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가족불자화로 화목한 가정 만들자"

불자들은 가정화목(41.0%)과 어려움을 극복(34.1%)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부화합과 자녀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불자들도 각각 13.5%, 11.4%로 나타났다. 또 87.5%에 이르는 불자들은 불자가정임을 알게 하는 불교용품이나 법구를 가정에 장엄하고 있어 불교가 가정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삶의 좌표로서뿐만 아니라 IMF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봉행하면 가족간의 대화부재는 물론 실직, 실업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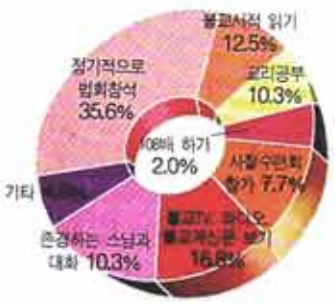


가족에게 전법을 하나

이번 조사에서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가정은 10곳중 2곳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불자들 중 절반 가량인 45.6%가 불규칙하게 봉행하고 있어 아직 가정법회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법회 횟수는 매일 26.5%, 매월 20.6%, 매주 7.3% 순이었다. 봉행 장소도 불단이나 성물 앞이라는 응답이 22.1%에 그쳤다. 법사를 초청(16.2%)하거나 법회 때 보시금을 만든다는 가정도 44.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 불교 믿음 가정생활에 큰 도움

## "가정화목" 41% "어려움 극복" 31.4%



가족불자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그러나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찰법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48.5%로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31.5%) 높아 전체적인 신행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가정법회를 봉행하지 않는 불자들중 53.0%가 그 이유를 절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23.3%의 응답자들은 가정법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해 가정법회에 대한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단에서 발행하는 의식집에는 일상 예불 및 가정 기도 등을 싣고 있으나, 가족법회 봉행을 권유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아울러 불자들의 가족불자화에 대한 소극성도 가정법회 미활성화의 이유로 꼽힌다. 가족구성원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가정법회를 봉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2%나 되지만, 불자들은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전법과 관련해 종교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림 · 박구원

(36.8%) 적당한 때를 보아서 전법할 생각(10.3%)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교귀의를 권하고 있다는 불자는 39.3%에 머물렀다. 가족중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자들이 55.8%에 이르러 가족불자화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자가정임을 알게 하는 불교상징물을 집안에 장엄하는 불자가 90%에 가깝고, 가정법회는 봉행하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 수행을 하는 가정도 절반을 넘어 가족불자화에 대한 소극성 탈피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수행의 방법은 108배 절하기(12.8%), 참선(10.8%), 독경(10.5%), 염불주력(10.0%)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족불자화를 위해 35.6%의 불자들이 정기법회 함께 참석을 꼽아 불교의식을 직접 경험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음으로는 불교TV, 라디오, 교계신문 이용을 선호했다. 이는 이들 매체가 갖고 있는 흡인력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매체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불교서적 읽기, 존경하는 스님과의 대화, 교리공부도 중요한 전법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 이전과 비교해 절에 가는 횟수

## 불자가정 10곳중 2곳만 가정법회

## "대화부재-불안극복 더없는 처방"

우리 경제가 IMF체제에 편입되기 이전과 비교해 절에 가는 횟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거의 차이가 없다(74.6%)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줄었다(9.4%)보다 더 자주 간다는 불자들이 13.4%로 약간 높았다. 외부 환경 변화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법회를 안보는 이유

절에 가는 횟수가 줄었거나 아예 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의 여유가 줄어서(66.7%), 시주금이 부담돼서(33.3%)라고 응답했다. 특히 절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 연령층이 40대로 나타나 IMF에 따른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가 40대임을 짐작케 해준다.

불자 10명중 1명은 종교가 다른 가족과 간혹 대화중 어색함을 느끼거나(11.7%), 다툼에 이르는 경우를 경험(2.0%)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로 인한 가족내 불화가 아직은 적은 수치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5일 동안 서울·경기지역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과 불교단체 활동을 하는 불자 351명(유효설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내용 22면〉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주)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X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에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02)3443-7851~5 · 02)555-1567~8

주식회사 아리 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02)3443-7891~3 · 02)555-1567~8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02)3443-5155~6 · 02)555-1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8-9(정석빌딩3층) 대표이사 김 기 상



# 4 현대불교 창간 4돌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가정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실직가정 가운데 20%가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다는 통계다. 부처님께서는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고 말씀하셨다. 가정법회는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는 의식이다. 가정법회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법회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가정법회는 이렇게

### 시간을 짧게 기복조심 참선시간 갖는게 효과



심산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장〉

가정법회가 생활속에 바람직하게 정착된다면 여러가지면에서 가족들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안함과 안정을 주는 가정은 모든 생활을 하는데 있어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준다. 부처님법에 의지, 마음을 밝히고 겸허해진 마음으로 생활에 임한다면 불법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가정법회는 기존 법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법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법문이 따로 없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참선시간을 갖는게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법회는 특히 젊은 부부층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들이 어릴수록 가족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분위기를 모아갈 수 있고 가정법회를 통한 신행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법회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융화하는 길을 제시하고 생활속 불교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가정법회가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데 반해 우려점 또한 있다. 가정법회가 기복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맹신적인 개념으로 대학입시를 위해서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 가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가정법회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 모두가 부처님 법에 귀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밝혀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복을 비는 소극적인 신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 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가족 대화형식 법회를



백남석법사 〈대불련 지도법사〉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 도량이다. 그런데 대부분 불자들은 마음으로 항상 법회를 보고 있다며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가정법회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자들이 '마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사찰법회의 방식을 가정법회에 똑같이 도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정법회는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전체적인 법회시간도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회는 예불문, 반야심경, 참선, 사홍서원 등으로 의식적인 부분은 가능한 줄이고 많은 시간을 가족들간의 실생활이야기를 듣는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물론 가장이 사전에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법회자료 준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자리가 익숙해지면 차츰 불교적 소재를 대화의 주제로, 큰스님들의 법문테잎이나 비디오 등을 보고 듣는 법회 형태로 해야 한다. 또 한달에 한번정도 사찰을 탐방하거나 대중법회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도 가정법회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밖에도 가정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습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가족이 모두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인 아침식사에서 공양게송을 읽는다든지 간단한 기도문을 작성해 독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가정법회 탐방 전봉수씨 가족

### 5년째 아침 1시간씩 온가족 모여 삼독녹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신 자비심의 다라니를 열어 청하옵나니…."

매일 아침 서울 용산구 보광동 김경자씨(47)의 안방에서는 남편인 전봉수거사(50)의 힘찬 목소리가 새 날이 시작됨을 알린다. 5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있는 전씨가족. 〈천수경〉으로 시작해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게〉 〈화엄염송〉과 관세음보살과 광명진언도 108번씩 염송한다. 그런다음 가족과 주위사람들을 위해 축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앞날을 위한 발원도 마음속으로 새긴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약 1시간이 금방 지난다.

김씨는 목욕탕 운영을 위해 새벽부터 바쁘고, 전씨는 사업으로 큰딸 재연양(23)은 졸업연주 준비로, 둘째딸 민정양(20)과 막내 상현군(17)은 계속되는 학업으로 다들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런가운데서도 틈틈히 가정법회에 참여한다. 그래도 시간이 없어 참석하지 못했을때는 각자가 자신의 생활속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일일수행원칙이다.

전씨가족의 가정법회는 전씨부부가 함께 봉은불교대학 야간 6기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부인 김씨의 권유로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후 남편인 전씨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100일 기도법회를 한것이 자연스럽게 가정법회로 이어진 것. 처음 시작할때는 방법을 몰라 무작정 한가지 경전을 정해놓고 지극정성으로 계속 읽어나갔더니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부부가 함께 법회를 시작하자 아이들도 자연스레 감화돼 이후 지희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잔소리없이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게되고, 믿고 맡겨두었더니 부처님 법대로 되어나가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며 가정법회의 효력을 김씨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올 여름에는 운영하는 목욕탕에 약간의 화재도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가족이 일심으로 기도정진하며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갔다.



◇전씨가족은 가정법회를 통해 안정되고 살맛나는 하루하루를 가꿔나간다.

전씨는 "요즘같은 경제불황시대에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가정법회로 집안이 항상 편안하니 그만큼 남들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사업을 하다보면 번잡한 일도 많고, 탐심과 진심도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때면 스스로 알아 그 마음을 버릴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낸 전씨가족은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회를 통해 살맛나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면서 "현생에서 극락을 살기위해서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가정법회를 실천해 보기를 여러불자들에게 권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 상담전화에 나타난 위기의 가정

### 실직자 20% 이혼-별거

#### "어려울수록 가족은 합심해야"

가장의 실직 등 IMF 한파로 인한 결손가정이 늘고 있다.

자비의 전화에 경제적 이유로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상담자가 IMF 이후 꾸준히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는 월 15명선, 8~9월에는 2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능인선원의 복지상담실, 불광사의 바라밀상담실등 교계 10여개 상담전화에도 실업문제가 높은 비중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담자도 청소년 주부에서 남성 실직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더욱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여야 생활할 수 있는 30~40대가 실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지역 실직자 6백96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실직가장 5명중 1명(19%)이 이혼이나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직가정의 경우 월평균 가계적자가 22만원으로 거의 도탄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실직자 6.7%는 자녀양육을 감당할 수 없어 부모나 친척,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실업은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부상했다. "어려울수록 가족이 합심해야만 가정을 지키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담자들의 도움말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 가정법회 설문내용

1. 가족 모두 불자입니까?
①그렇다 68.1%
②부부만 13.4%
③아내만 7.1%
④남편만 3.7%
⑤아이들만 0.6%
⑥무응답 7.1%

2.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법을 하고 있나?
①권하고 있는 중이다 39.3%
②적당한 때를 보아서 할 생각 10.3%
③종교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36.8%
④무응답 13.7%

3. 가족불자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①정기적으로 법회 참석 35.6%
②불교서적 읽기 12.5%
③불교교리 공부 10.3%
④108배 하기 2.0%
⑤사찰수련회 참가 7.7%
⑥불교TV, 라디오, 신문 등을 보고 듣기 16.8%
⑦존경하는 스님과의 대화 10.3%
⑧무응답 4.8%

4. 가족중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가족간의 마찰이나 불화가 있나?
①없다 24.8%
②서로 간섭 않는다 55.8%
③간혹 대화중 어색해진다 11.7%
④자주 의견교환하며 서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5.7%
⑤다툼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0%

5.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점은 무엇인가? (복수 응답)
①부부화합 13.5%
②가정화목 41.0%
③자녀교육에 보탬 11.4%
④어려움 극복 34.1%

6. 식사 때마다 공양게 혹은 합장을 하나?
①한다 34.0%
②안한다 35.8%
③집에서는 하지만 외식 때는 안한다 1.7%
④불규칙적이다 25.6%
⑤무응답 2.9%

7. 가족이 함께 하는 수행은?
①참선 10.8%
②새벽예불 5.4%
③독경 10.5%
④사경 4.6%
⑤108배 등 절하기 12.8%
⑥염불주력 10.0%
⑦없음 19.1%
⑧무응답 26.8%

8. 불자가정임을 알게 하는 불교용품이나 법구가 있나?
①있다 87.5%
②없다 10.5%
③무응답 2.0%

9. 불교상징물을 집안에 장엄하는 이유는?(8번 질문에 ① 응답자 중)
①신앙적 상징으로 볼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한다 64.1%
②가피를 바라는 마음에서 14.0%
③특별한 뜻없이 분위기상 장식용으로 5.4%
④이교도의 전도 방지 위해 10.5%
⑤무응답 6.0%

10. IMF 이전과 비교해 절에 가는 횟수는?
①더 자주 간다 13.4%
②거의 차이가 없다 74.6%
③줄었다 7.7%
④많이 줄었거나 아예 가지 못한다 1.7%
⑤무응답 2.6%

11. 줄었다면 그 이유는? (10번 질문의 ③, ④ 응답자 중)
①시주금이 부담되서 33.3%
②시간의 여유가 줄어서 66.7%

12. 늘었다면 그 이유는? (10번 질문의 ① 응답자 중)
①부처님께 의지해 용기를 얻기 위해 40.4%
②시간의 여유가 늘어서 6.4%
③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53.2%

13. 가정법회를 봉행하십니까?
①한다 19.4%
②안한다 80.6%

14. 가정법회를 보는 횟수는? (13번 질문에 ① 응답자 중, 18번까지는 가정법회를 보는 사람에 한함)
①매일 26.5%
②매주 7.3%
③매월 20.6%
④불규칙하게 45.6%

15. 가정법회 봉행 장소는?
①불단을 만들었다 7.4%
②불교성물 앞에서 14.7%
③거실에서 33.8%
④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44.1%

16. 법사를 초청하는가?
①초청한다 16.2%
②초청 않는다 83.8%

17. 가정법회 때 보시금을 만드는가?
①그렇다 44.1%
②아니다 55.9%

18. 보시금의 사용처는? (17번 질문의 ① 응답자 중)
①사찰에 시주 53.3%
②복지시설에 보시 36.7%
③불우한 친척에게 전달 10.0%

19. 가족이 함께 절이나 법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①매주 1회 이상 17.6%(3.4)
②매월 1회 이상 30.9%(6.0)
③수시로 29.4%(5.7)
④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특별한 날에 22.1%(4.3)

20. 가정법회를 안보는 이유는? (13번 질문에 ② 응답자 중, 21번까지는 가정법회를 안보는 사람에 한함)
①절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41.7%
②필요성을 못 느낀다 11.3%
③잘 몰랐다 23.3%
④가족구성원 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15.2%
⑤가족 모두 모일 기회가 없어서 8.5%

21. 가족이 함께 절이나 법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①매주 1회 이상 10.3%
②매월 1회 이상 21.2%
③수시로 20.1%
④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특별한 날에 40.6%
⑤기타 7.8%


##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

# 조계종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릅시다.

**- 총무원 간부, 교구본사주지등 주요 공직 소임자 스님들은 금번 선거운동에 엄정중립을 지켜야만 공정선거가 될 것입니다. -**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 협의회(이하 공불협)'**는 지난 9월 23일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와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종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이번선거가 조계종단의 중흥과 화합을 일구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한가위 연휴를 전후하여 우려할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자칫 선거과열로 종도분열사태로 인한 국민의 지탄을 우려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조계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본사주지등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종무원은 엄정중립자세로 이번선거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이번 선거과정에 각 후보자들 및 교계 유관단체들에게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중선위의 지적대로 이번 선거가 청정승가가풍을 유지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중앙종무기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믿습니다. 현 송월주총무원장스님의 출마가 공공연하게 회자화되고 있는 지금,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의 핵심은 중앙종무기관의 엄정한 중립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종무원들이 이번선거에 공평무사한 모습으로 임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종무원 개인의 선택은 자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편파적 언행은 공정선거를 해칩니다.**

국가의 선거도 관권개입으로 부정탈법선거가 되어 당선 이후에도 정통성의 시비에 항상 휘말리게 됨을 누차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본사주지스님등 주요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과 재가종무원들이 이번 선거에 엄정중립을 선언하기를 부탁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느 분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 최근 일부 후보를 겨냥한 추대위원회 등 각종 명의의 광고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며, 불법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후보추대위원회 명의로 홍보행위를 하는 것은 종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현 송월주총무원장스님은 과열혼탁선거 소지를 자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마예정 스님들 자체진영부터 선거를 과열, 혼탁으로 몰고 갈수 있는 움직임을 자제해주기를 바랍니다.

**-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인 보도자세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사의 역할은 실로 지대합니다. 편파적인 보도와 광고게재거부는 천만불자의 알 권리를 막는 행위이며, 언론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는 행위입니다. 최근 불교신문은 특정 '후보추대위'명의의 광고를 게재하면서도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단체의 광고게재는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교신문은 종단기관지로서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예정자들이 공정선거, 종책 선거확립에 최선의 자세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 종도들의 피끓는 의지로 이룩한 개혁회의의 참뜻을 되새기며, 상대비방, 괴문서 유포, 음해성 투서, 금품향응제공, 줄세우기등 비승가적, 세속적 선거방식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종책제시 등 불교중흥의 비젼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42(1998)년 10월 8일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02-720-6564)**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법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석담,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외 23개 불교시민'사회'신행단체

**■제보■ 받습니다.-** · 금품,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행위 · 중앙종무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 불법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 자기종교 바로 믿을때 타종교 이해

4 현대불교 창간 4돌

「종교화합모색」 지상좌담


월주 총무원장


지덕 한기총회장


조정근 교정원장


김몽은 신부


최근덕 성균관장


김광욱 교령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화합은 종교인의 건전한 생활은 물론 국민 화합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을 파괴하고 타종교의 교리를 비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인과 행정관료들까지 편향된 종교관을 드러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나의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종교윤리마저 지키지 않은 결과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4주년을 맞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의 대표자들을 통해 종교화합을 위한 길을 모색해 보았다. 각 대표자들에게 문서를 통해 질문하고 그에대한 대답을 좌담 형식으로 꾸몄다. ▲조계종 월주총무원장 ▲유교 최근덕성균관장 ▲천주교 김몽은신부 ▲개신교 지덕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천도교 김광욱 교령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이 참여했다.

**▲월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야 말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경제상황도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확산되면서 자초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지금의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덕:** 유교의 경전에는 "물(物)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事)에는 시작과 끝마침이 있다.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뒤에 해야 하는가를 알게되면 도(道)에 가까울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이 바로 서고 윤리도덕이 올곧게 되면 정치경제는 저절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윤리 도덕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것이 종교의 몫이 아닐까요.

**▲지덕:** 결국 진정한 참회를 통한 자아의 변혁과 소외된 자를 구휼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몽은:** 그동안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며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함께 해 국난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종교가 먼저 화합할때 국민의 통합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로 지도층을 중심으로한 화합의 노력이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서로를 이웃 종교인으로 인식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화합적인 종교문화 정착에 힘써야 겠습니다.

**▲김광욱:**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에 앞서 각종교의 종파안에서도 진정한 화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화합을 선도하기 위한 종교계의 화합을 위한 종단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정근:** 일부의 비관론자들은 종교화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편협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합께 추구하는 진리란 막힘이 없는 것이라 서로 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미움과 다툼보다는 자비와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화합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타종교에 대한 훼방 보다는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비종교적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그 울을 넘어서서 종교적 본의가 이 사회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나타 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김몽은:** 매우 올바른 지적입니다. 종교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시하는 편협한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전에 교황 바오로 2세는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씨앗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인은 다 함께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최근덕:** 물론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에 뿌리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움으로 흐르게 되지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신자들이나 극단론자들은 자기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 교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단배척이란 것도 결국 자기 중심을 잃은 결과인 겁니다.

**▲월주:**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거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한적인 상황인식으로는 종교간의 화합은 요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 내부에서도 종교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각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모아 발표하거나 시기별로 각 종교별 실천 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세미나 개최와 각 종교간의 수행체험, 현안에 대한 해결책 공동모색등의 활동을 통해 종교인 통합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삼소회의 비구니스님들과 수녀님들 정녀님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종교 성직자들의 화합노력은 극명히 보인다 하겠습니다.

**▲김광욱:** 그러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많은 선언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당면 과제인 종교화합을 위해 공동된 의지를 모아 선언문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덕:** 좋은 말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정근:** 그러나 일시적인 선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그마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위한 종교지도자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주:**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대한 훼손 범죄는 어떻게 해서든 근절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역시 종교간의 협력을 통해 기울여야 할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조계종에서는 이와관련된 법안의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 약현성당 소실사건이나 제주도 원명선원 파불 사건을 보며 성소나 성물의 파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시설물은 예배와 공경의 신성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의 경우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광욱:** 종교의 본분은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인도하는 것인데 법령을 만든다면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 질 것입니다. 법령의 제정에 앞서 종교지도자들이 차원 높은 대화와 지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지덕:** 현 법령에 의해서도 남의 재산에 훼손을 가했다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또 법령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을 초월한 종교인들의 이해와 화합정신의 강화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몽은:** 이웃 종교의 시설물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가 일어나는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비정상적인 한 개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할지라도 소속된 종단의 반성과 사과가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이전에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종교문화란 방파제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종교는 그 사회에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보여 주고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법률적인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덕:**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종교 언론은 우리사회가 다종교 사회란 점과 소속 종교의 교의속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랑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도 부지런히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정근:** 그렇습니다. 종교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객관적이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종교의 교리를 문제 삼는다거나 타종교단체를 비방하는 태도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언론인들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신앙하는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양보가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소망이라면, 나 자신의 안정과 행복은 나의 가정, 사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을 깊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한 민족으로서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덕:** 동감입니다. 타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노력하고 타락한 현실에 대한 종교인들의 일차적인 반성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종교지도자들은 사회의 건전한 정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공동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욱:** 종교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종교가 신도들에게 타종교의 교리나 신앙방법등을 소개함으로 이해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공통 인식과 참여의지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몽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타종교를 이해 시킨다는 측면에서 타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각 종교 성직자들이 가끔 자리를 같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신도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 세미나, 공동바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21세기와 제3밀레니엄이라는 열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조정근:**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바르고 참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거나 편협한 태도로 경전(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힘을 합해 일을 하려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도들이 각자 신앙생활에 충실하면서도 대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실천으로 성숙되어 자연스러운 종교화합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최근덕:**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종교의 이해와 화합을 위해서는 우선 자기 종교의 근본 교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이나 대화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 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내세워 누구나 개종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월 주** "남의 믿음 내 믿음만큼 소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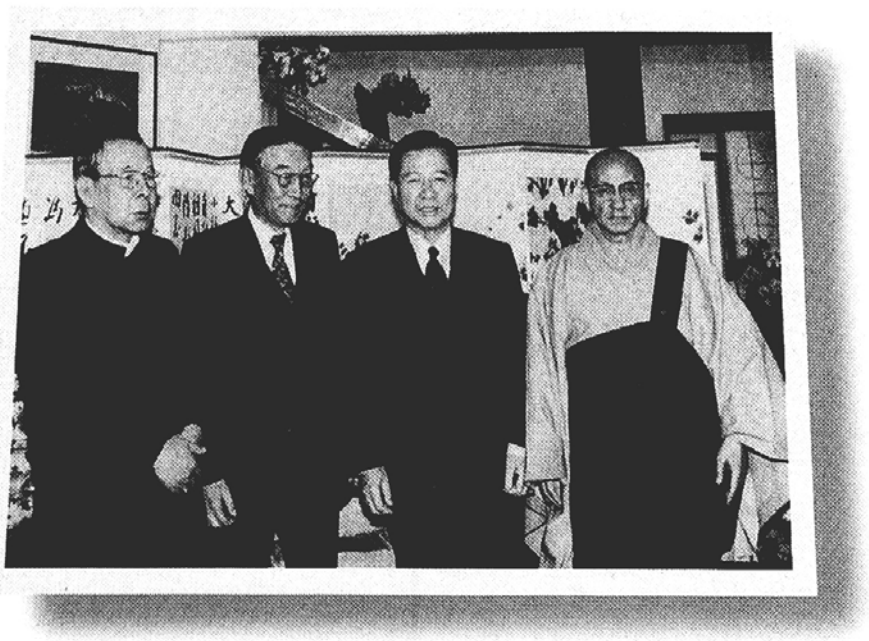
**지 덕** "대 사회 종교역할 공동 모색"

**조정근** "서로의 장점 수용하는 자세"

**김몽은** "자기 종교만 내세우면 편협"

**최근덕** "종교간 대화의 시간 더 많이"

**김광욱** "신도에게 타종교 가치 교육"

김대중 총재는 대통령 당선직후 일산 자택으로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송월주 총무원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집권 후 구상을 가다듬었다.(1998년 1월 14일)

한국을 이끄는 사람들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
불교계에는 월주스님이 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후보 추대위원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42 관훈 B/D 1101호 전화 (02) 739-6092-3

4 현대불교 창간 4돌

# 인터넷 불교사이트

정보사회가 급속화되면서 중중무진연기의 인드라망을 입증하는듯 정보의 보고인 터넷에는 무궁무진한 자료가 널려 있다. '야후' '인포식' 등 주요 검색사이트에 검 되는 불교관련 사이트는 수천여개. 한국에서 제작한 불교사이트도 1백여개가 넘는 . 너무 많은 사이트가 있다보니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에 본지는 인터넷 불교 사이트의 조회 빈도를 조사하는 달마링과 인포식의 분석을 대로 불자네티즌이 자주 찾아가는 불교사이트 총 3백여개를 선정했다. 불자 네티 들의 인터넷 불교 사이트 항해를 돕기 위해 논문, 경전, 교리, 출판, 예술, 지역불 의 다양한 소식 등을 전하고 있는 주요 불교 사이트를 색인화 했다. 〈편집자 주〉

### 국내 종합불교정보센터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다피아 | www.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 불교도서, 한마음선원, 불교단체 및 사찰 |
| 다랜드 | www.buddhaland.co.kr/ | 불교문화, 불교학, 불교예술, 정진도량등 등국대불교대학 제공 |
| 드라넷 | indra.indranet.net | 해목스님 제공, 한글경전, 논단, 포럼, 마야마 명상여행 |
| 교정보센터 | www.buddhism.or.kr/khsc | 불교 전화번호부, 불교 출판, 불교신문 · 주간불교신문 제공 |

### 국내 불교신문 및 방송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대불교신문 | news.buddhapia.com | 신문 보기, 불교사이트 · 사찰 및 불교단체 소개 |
| 불신문 | www.bulgulsa.or.kr/~pubpo | 불국사 홈페이지 아래 소재 |
| 교방송 | www.bbsfm.co.kr | 불교인물, 사찰, 불교상식, 역사, 불교전화번호부 |

### 국내 사찰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도사 | net-in.co.kr/sovin/ | 통도사와 부속 암자, 선화모음집, 원간 〈등불〉 |
| 태종 삼귀사 | www.samkwangsa.org | 전태종 교리, 법종, 천도재 안내 |
| 중중 법운사 | www.cybertemple.org | 외상조사법성계, 반야심경 한글반역본 |
| 광사 | temple.buddhism.or.kr/songkwang | 16국사 등 송광사의 역사, 화두암산법, 방장스님 법어 |
| 지사 | users.unitel.co.kr/~bul0891 | 신라 지눌장 아도화상 때 창전된 직지사 소개 |
| 심정사 | blue.nowcom.co.kr/~ansim | 불교관련 자료를 한 · 영문으로 제공 |
| 국사 | www.bulgulsa.or.kr | 불국사와 석굴암 |

### 국내 불교문화재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처님의 땅 경주 | www.dacom.co.kr/~jhsl | 경주지역 유물 유적, 국립경주박물관 |
| 화유산의해 조직위 | www.netsgo.com/dapsa | 유적지 소개 및 교통편 안내 |
| 립중앙박물관 | www.museum.go.kr | 박물관 안내, 유물 정보 및 현황, 인명정보 |
| 국의 문화유산 | members.tword.net/htwolf/ | 한사찰의 기원과 의미, 불상, 법구 등이 다양하게 소개 |
| 지 | chongju.co.kr/jikji | 직지인터넷박물관, 직지 찾기 운동 |

### 국내 불교단체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한불교조계종 | www.buddhism.or.kr | 조계종 사찰 안내, 불교행사 및 이벤트 소식 |
| 우누리부처님마을 | blue.nowcom.co.kr/~nowbud | 불교공부방, 기획특집, 불교소식 |
| 산불교재비원 | home.taegu.net/~bwbanb | 불교사회복지단체, 월간 큰수레, 불교경전연구실 운영 |
| 고향기쁨계 | anu.andong.ac.kr/~leejm/sweet/ | 법정스님이 맑의한 순수시민운동단체 |
| 명나눔실천회 | www.lisa.co.kr | 불교장기기증 및 화장 운동, 월간 소식지 |
| 기 | www.hallym.ac.kr/~sdjeong/san.html | 정평시 등 춘천지역 사찰 · 단체 소개 |
| 무도 | blue.nowcom.co.kr/~ylmh/sonmudo.html | 불교전통무술, 선요가, 봉술, 검술 |
| 국불교사회교육원 | kbsc.buddhism.org | 기초교리 및 경우 문화 소개, 복지활동 |
| 린이지도자연합회 | www.chollian.net/~bulkook | 조계종 포교원 산하 단체 |
| 민족서도불기불교운동본부 | blue.nownuri.net/~kbsm/ | 북한 기아 돕기 캠페인 |
| 니텔불교동호회 | forum.unitel.co.kr/bud | 불교상식 및 법도, 사찰 정보 |
| 토회 | ns.jts.or.kr | 바른, 쉬운,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수행공동체 |
| 국정화동일불교협의미주본부 | soback.kornet.nm.kr/~oneKorea/ | 평불협 미주본부의 활동상 |
| 국불교문사수 | 129.254.110.20:8080 | 불교의 근본 가르침, 경전공부, 수행 및 생의 의문 질의 · 답변 |
| 이텔불교동호회 | www.hitel.net/~k2bud | 불교소식, 토론 |
| 대한국불교회 | www.ksgi.or.kr | 국제참가학회 한국불교회, 화강신문 제공 |

### 국내 불교미술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림아불교박물관 | www.moka.or.kr | 불교미술 · 민속관계 유물 전시 |
| 월성스님 등승전 | gallery.buddhapia.com | 원성스님의 선화 |
| 호암미술관 | www.hoammuseum.org | 불교미술품 전시 |
| 불교예술 | www.chollian.net/~shift200/ | 달마, 병풍감상 |
| 화엄의세계 | www.munhak.com/mandala/leechul1/leechul1.htm | 사이버 성지순례, 불교사이트 추천 |
| 소리하나 | www.munhak.com/mandala/leechul1/leechul1.htm | 이철수홈페이지 불교 판화 작품들 |
| 수안갤러리 | net-in.co.kr/sovin/suan_2.html) | 수안스님의 약력과 작품세계, 60여점의 작품 목록 |

### 국내 개인 홈페이지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혜영의 불교기초교리 | myhome.netsgo.com/sagaramudra/ |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강좌, 화두와 공안, 불교경전 |
| 월법스님 홈페이지 | galaxy.channeli.net/jb8985/ | 기초교리, 원전 소개 |
| 월진의 불교이야기 | budha.futec.co.kr | 8만4천 법문, 생활 속의 불교이야기 |
| 도신우 홈페이지 | www.Chollian.net/~Shift200/ | 달마도, 포대화상, 반야심경 등 개인 작품 |

### ●종합불교정보센터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국제불교협회 | www.buddhism.org | 지역별 주제별 색인 |
| 국제다르마넷 | www.dharmanet.org/ | 불교입문, 종합 불교정보센터, 버클리 소재(미) |
| 부다넷 | www.buddhanet.net | 종합정보센터, 란니아비로 스님이 제공 |
| 전자부다 | www.geocities.com/Tokyo/Garden/2177/index2.html | 불교교리 안내 및 불교사이트 링크 |
| 부다즘[0] | members.tripod.com/~Reverend1/east/buddhism.html | 불교관련 사이트 소개 및 링크 |

### ●자료센터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부디스트 리소스 파일 | www.io.com/~cm/index.html | 센징의 불교 자료실 |
| 정토종 자료센터 | www.fogbank.com/sbrc/ | 일본 신수대정경 및 정토종 관련 자료 |
| 티벳 낭김과계 파일 | www.jonnonarts.prestel.co.uk/ngakpa/ | 티벳불교 관련 자료실 |
| 레이브레징톤의 홈페이지 | www.geocities.com/Tokyo/6774/ | 티벳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전, 전시 소개 |
| 불교사이트 | chebucto.ns.ca/~ab006/web_buddhism.htm | 불교 포인터 파일 제공 |

### ●티벳불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불법의 유산 | www.yamama.org/manibuddha2.html | 불법승 삼보와 티벳불교의 연원 |
| KPC(KurungPahniCholing)센터 | tara.org/ | 티벳불교 연구 및 수행 지도 |
| 축복의 비 | home.earthlink.net/~thaden/ | 티벳불교의 기도, 주문, 국보, 경전, 교리 |
| 끝없는 은혜 | members.home.net/lidavis/endlessknot.htm | 람루린포체가 만든 바이라바나 불교센터 제공(캐) |
| 밀라레빠센터 | www.the-spa.com/ed.strausman/mila.htm | 티벳불교 연구 및 수행, 휴식처 |
| 고요한 산 | quietmountain.com | 티벳불교에 대한 종합 안내 |
| 지혜의 파도 | members.aol.com/wisdomwave/ | 미국 달라이 라마, 닝고 크헨체 린포체 등 법어 제공 |
| 타시토비엘 랩사이트 | wkweb6.cableinet.co.uk/RickyFletcher/ | 티벳불교 |
| 계규파 | www.ulc.enta.net/buddhastuff.htm | 티벳불교 겨대 종파 계규(Kagyu)파 소개 |
| 루루랄라센터 | www.the-spa.com/ed.strausman/karukull.htm | 티벳불교 연구, 미 매사추에츠주 보스톤 소재 |

### ●불교문학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불교예술의 이해 | www.cenet.com/~rudra/mea.htm/ | 원런 와츠의 불교 · 한두교 · 도교관련 작품에 대한 이해 |
| 선과 선종유물 | freespace.virgin.net/peter.holbrook/ | 선 문학과 작가들 |
| WhatWeb'? | www.levity.com/interbeing/whatweb.html | 불교 시인들의 일생과 테마들 |
| 자각(自覺) | hometown.aol.com/ramaweb/index.htm | 미국 전자잡지 〈자각(自覺)〉 발간 |




### ●출판사 및 전자책방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여시아문 | www.buddhapia.com/books/bookstr.html/ | 한국불교관련 서적 |
| 지혜의책들 | www.demon.co.uk/wisdom/ | 카다로그, 탐색 제공, 회원제, 런던 소재 |
| 광명의책들 | www.clearlight.com/~books/ |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포함, 우편 배달 |
| 미국위빠시나출판협회 | www.vrpa.com | 팔리텍스트 출판, 보급 |
| 다르젠책방 | www.teleport.com/~zenatst/dzbookst.htm | 선종 관련 책 다수 |
| 불교가상도서관 | www.cnolek.com/WWWVL-Buddhism.html | 불교종합정보 및 불교학 관련 문헌 |
| 네덜란드불교센터 | www.buddhayana.nl/index2.html | 불교소식 및 출판, 링크 |
| 인터넷을 넘어 | www.lanka.com/dhamma/ | EPS에서 제공하는 불교서적, 기타 불교자료 |
| 핀포메이션 | www.zenformation.com/ | 불교 및 불교심리학, 불교철학 등에 관한 도서 · 논문 |

### ●해외 한국불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관음선원 | www.kwanumzen.com/utle.html | 하계사 조실 숭산스님이 지도 |
| 부분관 선센터 | atlantic.net/~gateless/ | 관음 선원에서 만듦 |
| 한국전통선 | sungag buddhism.org/1112.html | 한국 불교문화, 문화재 |

### ●불교대학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삼즈버그 불교대학협회 | www.sbg.ac.at/budd/English.htm | 독일 삼즈버그에 소재, 불교와 교육 |
| 중관불교센터 | www.rmplc.co.uk/eduweb/sites/madhyama/ | 유럽 최대의 대승불교 전문대학(영국) |
| 까르미파 국제불교협회(KIBI) | www.karmapa.com/k17/activity/k17-kitc.htm | 9년제 불교대학(인도 뉴델리) |
| 불교센터 | www.bremen.de/info.nepal | 네팔의 평화 전문학교 |
| 金剛乘 | www.diamondway-buddhism.org/kkbn.htm | 티벳 최대의 현교대학 |

### ●저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달마 뉴스랫드 | www.dharmanet.org/journals.html | 달마넷의 불교저널 뉴스레터 북마르 |
| 사이버상가 | www.hooked.net/~csangha | 불교 얼터너티브 저널을 표방하는 진보적인 저널 |
| 트라이사이클 허브 | www.tricycle.com/ContsCol.htm | 계간으로 발간되는 잡지, 온라인 저널 |
| Gassho | www.dharmanet.org/gassho.html | 달마넷 인터내셔널의 전자저널 |
| 북교게시판 | www.mooze.co.uk/userfiles/triplegem/home.html | 상좌부 팔교서적을 판매하는 트리플 짐 출판사 신간안내 |
| 부다자인 | www.buddhanet.net/budzine.htm | 불교 온라인 매거진 |
| 전지달마 | www.ignet.or.jp/inz/inzhtml/ | 일본 하나조노대학 제공 일본 선불교 뉴스, 전자경전, 선 예술 |
| 전지달마 불교문화잡지 | www.edharma.com/ | 티벳불교 중심 전자잡지 |

### ●불교 문화 · 예술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불교와 예술 | www.artsci.wustl.edu/~rrsouth/ | 불교예술 망라. 자연발 · 종파별 불교예술 |
| 헌팅톤 아카이브 | kaladurshan.arts.ohio-state.edu/default.html | 불교예술관련 사진 자료실 |
| 아시안 아트 | www.asianart.com/ | 관련협회, 전시회, 작품, 갤러리 안내 |
| 인사이드차이나투데이-티벳문화 | www.insidechina.com/china/tibet_culture.html | 티벳의 탱화, 건축, 의학, 조각 |
| 컴퓨터불교예술 | www.buddhanet.net/mag_art.htm | 전통 불상과 현대적 이미지 합성 |
| AoAhn | www.geocities.com/Tokyo/Garden/7519/ | 베트남 불교문화 소개 |
| 네팔현대불교예술 | kaladurshan.arts.ohio-state.edu/Nepal/nepal.html | 작품 설명 |
| 태국의 문화 | www.nectec.or.th/soc/culture/thai/2.htm | 태국의 역사와 문화 |
| EHIPASSIKO | users.orac.net.au/~diveful/chipassiko.html | 만레이지이 팔교 소개 |

### ●불교재단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대승불교유지재단(FPMT) | www.fpmt.org/ | 라마조피린포체 추종 아이타모스피스서비스, 위스덤출판사 운영(미.캘리포니아) |
| 리덴사이드재단 | www.geocities.com/HotSprings/Villa/3157/ | 티벳 수행법을 통한 자아 치유 홍보 |
| 곡첸재단 | www.dzogchen.org/index2.html | 라마 수리아 다스의 가르침을 서구에 전하는 단체 |
| 참여선재단 | www.xwinds.com.ezf/gateway.html | 지수등을 교화하고 선원을 건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 |
| 밀라레빠가큼 | www.milarepa.org/ | 비폭력 티벳독립 운동 단체 |

### ●불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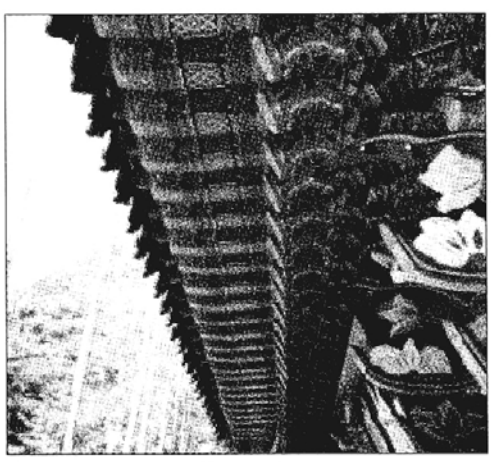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뉴질랜드불교협회 | www.uq.net.au/~zzvgunns/budsoc.html | 호주 뉴질랜드 불교협회 |
| 영국국제선협회 | www.pesky.demon.co.uk/zen/ | 일본 다이센 데시마루 선사를 추종 |
| 달마대도 | www.geocities.com/~azb/ | 뉴기에 선 협회 |
| 카규시에링 | www.samye.org/ | 서구에 세워진 최초의 티벳불교단체 |
| 국제선연맹 | www.pesky.demon.co.uk/zen/ | 영국 국제 선 연맹 일본불교 전통을 따르다 |
| 미국선연맹 | home.gnofn.org/~aza/ | 미국 선 연맹는 일본불교의 자젠(ZuZen) 전통을 따르고 있다 |
| 티벳승단 | home.earthlink.net/~seanjh/ | 미국 티벳팍교 |
| 남북태일즈협의회 | www.zip.com.au/~lyallg/ | 호주불교계 소식 |
| 벨기즘선연맹 | www.geocities.com/~azb/ | 독일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에이헤이 선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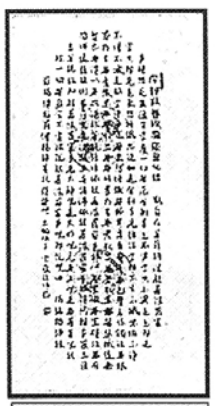
### ●인물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라마수리야다스 | www.dzogchen.org/surya/ | 라마 수리야 다스의 가르침과 서적, 테이프, 문답, 시, 사진 |
| 빅쫀의 가르침 | quietmountain.com/dharmacenters/st_johns.st_johns.htm | 러시아 라마 고빈다의 가르침 |
| 소승 닷산 | members.tripod.com/~thubert_dasan/ | 닷산 문호쇼이너 린포체의 가르침(러, 이보진스키) |
| 르슨 린포체 | www.sirius.com/~gomura/k_lingpa/ | 티벳불교 링크계에서 추앙받는 푸슨 린포체 소개 |
| 쓰린구린포체 | services.pe.net/~kml/ | 티벳불교 쓰린구 린포체 소개 |
| 폰심다시 린포체 | www.demchog.com/~benunson/ | 미국 티벳불교 대종사의 |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貢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충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인터넷 불교사이트 4

현대불교 창간 4돌

●불교건축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티벳건축과 예술 | www.asianart.com/cers/ | 티벳 건축 예술 소개 |
| 티벳건축 | gallery.sjsu.edu/Arth/Tibet/arc.html | 티벳 사원 건축을 사진과 함께 설명 |
| 사리탑 정보 | www.stupa.org.nz/ | 사리탑 건축 및 수리,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정보 |
| 불교의 탑 | www.stupa.org.nz/ | 뉴질랜드 각 국의 탑을 형태별로 정리 |

●불교미술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불교조각과 사상 | quas.qub.ac.uk/qubcu/hope/faith/bud.htm | 불상의 제작기법과 사상 |
| 티벳탱화 | www.khazana.com/thanka/thanka1.html | 티벳 만다라와 탱화 |
| 티벳 모래미술 | www.chron.com/mandala/ | 티벳 사원에 장식된 모래 미술 |
| 고양이달마카툰사이트 | www2.one.net.au/~lourie/ | 동자승 보디, 고양이 달마, 생쥐 사이쌈이 등장하는 만화 |
| 불상의 소박미 | felix.antiquity.arts.su.edu.au/~hudson/buddha.htm | 창동 불상 연구 |
| SammaÃjiva | www.samma-ajiva.com/ | 불상 연구 |
| 고도완의 만다라소개 | www.abgoodwin.com/mandala/ | 어어 · 형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만다라 의미를 설명 |
| 샴발라 티벳예술 | members.xoom.com/shambhala/buddhist_art.prints.html | 미국. 티벳불교 탱화, 장엄불 등을 전시 |
| 목불(木佛) | www.bodhibench.com/ | 미국 세계 도처의 다양한 목불을 소개 |

●불교연구소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고려대장경연구소 | www.tworld.net/~hederein | 대장경 전산화, 불교학술자료 저장 |
| 불교문헌자동화연구실 | members.tworld.net/hyemook/ | 불교경전 및 해외 불교사이트 소개 |
| 대만불학연구센터 | ccbs.ntu.edu.tw | 국립대만대학, 전자불교 장경각 |
| 콜우클리연구소 | www.the-spa.com/ed.stutsman/kurukull.htm | 미국. 조파 린포체가 설립한 티벳불교 연구소 |

●불교학술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인도철학회 | bora.dacom.co.kr/~jungss/ksspmain.htm | 학회지 논문, 인도 사상 · 문화소개 |
| 유식학 | www.uncwil.edu/people/wilson/mind-only/ | 유식학 및 불교학 연구<br>노스캐롤라이나대 종교철학과 조 윌슨교수 제공 |
| 국제원효학회 | iaws-wonhyo.dongguk.ac.kr/ | 원효학 관련 저서와 논문 |
| 영국불교학회회원 | www.sunderland.ac.uk/~os0dwe/bsa.shtml | 회장은 맨체스터대 비교종교학과 L.S.Cousins교수 |
| 중도의철학 | www.geocities.com/Athens/Forum/8062/ | 불교철학 및 심리학, 불교예술, 한두교 서적<br>불교경전, 선종어록 |
| 불교연구 | www.ciolek.com/WWWVLPages/BuddhPages/EJournals.html | 불교학관련 뉴스레터와 학술지 |
| 〈불교윤리지〉 | jbe.la.psu.edu | 영국, 미국의 불교학자들이 개설. 논문, 불교문헌 등 정보 제공 |

●불교사회봉사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선호스피스프로젝트 | www.zenhospice.org | 미 샌살바니아주 센프란시스코 소재 임종간호 봉사단체 |
| 아미타호스피스서비스 | www.stupa.org.nz/amitabha.hospice.htm |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체 |
| URL네트워크 | www.peckham.demon.co.uk/neb.htm | 일본 조동종 계열 자원봉사, 사회환동, 환경운동 등 참여불교 |
| 사랑의 공동체운동 | home.earthlink.net/~rflyer/ | 영혼의 각성을 통한 세계 변혁, 재가불교운동, 평화와 정의, 경제의 결등 |
| 보살 | www.stupa.org.nz/amitabha.hospice.htm | 뉴질랜드, 간병인회 모임 '보살' |

●참여불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영국참여불교 | www.peckham.demon.co.uk/neb.htm | 영국의 티벳불교계 단체들의 참여불교 협의체 |
| 칼라차크라 '평화지킴이' | www.kalachakra.com/Home/Home.htm | 멕시코인 인디언 등 미국 소수민족의 권리를 종호 |
| 지구승도 | www.earthsangha.org/ | 평화운동 및 환경운동 |
| 時輪장조 | www.kalachakra.com/ | 달라이 라마와 세계평화 |
| 비관적동지공동체 | www.xmission.com/~mustard/sangha.html | 미국인 재가불자 공동체 |
| 티벳망명정부 | www.tibet.com | 티벳 망명정부 기구 및 소식 |
| 가상티벳 | www.bekkoame.or.jp/~miyatani/ | 달라이 라마 소개, 도쿄의 티벳서점 및 용품점, 일본 탱화작가 |
| 불교에이즈프로젝트 | www.changesurfer.com/bud/BudBioEth.html | 무료 에이즈 치료봉사 단체 |

●불교와 인권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자유버마연맹 | www.freeburmacoalition.org | 아웅산 수지 여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
| 티벳을 위한 국제캠페인 | www.peacenet.org/ict/ | 티벳 독립 캠페인 |
| 티벳을위한국제법학사협회(ILT) | www.tibetcit.org/ | 티벳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대변 |
| 시파스에서의 선정 | www.angelfire.com/tx/cliffhammond/IntroPage.html | 멕시코 시파스 분쟁지역의 불교 |
| 불교평화협회(BPF) | www.bpf.com/bpf/ | 불교 평화, 환경, 여성, 사회적 평등 운동 버클리 CA |
| 앙굴리말라 | www.users.zetnet.co.uk/phrakhem/ang.htm | 아잔 케미드하모 경이 이끄는 영국 고도소 교회프로그램 |
| 불교와인권 전자회의 | www.gold.ac.uk/jbe/confer2.html | 회의자료. 티벳 독립선언 |
| 티벳의 국가자원등 | www.tibet.org/index.html | 국제적인 티벳지원 단체 11살인 린첸 라마 석방운동 |
|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 www.bpf.com/bpf/ineb.html | 국제적인 불교 풀뿌리민주주의 운동 |

●불교와 인접학문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선심리학 | www.geocities.com/Athens/Parthenon/6469/main.html | 선심리학 및 선 치료 |
| 티벳심리크법 | www.theflow.org/tonglen/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책방 |
| 불교와 호 토학 | www.anchor-web.com/Daku/ | 티벳정전에 나타난 천문학 자료 소개 |
| 불교와 의 학윤리 | www.changesurfer.com/Bud/BudBioEth.html | '불교와 의학윤리' 주제 저서 · 논문 목록 |
| 라트나쉬리선원 | hometown.aol.com/ratnashri/index.html | 티벳 게규파 불교의 전통 의학을 소개 |
| 항색연등 | idt.net/~daverica/ | 영국 불교와 도교를 비교 · 소개 |

●불교와 여성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선구적인 여 스승들 | pages.nyu.edu/~sw4/RaihaiWomen.html | 불교, 도교, 선종, 일본신도의 여성 스승들의 역사 |
| 티벳여성보호소 | www.igc.apc.org/dfs/ | 네팔, 인도, 유럽, 미국 등의 티벳 여성 보호소의 목소리 |
| KPC | www.tara.org | 서양 여성 최초의 티벳불교의 환생 스승 Jetsunma Ahkon Norbu Lhamo |
| 부처님의 말씀 | www.sinanet.com/sinorama/0198/english/4_1.html | 사카디타, 국제여성불자연합 |
| 티벳여성협회 | www.grannyg.bc.ca/tibet/tibet.html | 인도 소재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티벳 여성 인권 보호 |
| 티벳여성보고서 | www.grannyg.bc.ca/tibet/national.html | 티벳망명정부의 티벳여성 인권 보고서 |
| WWFT(티벳을 위해 일하는여성들) | www.grannyg.bc.ca/tibet/wwft.html | 티벳인과 캐나다 여성들이 만든 단체 |

●중국불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포카르크시사원 | www.kmspks.org/ | 싱가포르 최대의 사원 |
| 서구선협회 | www.child.demon.co.uk/wcf/ | 중국 선종 연구 단체 |
| 중국선종의 선사들 | www.geocities.com/RainForest/9392/pnboduge.htm | 소또 선의 중국 연원 연구 |
| 대승정토선원 | www.geocities.com/Tokyo/Pagoda/3570/ | 대만의 제이 베이스가 만들 홈페이지 |
| 무문관 | prairie.lakes.com/~lotush5/ | 중국불교 연구, 한역경전 번역 |
| 중국선불교교우회 | www.child.demon.co.uk/wcf/ | 미국 중국불교계 소식 |
| 법륜(法輪) | members.home.net/80/5040/ | 인도와 중국불교 소개 |

●일본불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천태의 가르침 | www.quietmountain.com/dharmaoe | 일본 천태종(센프란시스코) |
| 국제장기학회-미국 | nters/buddha.../TENDAI.HT | '남묘호렝겟쿄' 등 표방하는 미국 창기학회 |
| 일련정종 | www.sgi-usa.org | 미국내 사원인내, 논문 및 장언 일련정종 입문 |
| 정토진종 네트워크 | www.primenet.com/~martman/ns.html | 교리 및 관련 학교, 단체, 의식, 출판 |
| 중도를 따라 | www1.shore.net/~drolma/pagoda.htm | 일련의 사상과 불교 |
| 일본밀교 | www.asanan-host.org/karmagrrl/buddhism.html | 티벳 밀교 연구 |
| 선불교 | www.asianart.com/japanese-eso.enc__buddhist__studi.htm | 일본 선종 |
| 선불교의 신비성 | www.teleport.com/~zennist/zennist.html | 일본불교. 신비주의 불교 소개. 소식지 발간 |

●베트남불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선어록 | www.io.com/~snewton/zen/ | 미 휴스톤 샴발리 선센터, 틱낙한스님 추종. 참여불교 이론제공 |
| 워싱턴공등체 | langmai.org/wmc/ | 틱낙한 스님을 따르는 공등체 |
| 베트남대승불교 | www.geocities.com/Athens/8916/ | 베트남 불교 현황 |
| 타일랜드 | www.geocities.com/RainForest/2732/thay.html | 틱낙한 선사의 가르침과 글. 활동 |
| 인터비잉 | www2.gol.com/users/rah/interbeing/interbeing.htm | 워싱시나의 14단계. 베트남 틱낙한스님의 가르침과 책 |
| 밥(法) | www.dharuma.com/endex.html | 미국 부처님 일래기와 틱낙한스님의 수행법 소개 |

●불교교리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도천 승가 | www.windbell.com/ | 일본 선불교 수행법을 소개. 불교 신간 안내 |
| 불교자료 | www.pangea.ca/~christle/ | 미국. 교리 수행 등 불교일반 자료 제공 |
| 무문관 | prairie.lakes.com/~lotush5/ | 불 · 법 · 승에 대한 중국불교의 정의를 알 수 있다 |
| 부처님가르침 | www.saigon.com/~anson/ | 베트남불교 교리 체계적 설명 |
| 불교의 입장 | hawaiian.net/~dsparks/ | 미국 상좌부 대승 티벳불교 교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 위빠시나 페이지 | rdz.stor.org/lists/vipassana/ | 미국. 남방불교 관련 다양한 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다 |
| 주간 화두 | www.geocities.com/Tokyo/1195/ | 일본 현재인의 입장에서 시작되는 화두를 매주 등제하고 있다 |
| 선불교 텍스트 | www.io.com/~snewton/zen/ | 미국 휴스턴 지역 사찬 및 선원을 목록 및 불교자료 제공 |
| 아비담마 부처님 | members.tripod.com/~dharmabuddha/int.html | 티벳의 금강불교를 소개 |
| 사우라 홈페이지 | rhf.bradley.edu/~drexel/ | 부처님 일래기, 참정도, 사성제 등 기초 교리를 제공 |
| 선 사이트 | www.zensite.org/ | 미국 불교의 교리 수행 등 일반 자료 제공 |
| 재가자를 위한 불교 | www.geocities.com/Athens/Olympus/3743/ | 불교입문 |
| 학생들을 위한 불교 | www.winnipeg.freenet.mb.ca/slum/buddhism/ | 불교입문, 불교문답 |
| 불교배우기 | www.geocities.com/RainForest/Vines/7173/ | 스웨덴계 미국인이 만든 홈페이지 |

●불교센터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UT불교금강도량협 | uts.cc.utexas.edu/~diamond/ | 오윤 니탈 라마를 중심으로 한 불교단체 |
| 토론토 · 온타리오불교 | www.interlog.com/~klima/toronto.html | 캐나다 토론토 및 온타리오 지역 불교현황 |
| 만주시리센터 | www/the-spa.com/ed.stutsman/manj.htm | 미국 학교학 연구 및 수행 |
| 바이리리마불교센터 | www.vajralama.org | 제세 헬상 갸초가 조직한 불교단체 미 시에틀 |
| 마우이달마센터 | www.maui.net/~krosl/ | 람루 칸포체와 리마 텐진 등을 추종 |
| 에디슨 선 센터 | www.geocities.com/Athens/Parthenon/2432/s | 화선 위주 수행단체 |
| 휴스턴앤클리어레이크 불교센터 | members.tripod.com/~diamondway/kagyu.html | 포택사스주 소재 金剛座불교센터 |

●경전전산화 및 번역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세계불전전산화협의회 | zorba.uafadm.alaska.edu/philo/ebti/ | 주요불전 전산화, EBTI프로젝트 |
| 화이트윈드 선 공동체 | www.wwzc.org/ | 하루기제 소토의 선 수행. 중국. 티벳.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경전 번역 |
| 불교의 세계 | home3.pacific.net.sg/~aeres/ | 부다의 가르침과 경전 제공 |
| Ehi-passika | www.geocities.com/Tokyo/Pagoda/2541/ | 법구경 등 상좌부 · 팔리경전 번역 |
| 불교정경정보 | www.ville-ge.ch/musinfo/ethz/ducor/intro.htm | 캐나다 장경 전산화 소개 |
| 팔리어지료실 | transmillennium.net/pali/ | 팔리어를 가르치고 팔리어장경 전산화 소개 |
| 티벳장경 | users.planet.com/~rime/ | 티벳어장경의 원문과 해설을 제공 |
| 근본불교관 | www.fundamentalbuddhism.com/ | 미국 팔리어장경에 근간한 상좌부불교 자료를 제공 |
| 나란다불교연구소 | www.geocities.com/Athens/Delphi/1310/ | 태국 팔리어 경전 중 일부 텍스트 제공 |

●불교명상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국제명상센터 | www.webcom.com/~imcuk/welcome.html | 상좌부불교의 명상법 |
| 위빠시나 | www.vipassana.com/index.dr.html | 불교명상, 온라인 명상코스, 경전 |
| 가르침 | www.millbrook.pvt.k12.ny.us/academic/science/physics/mindful/ | 정신집중, 자비심기르기, 행복하기 |
| 직관의 집 | members.xoom.com/wisdomlight/ | 정신과 영혼의 건강 지키기 |
| 부다다르마 명상센터 | people.ee.mediaone.net/svetter/welcome.htm | 관아닌다 바루 주종, 미 시카고 인근의 불교공동체 |
| 명상라운지 | pages.infinit.net/tsungen/slinks.htm | 불교와 불교예술, 도교, 명상단체 링크 |
| BoilSprings명상지 | bsh-retreat.org/ | 자연속에서 노동, 수행하는 공동체 |
| 네개의 문 | www.fourgates.com/ | 오디오, CD, 책, 의자, 부년 등 명상관련 용품소개 |
| 마음챙김 | www.internetpsychology.com/mindful/ | 생활선등 강조한 틱낫한스님의 스챔법 소개 |
| '작은참새' 공동체 | www.instantweb.com/~sparrow/ | 부다와 성 프란시스를 따르는 평자 · 기독교인 형제들 |

●사찰 및 선원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러시아 상페터스버그 불교사원 | www.geocities.com/Athens/Academy/3528/ | 닷산 문호조이에 린포체가 소승 |
| 蓮風 | userworld.com/users/ehechi/zw.html | 미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에서 집 원순이 만든 조계종 선원 |
| 로터스사원 | www.geocities.com/Athens/Delphi/6245/ | 아빌로키테스바라의 가르침 |
| 대배찬조보선원 | pw2.netcom.com/~zenquake/chobo.html | 미 시애틀에 소재. 젠키 다케바이시 선사 주종 |
| 다콤기던텐성림사원 | www.bloomington.in.us/~dgtl/ | 인도 남루망스톨 소재 티벳 사원 |
| 캠리랜드불교사원 | samsara.law.cwru.edu/~cbt/ | 선종 사원 |
| 숲속의암자 | www.users.zetnet.co.uk/phrakhem/ | 태국의 와르 파 신비탐마란 이정의 작은 암자 |
| 보살의베타精舍 | members.tripod.com/~Arvasura/ | 원플라 리촌타의 가르침. 대승과 소승의 통합 |
| 리칭체사원 | www.interlog.com/~pema/ | 천로 소남 린포체 주석 |
| 시프러스선원 | garnet.acns.fsu.edu/~kap1877/zen.html.cypress.html | 한국불교. 숭산스님이 미국에 개원한 선원 |
| 워싱톤지역선원 | www.erols.com/childers/mgl/ | 미국 워싱톤 지역 선원 목인 |
| 보디아나라마선원 | yourname.co.nz/wwwbz/bodhanet.htm | 뉴질랜드. 아진 슈에도 등 남방계 스님 법어 소개 |
| 미국선불교정보 | members.aol.com/WGracie943/buddha.html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선원 내인 |
| 대교원선원 | members.viperlink.net.bert/PZL/Home.html | 미국 신디케고에 있는 선원 |
| 토론토불교 | www.interlog.com/~klima/toronto.html |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지역 불교 소식 제공 |
| 리칭체티벳사원 | www.interlog.com/~pema/ | 티벳승려 천로 소남 린포체가 운영하는 리칭체 사원 |
| 젠도 | www.zendo.com/ | 미국 캘리포니아에 개원한 일본불교 선원. 동 지역 불교계 활동 제공 |
| 혜수(海水)선원 | pw2.netcom.com/~hshdown/index.html |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수(海水)선원<br>지역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 소개 |
| 인디에나폴리스선그룹 | mem.tcon.net/users/5012/2121/ | 미국 인디에나에 개설된 한국불교 선원을 소개 |
| 다콤사원 | www.bloomington.in.us/~dgtl/ | 미국 티벳의 겔룩파 학교 전통을 따르는 사원 |
| 브리스톨선원 | www.lamrimbristol.demon.co.uk/ | 영국의 브리스톨 선원 티벳불교 육여람 설명 |
| 포루칸사원 | www.kmspks.org/ | 미국 중국불교 사원 대승반을 개설 위간지 '대각 사원'을 발간 |
| 금강선원 | members.tripod.com/~diamondway/kagyu.html | 미국 휴스턴에 개설된 금강선원 |
| 백룡(白龍)선원 | www.wwzc.org/ | 캐나다 일본 · 티벳 · 팔리어 장경을 영어와 불어로 번역 · 제공 |
| 아덜라이선원 | student.uq.edu.au/~s311107/azg/ | 호주 전역 선의 목록 제공 |
| 천화(天花)선원 | www.geocities.com/Athens/Acropolis/1943/ | 미국 캘리포니아 티벳불교 |
| 주이가루선원 | www.geocities.com/Tokyo/Towers/3169/ | 일본 임본불교 |
| 린젠선원 | www.neis.net/kanzeon/ | 일본불교 |
| 에디슨 선원 | www.geocities.com/Athens/Acropolis/2140/ | 미국 위스콘신 티벳불교계 티벳불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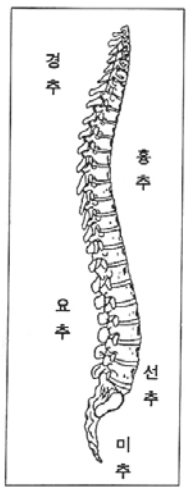
●불교토론방

| 사이트명 | 주 소 | 내 용 |
|---|---|---|
| 티벳불교 포럼 | hometown.aol.com/rlcfpodma/index.htm | 티벳불교에 대한 주제별 토의 |
| 행자 권장 | www.geocities.com/SouthBeach/Pointe/5640/ | 예절 토론 및 대화 |
| 제퍼슨 티벳공등체 | www.clas.virginia.edu/~rt5g/ | 미국 버지니아주 티벳 행자네티즌의 E-메일 주소록 소개 |

**현대불교신문사 전략정보실 '부다피아' 에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상담해 드립니다. (02)737-8881**


#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 · 법사 · 포교원운영자 · 물리치료사 ·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토굴의 효능을 살아숨쉬는 체험하십시오



●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황토 토굴 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
# 종도들에게 알립니다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 월례 모임(회장 지선)을 9월 18일 법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사회현실과 종단의 현실에 주시하여 문제점들을 토론 하였습니다. 그가운데 몇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는데 모든 스님과 종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째, 근자에 이르러 교계에 부쩍 늘어난 각종 괴문서에 대한 일입니다.** 이는 유관 부처(호법부)를 통해 해결할 승가의 내부 극복 사항으로써 종단 총무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괴문서를 남발하여 종도들에게 혼란과 갈등구조를 형성함은 물론 승가화합을 깨뜨리는 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스님들은 **괴문서 작성자와 발송자 및 이 같은 비승가적 일을 도모한 자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부질없는 행위를 도모하는 자들은 **楊於家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참회하기 바랍니다.**

**둘째, 천년고찰 통도사앞 I·C(인터체인지)는 충분히 입체교차로로 공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를 벗어난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I·C를 옮기려 함은** 통도사 대중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역 범위를 벗어난 곳에 통도사 I·C 명칭을 사용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며 이같은 일은 통도사와 사전협의 없이 당국의 일방적 계획이기에 양산시 및 하북면 전체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함께하여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당국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불자기업을 살리는데 우리모두 동참하자는 결의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됐지만 지난날에는 영세민과 어린이 · 고아원 · 불우노인들에게 무주상보시로 보살행을 해온 (주)성원기업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우리불자들은 (주)성원이 신청한 화의서가 당국에 속히 받아들여져서 경제를 살리고 사회봉사를 하는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2년 9월 18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부산진구
## 불교사암연합회

고 문 덕수 금탁 계생
회 장 혜 총
부회장 원 타
감 사 태옥 성봉
총 무 보 암
재 무 진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TEL:051-801-0781

## 해 림 사

주 지 동 림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295-1
TEL : 051-527-0677

국민회의
## 새정치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

회 장 사상호
상임부회장 김찬묵
부회장 김진석,하도종
조충제,황국근
사무국장 김영

회 원 일 동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702-9 뉴그랜드 오피스텔 1105호
TEL : 051-852-0813~4
FAX : 051-852-0815

대한불교 천태종 백양산
## 삼 광 사

주 지 박 덕 수
총 무 김 문 해
교 무 곽 수 산
재 무 정 거 호
노 전 유 대 어
신도회장 안 영 일
사부대중 일 동 합 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TEL 051-808-7111~5/FAX:051-803-1332

## 보현선원 여여정사 개금 사회복지관

선 원 장 정 여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3동 369-22
보현선원 : 051-853-5486
여여정사 : 0527-355-9290~1
복 지 관 : 051-893-5034~5

## 보 덕 사

주 지 법 인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산96
TEL : 051-518-7790

## 삼 밀 사

신 도 일 동

■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313번지
TEL : 0553-42-6531

대한불교조계종
## 천마산 해광사

주 지 석 금 종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 4-1번지
TEL : 051-253-7286
FAX : 051-256-0108

대한불교 조계종
## 문 수 사

주 지 최 지 원
신도회 지장회
인등회 관음회

신 도 회 원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TEL : 051-623-3648/624-3754

대한불교 조계종
## 국 청 사

주 지 계 전
부주지 성 만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397번지
TEL : 051-517-5003

대한불교 조계종
##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 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32-2
TEL : 051-334-3009

## 미 륵 정 사

주 지 지 암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35-48
TEL : 051-757-3118

## 청 룡 사

주 지 효 종
신도회장 양 수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85-9
TEL : 051-803-8399

## 부산선원 청정회

주 지 휴 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법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55-24
TEL : 051-516-9104

##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부설) 문화관, 시민선원
부산연꽃 어린이집
김해연꽃 어린이집
울산보리수 어린이집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6-2241
FAX : 051-806-2430

부산불교 교육대학
## 총포교사회

총 재 이하우
고 문 이기인 윤재구 이성준
회 장 이동열
수석부회장 박학률
부 회 장 김순경 오일수
신철웅 윤주철 류동길
수석총무위원 김두찬
감 사 김영수 김영구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회관2층
TEL : 051-802-6101
FAX : 051-807-7351

사회복지법인
## 불 국 토

대표이사 정 관
상임이사 혜 총
이사 청 련 이사 정 여
이사 범 산 이사 지 현
이사 종 실 감사 박창식
감사 김대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TEL : 051-868-0951
FAX : 051-868-1258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 釜山佛敎實業人會

회 장 서 춘 석
고 문 강 병 중

상임부회장 최용원 부회장 박수복
부회장 백봉도 부회장 김윤환
부회장 최 찰 감 사 이근철
부회장 김종래 감 사 박수관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3번지 삼한오피스텔 907호
TE_:051-637-7174~5/FAX:051-637-7176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 법 형 제 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
TEL : 051-403-7077

자비 실천회
## 찬불가 교실

찬불가,가요,가곡등을 무료지도합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봉사단체로서 양로원,교도소 등을 방문합니다.〉

회 장 한 영 옥
지도강사 이 옥 희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매주금요일11시〉
TEL : 051-898-1547/634-5114

한마음 선원
## 부산지원 합창단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공양을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 장 박 채 주(춘산)
총 무 강 갑 순(진면)
단 원 일 동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67 동보빌딩4층
현대불교신문사강당〈매주 목요일 10시30분〉
TEL : 051-634-5114

사단법인
## 동다송 문화회 동다송 문화원

원 장 박 수 자

1층 허영한복 동다무역
051-625-0784~5
2층 송풍암(다실)
051-621-8648~9
3층 죽로지실(교육원)
051-626-4632
지하1층 소강당(전시및특강)
051-621-8648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8-2

## 성불불사포교원

석가세존 일대기

팔상록,부모은중경,금강경,
반야심경 8폭 병풍 보급중

■ TEL : 02-831-2848~9
수신자부담 080-284-2848
FAX : 02-831-2849

## 예공종합건축

각 사찰설계 · 건축전문

대 표 정 운 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24
TEL : 02-569-5290/482-5724

늘 기쁜마음,감사한 마음
## 관음사 출판부 도서출판 보안

불서전문출판/불교용품기획 · 제작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151-3번지
거상빌딩 4층
TEL : 051-255-5675
FAX : 051-255-5676

## 보쌈젖갈 및 각종젖갈,김장김치

절임식품 제조원(부산진허제 18호)

## 세명식품

대 표 설 정 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4
TEL : 051-804-5989
051-817-5915

## 成光社

불교용「燈」생산 전문업체

대 표 李東權

■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11-9
TEL : 051-505-8390
FAX : 051-504-7435

## 현 우 기 획

조립식 팔각등 제조판매
인쇄된 장엄등,백등(초벌등)
각종 인쇄물,박스인쇄전문

■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27
대학문화원 312호
TEL : 02-277-1548

## 백산 종합 해사

대 표 백 문 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38-1
TEL : 051-413-9600
FAX : 051-413-9602

## 진석콜렉션

대 표 구 진 모

숙녀복, 하이패션

TEL : 051-867-0041

# 부처골에 온 부처님

윤 제 학
〈동화작가 · 현대불교신문 출판부장〉

4 현대불교 창간 4돌

## 거짓말처럼 눈을 뜬 부처님이 인석을 향해…

그의 꿈은 결코 석수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석수장이였기 때문에 석수장이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석수장이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석수장이가 된 것처럼.

"어이, 인석이. 잘 있었는가."

박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힐끔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역시 자네는 타고난 돌쟁이여. 망치질하는 손 놀림조차 어른을 그대로 빼닮았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일하는 고집도 그대로야."

말을 하면서도 박 사장은 잠깐도 손을 그냥 두지 않고 까만 양복으로 달라붙는 돌가루를 털어 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인석의 망치질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만약 이 모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았다면 금방 불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이놈아, 망치질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솜씨 좋은 목수를 봐라. 그들은 못질을 하면서도 못대가리를 보지 않아. 오직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못 끝만 봐.'

망치와 정을 내려 놓는 인석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잊지 않았겠지. 이젠 자네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으니까 돈도 벌어야 하잖아.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내 밑으로 와. 자네 솜씨라면 금방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어릴 때 친구들이 돌쟁이 아들이라고 놀린다면서 울었던 적이 어디 한두번이야. 그게 다 가난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라. 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어."

박 사장은 침을 튀기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만 인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박 사장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 마디 대꾸도 할 수 없는 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돌쟁이는 여느 돌쟁이와는 달라야 해. 돌부처는 돌쟁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돌 속에 계신 부처님을 모셔 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냥 봐서는 돌 속에 계신 부처님이 보이지 않아. 훌륭한 돌쟁이는 모양을 만드는 데 집착하는 법이 없어.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데 공을 들일 뿐이지. 제아무리 솜씨가 좋아 봤자 옥에 티를 벗기는 일에 지나지 않아.'

마치 박 사장은 옛 스승의 이런 얘기를 듣기나 한 듯 다시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자네 어른도 내 말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 좋은 기계는 또 얼마나 많고. 어른이 몇년 걸려 한 일도 요즘은 몇달이면 족하다고."

돌부처처럼 앉아 듣기만 하던 인석도 차마 이 말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마치 씹던 밥에서 골라낸 돌을 뱉듯이 입을 엽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했던 분이 왜 다른 사람까지 부추켜 도망치듯이 아버지 곁을 떠났나요."

"그건 어른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지 우리가 떠난 게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도 모르는 분이셨거든. 그건 자네도 잘 알잖아."

인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돌부처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돼. 그런 사람은 돌에 피가 돌 게 할 수 없어. 하다 못해 돌담을 쌓는 돌쟁이도 돌의 이모저모를 살펴 제자리를 찾아주는 법인데, 부처님을 모시는 돌쟁이라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과는 달라야지. 욕심으로 만든 부처님은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

박 사장은 떠났습니다. 언제라도 마음이 변하면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그날부터 인석은 정과 망치를 영원히 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와 같은 장인이 될 능력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박 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주 먼 곳으로 — 자신이 무얼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 그런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다듬는 재주 말고는 물려 받은 것도 없었으니 길 떠나는 그에게 소용될 게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했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몇 개의 연장을 가방 속으로 챙겨 넣습니다. 끌망치, 도두락망치 그리고 조금씩 모양이 다른 몇 개의 정.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분신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두고 갈 수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작정 남쪽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종이배를 접어 강물에 띄웠듯이 세상이라는 큰 강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까지 누렇게 익은 벼들이 넘실대는 곳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자리잡은 집들은 들녘 끝 산자락에 기대앉아 일 나간 주인들을 기다리며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그중 가장 한갓진 곳에 자리잡은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란 하늘에 걸린 빠알간 까치밥이 꼭 자신을 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네의 이름은 부처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고 부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흔한 돌부처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석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네 이름이 귀에 익어서 찾아오긴 했지만 어차피 버스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가르쳐 준 여러 동네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

집 주인인 듯한 할아버지는 낯선 젊은이가 마당을 서성이는대도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없이 말을 건네며 지게를 벗어 내립니다.

"저, 그냥 농사일이라도 거들면서 며칠 묵었다 가려고요."

"행색을 보아하니 나쁜짓하다 쫓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네만 농사꾼도 아닌 것 같구먼."

"예, 어르신. 농사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렇게 튼튼하니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밥벌레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속아 보지. 농삿일이라는 게 원래 하늘이 해 주는 거니까."

그날부터 인석은 부처없는 부처골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사일도 썩 잘 해 내었습니다. 벼를 베고 볏가리를 만들고 낟알을 털어 가마니에 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제격이었습니다.

"부처골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그려."

인석은 어느 새 부처골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회지로 나갔기 때문에 이집저집에서 서로 인석을 데려 가려고 다툴 정도였으니까요.

가을걷이가 끝이나자 나무들도 다투어 잎을 내려 놓기 시작합니다. 일손을 놓은 농부들은 다시 겨울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인석에게는 긴 휴식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할 일 없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리던 인석은 발부리에 채이는 도토리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동네의 뒷산 기슭에 발길이 닿았으니까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마을과 뒷산을 번갈아 둘러보고는 내친 걸음에 산 꼭데기까지 가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제법 험한 산이었습니다. 겨우살이 준비에 바쁜 다람쥐와 길동무를 하며 정신없이 걷다보니 어느 새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잠시 멈춰 서서 이마의 땀방울을 훔치고 돌아서자 거짓말처럼 동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팔을 벌리면 한 집도 빠짐없이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녘에서 바라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에 기대앉은 모습이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석은 그대로 굳어져 돌이라도 되려는 듯 꼼짝을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인석은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듯 목을 길게 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화들짝 놀란 인석은 황급히 돌아서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법 넓은 너럭바위 위에 선 사람 모양의 바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쉴새 없이 절을 하던 인석은 나는 듯이 동네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위 앞에 선 인석의 손에는 정과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인석은 신들린 사람처럼 끌망치로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토닥토닥 하는 소리가 더해 갈수록 거짓말처럼 조금씩 조금씩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새 날이 저물었지만 때마침 떠오른 보름달은 인석의 손끝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부처님의 모습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몸을 휘감은 옷자락은 금방이라도 휘날릴 듯했고 도드람한 입술에선 하늘의 노랫가락이 울려퍼질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부처님은 완연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얼굴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인석은 돌이라도 된 양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위가 뚫어질 듯 바라보기만 할 뿐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뱅그렁'

탈진한 인석의 손에서 정과 망치가 미끄러져내립니다. 떨어지는 망치와 함께 인석도 털썩 주저앉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온 인석은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요.

인석은 동네 어른들께 인사도 하지 않고 동구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키보다 몇 갑절 큰 긴 그림자만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끕니다.

동네를 다 벗어날 무렵 인석의 손에선 꼬깃꼬깃 접힌 종이쪽지가 떨어져 내립니다. 박 사장의 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인석은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도무지 부처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보잘것 없는 재주가 박 사장을 찾게 만들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동네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껴준 어른들께 인사는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돌려 세우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새기다만 부처 바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인석은 미친듯이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부처님을 다치게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곧 쓰러질 것 같던 사람이 언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단숨에 산을 오른 인석은 다시 한 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거짓말처럼 눈을 뜬 부처님이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게 아닙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 부처님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회지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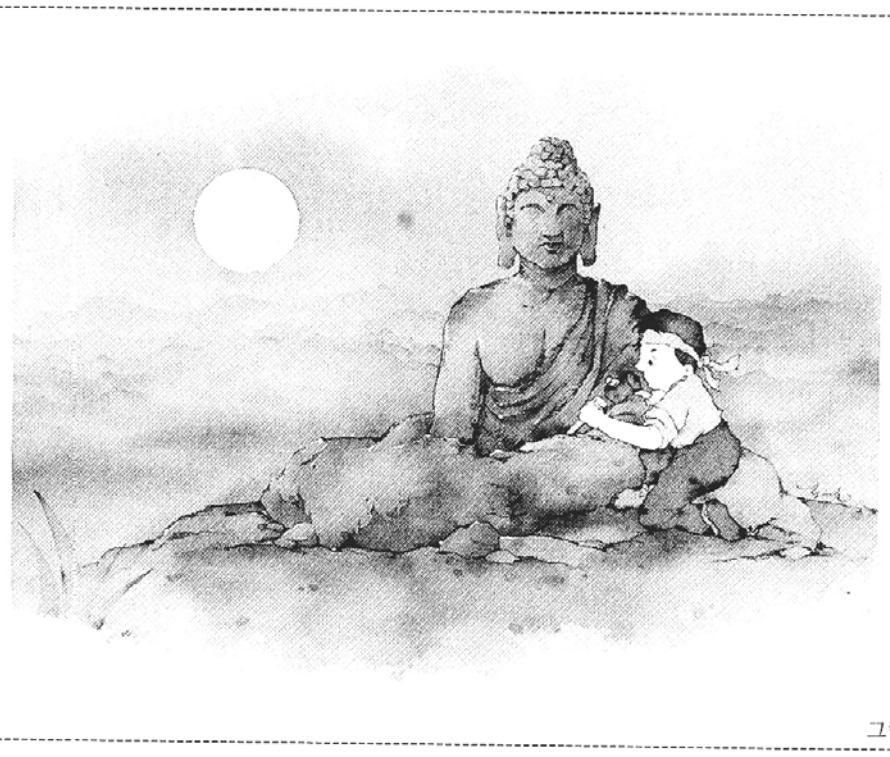


그림 · 노열

**돌부처는 돌쟁이가 만드는게 아니야**
**돌속에 계신 부처님을 모셔오는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 둘째 부(富:부와 귀) · 셋째 강녕(■:편안함) ·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닫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로화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명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 고불총림 백양사

방 장 서 옹 큰스님
주 지 지 선

선원장 일 수 강 주 혜 권
강 사 법 장 총무국장 호 월
기획국장 토 진 교무국장 법 현
재무국장 무 공 사회국장 금 강
포교국장 진 우 호법국장 현 묵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 화 : 0685)392-7502
팩 스 : 0685)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 송 광 사

조계총림 방장 범일 보성 큰스님

주 지 현 지
총 무 무 상
재 무 도 향
교 무 오 경
기 획 지 인
호 법 정 인
포 교 종 밀
사 회 인 경
원 주 정 오

▶ 전라남도 순천시 신평리 12번지
전화: 0661)755-0107
팩스: 0661)755-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 대 둔 사

주 지 보 선
강 사 도 형
총 무 은 성
기 획 몽 산
재 무 월 우
사 회 범 륜
호 법 혜 일
원 주 오 석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전 화 : 0634)534-5502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 기도도량

## 삼각산 도선사

주 지 차 동 광

대 중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종무소 : 993-3161~3
주지실 : 993-5002
팩 스 : 993-3164

대한불교조계종

## 증 심 사

주 지 영 조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전화 : 062)226-0107

### ⊙ 광주불교교육원 ⊙

원 장 영조스님
이사장 이 범 식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2-17
봉산빌딩 4층
전 화 : 062)228-9098

## 부산 불교 어린이 지도자회

회 장 정 여

▶본회사업

● **동련 불교 교사대학**
어린이 포교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 **제1회 연꽃 큰 잔치(운동회)**
-일시 : 98년 10월 18일(일)오전9시30분
-접수기간 : 10월 11일까지

● **제13회 찬불가 독경대회**
-일시 : 98년 11월 15일(일)오전10시
-접수기간 : 10월 18일까지

■ 부산시 진구 양정3동 369-22
보현선원내
TEL : 051-853-5486 본회사무국

불자님과 더불어 커가는 은행

## 부산불교 신용협동조합

**정부보장!**
**비과세혜택!**
**높은수익!**

서민 금융기관중
예금전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곳은
신협 뿐입니다.

■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834-20
TEL : 051-633-9120~3

## 부산 경남 불교합창단 협의회

각 사찰 합창단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문 박 성 빈(한마음선원)
김정인행(옥련선원)
김 경 선(천불사)
김 영 순(통도사 포교원)
박 숙(불교교육대학)
설 추 자(삼광사)
회 장 박 채 주(한마음선원)
부회장 이 태 자(영주암)
백대동심(금강암)
황 유 광(삼광사)
총 무 공문정(황정사)
부총무 김 광 자(소원사)
재 무 김 애 라(통도사 포교원)
기 획 김 귀 련(공덕원)
홍 보 이 향 자(불교교육대학)
정 수 연(현불사)
섭 외 이 정 옥(혜원정사)
감 사 추 정 원(내원정사)
서 기 강 혼 자(금련사)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 도 회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
TEL : 051-403-7077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 감 로 사

원장 지 관
노전 보 안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총무 경 법 교무 경 성
재무 경 원

신도회 지도법사 곽 만 연
학생회 지도법사 김 영 권
이 육 태
윤 신 혜
사 무 장 이 춘 성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
TEL : 051-809-0926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72-3100
팩 스 (0343)72-2746

### ● 국내지원 ●

● **금왕지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 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21-466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아산지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3통 1049번지
Tel : 0418-44-1464

● **울산지원**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 0522-44-0884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 **마산지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2~3층
Tel : 0551-42-6638~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Tel : 0431-273-6946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강원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43-0642

###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지원)

● **New York** (뉴욕 플러싱지원)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Tel : 718-460-2019/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Fax : 703-560-5166

● **Los Angeles** (LA지원)
210 N Catalina St LA CA 90004
Tel/Fax : 213-382-1711

● **Chicago** (시카고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Fax : 847-674-0812

-CANADA (캐나다 토론토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of Argentina
Tel : 541-921-9286/ Fax : 541-925-0054

● **Tucuman** (뚜꾸만지원)
El corte (Frente Policia)
Avenida. Aconquiza Yerba Buena
Tucuman Rep. of Argentina
Tel : 5481-25-1400

-GERMANY (독일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Fax : 49-2131-969552